

리아호나

연차 대회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과
교회 이름의 중심

새로운 교과 과정과
주일학교 일정이 가정과
교회에서의 복음 공부의
균형을 맞추다

새로운 성전 열두 곳이
발표되다





“오늘 저는 제 마음의 모든 소망을 담아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영적 은사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지금껏 해 왔던 것 이상으로 그것들을 키우고 활용하며 확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개종,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의 지도력과 지혜,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여러분 없이 이스라엘을 모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께 감사하며, 이제 여러분이 이 중대하고 긴박한 사업을 도울 때 세상을 뒤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이스라엘의 집합에는 자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69쪽, 70쪽.

돌아오다,
제너디 페이지

2018년 11월호 목차

제55권, 제11호

토요일 오전 모임

- 6 개회 말씀
러셀 엠 넬슨 회장
- 8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고 지속적인 개심
쿠엔틴 엘 쿡 장로
- 12 네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엠 조셉 브로
- 15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음
스티븐 알 뱅거터 장로
- 18 근심하지 말라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 21 함께 모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25 진리와 계획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 28 교회 역원 지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30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34 선지자의 음성
딘 엠 데이비스 감독
- 37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 40 우리 신앙의 모퉁돌
게릿 더블유 공 장로
- 43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을 받들어야 합니다
폴 비 파이퍼 장로
- 46 믿고, 사랑하고, 행하십시오
디이터 에프 우트도르프 장로

여성 총회

- 50 그분을 위해
조이 디 존스
- 52 신성한 불만족
미셸 디 크레이그
- 55 이타적인 봉사가 주는
기쁨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 58 가정에서의 복음 학습과
여성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61 부모와 자녀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 68 이스라엘의 집합에는 자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일요일 오전 모임

- 71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
엠 러셀 벨라드 회장
- 74 목자가 됨
보니 에이치 코든
- 77 화해의 성역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80 개종에서 몰몬경이 하는 역할
세인 엠 보웬 장로
- 83 상처 입은 자
닐 엘 앤더슨 장로
- 87 교회의 정확한 명칭
러셀 엠 넬슨 회장

일요일 오후 모임

- 90 노력, 노력, 노력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93 하나님 아버지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 97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로버트 시 게이 장로
- 101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매튜 엘 카펜터 장로
- 104 오늘 택하라
데일 지 렌런드 장로
- 107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잭 엔 제라드 장로
- 110 영혼의 목자가 됨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 113 모범적인 후기 성도가 되십시오
러셀 엠 넬슨 회장

- 6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총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역원
- 115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 116 교회 소식
- 121 와서 나를 따르라—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제188차 반연차 대회

2018년 10월 6일 토요일 오전 모임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크레이그 에이 카든 장로
 폐회 기도: 아덜슨 드 파올라 파렐라 장로
 음악: 템플 스퀘어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브라이언 마티아스, 리처드 엘리엇.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43장. “동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4장, 윌버그 편곡.
 “마음으로 귀 기울일 때”, 디포드, 머피 편곡.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 어린이 노래책, 86쪽, 흡하인즈 편곡.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16장, 윌버그 편곡.

2018년 10월 6일 토요일 오후 모임

사회: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개회 기도: 쉐런 유뱅크
 폐회 기도: 조니 엘 코호 장로
 음악: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연합 합창단.
 지휘: 라이언 에지, 엘모 켈크, 오르간 반주: 린다 마게츠, 보니 굿리프,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 찬송가, 167장, 스킨크 편곡.
 매들리: “용감한 중”, 어린이 노래책, 85쪽. “예수 그리스도 교회”, 어린이 노래책, 48쪽, 워비 편곡. “주 섬기라”, 찬송가, 145장. “이스라엘 시온 군대”, 찬송가, 156장, 스킨크 편곡.

2018년 10월 6일 토요일 저녁, 여성 총회

사회: 진 비 빙엄
 개회 기도: 맬렛 로페즈
 폐회 기도: 제니퍼 프리
 음악: 유타주 플레전트 그로브 연합 스테이크 청년 합창단. 지휘: 트레이시 워비,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3장, 워비 편곡. “This Is the Christ”, 파우스트, 핀보로우, 무디.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우리들은 니파이처럼”, 어린이 노래책, 92~93쪽, 워비 편곡.

2018년 10월 7일 일요일 오전 모임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앨런 에프 패커 장로
 폐회 기도: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음악: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리처드 엘리엇, 앤드류 언즈워스.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이스라엘 구속주”, 찬송가, 27장, 윌버그 편곡.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찬송가, 163장, 윌버그 편곡.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 찬송가, 6장. “His Voice as the Sound,” American folk hymn, Walker, arr. Wilberg; “It Is Well with My Soul,” Spafford and Bliss, arr. Wilberg.

2018년 10월 7일 일요일 오후 모임

사회: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개회 기도: 게리 비 사빈 장로
 폐회 기도: 마이클 존 유 테 장로
 음악: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앤드류 언즈워스, 브라이언 마티아스. “In Hymns of Praise,” Hymns, no. 134, arr. Wilberg.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 찬송가, 70장, 윌버그 편곡. “하나님께 영광”, 찬송가, 49장. “Our Prayer

to Thee,” Nelson and Parry, arr. Wilberg.

대회 말씀 자료

연차 대회 말씀을 온라인에서 여러 언어로 시청 또는 청취하고 싶다면 conference.lds.org에 접속해서 해당 언어를 선택한다. 연차 대회 말씀은 복음 자료실 모바일 앱에서도 볼 수 있다. 장애가 있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연차 대회 자료는 disability.lds.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지

앞: *세상의 빛*(2015년), 윌터 레인, 복사 금지.
 뒤표지 사진 촬영: 코디 벨.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 사진: 코디 벨, 자네 빙엄, 메이슨 코벌리, 웨스턴 콜튼, 브라이언 니콜슨, 레슬리 닐슨, 맷 라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2018년 11월호, 제55권 제11호

리아호나 14853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헬리 비 아이어링

심이사도 정원화: 엘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런드,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게리 이 스티븐스, 데일 지 랜런드, 개릿 더블유 공, 울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렌디 다 펠코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랜들 케이 베네트, 베키 크레이븐, 쉐런 윙버그,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도널드 엘 홀스트롬, 래리 에스 캐저, 에릭 더블유 코우피슈케, 린 지 로빈스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하튼

교회 집사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보조: 프란시스코 울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머리사 드니스, 데이비드 디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토, 로리 풀러, 개릿 에이치 가르, 존 라이언 켄슨, 샬러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셸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키, 쟈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민디 셸류, 차클 워들레이, 머리사 위디슨

편집 인턴: 브리애너 홀 허버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크트 코누센

미술 책임자: 데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제넷 앤드류스, 페이 피 앤드류스, 맨디 벤틀리, 시 킴볼 보트, 토머스 차일드, 조슈아 데니스, 데이비드 그린, 콜린 힐클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에밀리 차코레 레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를 워커토티스트

디자인 인턴: 앨런 포글

자격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요운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슨

제작팀: 아이라 글렌 어데어, 줄리 베틀,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날슨, 데렉 리처드슨, 머리사 엠 스티스

사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알 버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관: 제630호, 제55권, 제1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8년 11월 1일(일간지)

발행일: 이호상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중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원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된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8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November 2018 Vol. 42 No. 11.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연사 색인

- 게리 이 스티븐슨, 110
게릿 더블유 공, 40
닐 엘 앤더슨, 83
달린 에이치 옥스, 25, 6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21
데일 지 랜런드, 104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30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46
딘 엠 데이비스, 34
러셀 엠 넬슨, 6, 68, 87, 113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18
로버트 시 게이, 97
매튜 엘 카펜터, 101
미셸 디 크레이그, 52
보니 에이치 코든, 74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93
세인 엠 보웬, 80
스티븐 알 뱅거더, 15
엘 러셀 벨라드, 71
엠 조셉 브로, 12
울리세스 소아레스, 37
잭 앤 제라드, 107
제프리 알 홀런드, 77
조이 디 존스, 50
쿠엔틴 엘 쿡, 8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55
폴 비 파이퍼, 43
헬리 비 아이어링, 28, 58, 90

주제 색인

- 가르침, 15, 58, 68
가정, 6, 8, 15, 18, 21, 58, 113
가정의 밤, 8
가족, 6, 8, 15, 25, 58, 61, 113
간증, 80
개인의 가치, 74, 97
개종, 8, 21, 30, 37, 80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37
경전 공부, 8, 37, 58
계시, 18, 34, 80
관점, 68, 107
교과 과정, 6, 8, 113
교회 이름, 87, 113
구원의 계획, 25, 61, 71, 93, 104
기도, 58
기쁨, 12, 40, 46
기술, 61
두려움, 18, 101
모범, 113
모성, 58, 61, 68
몰몬경, 34, 68, 80
미디어, 68
박해, 83
배움, 58, 113
봉사, 37, 40, 50, 52, 55, 74, 97
부모의 본분, 15, 61
부활, 71, 93
사랑, 18, 37, 40, 46, 50, 55, 58, 61, 74, 77, 90, 93, 97, 110
사망, 71
상호부조회, 68
선지자, 18, 34
선지자를 따름, 34
선택의지, 25, 104
성신, 18, 43, 80, 93
성약, 30, 43, 80, 107
성역, 37, 40, 46, 50, 68, 74, 77, 97, 110
성전 사업, 68, 113
성전, 18, 34, 113
성찬, 8, 43, 90
속삭임, 52
시련, 83, 90
신성한 본질, 68
신앙, 6, 15, 18, 21, 25, 30, 40,

- 52, 83, 90, 104, 113
안식일, 8
역경, 12, 18, 30, 46, 55, 71, 83, 101
영의 세계, 71
예수 그리스도, 6, 8, 12, 15, 18, 21, 25, 30, 34, 37, 40, 43, 46, 50, 52, 55, 58, 71, 74, 77, 80, 83, 87, 90, 93, 97, 101, 104, 107, 110, 113
온전함, 40
용서, 12, 77
우순순위, 107
우정 증진, 37
우정, 37, 74
은혜, 40, 52, 97
이스라엘의 집, 68
이스라엘의 집합, 21, 68, 74, 80
인내, 30, 83
자녀, 15, 25, 61
자애, 55, 58, 90
전세, 93
전통, 15
제자 됨, 12, 43, 46, 52
조셉 스미스, 34, 52, 80, 107
진리, 25, 107
창의성, 40
청소년, 74
치유, 46, 83, 97, 101
친절, 61
침례, 43
판단, 97
평화, 18, 77, 83
하나님 아버지, 25, 40, 93, 104
화목, 77
활동 촉진, 110
회개, 25, 101, 104
회복, 87
희망, 46, 90
희생, 55



제188차 반연차 대회 하이라이트

연 차 대회에서 주요 변경 사항이 또 다시 발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다르지만, 그목적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겨,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라고 권유한다.

다음은 러셀 엠 넬슨 회장이 연차 대회에서 강조한 몇 가지 중요한 권유와 약속이다.

가정을 좀 더 거룩한 곳으로 만드십시오

개회 말씀에서 넬슨 회장은 우리의 삶에서 가정을 복음 학습의 중심으로 만들 필요성을 소개했다. “이제는 **가정이 중심이 된 교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지부, 와드, 스테이크 건물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 가정에서 행하도록 제안된 변경 사항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회에서의 조정

사항을 읽는다.(8쪽 참조)

- 추가 정보는 “가정과 교회에서의 복음 교육에 균형을 이루게 하는 변경 사항”(117쪽)에서 찾아본다.

“세상을 뒤로하고”

넬슨 회장은 여성 총회에서 자매들에게 “오늘날 이 지상에서 ... **가장 위대한 대업**”에 참여해 달라고 권고했다 그는 이렇게 약속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 넬슨 회장이 자매들에게 준 4가지 권유를 읽는다.(68쪽 참조)

“주님의 교회의 정확한 이름을 회복하십시오”

넬슨 회장은 회원들에게 구주의 교회를 구주께서 주신 이름으로 부르라고 요청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이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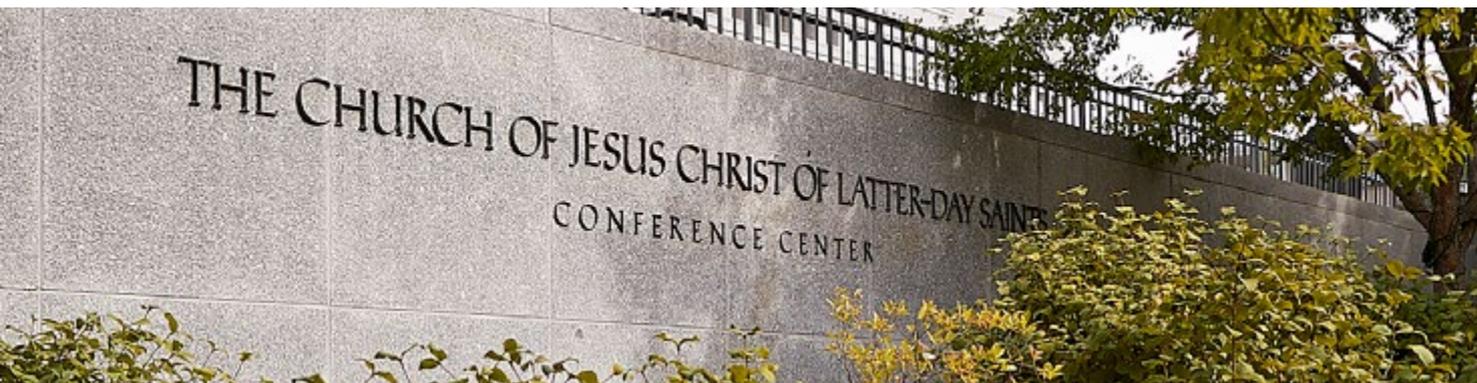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후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껏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권능과 축복을 부으실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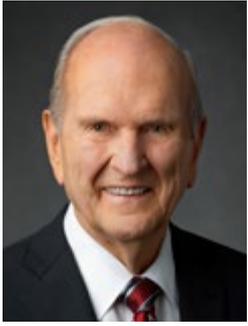
- 교회 이름에 대한 넬슨 회장의 가르침을 읽는다.(87쪽 참조)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넬슨 회장은 연차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성전 12개를 발표하고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권유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적을 알고 계시므로 여러분이 그분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기 위해 희생할 때, 여러분에게 그 기적을 가져다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 발표된 성전의 위치를 찾아본다.(113, 116쪽 참조)





러셀 엠 넬슨 회장

개회 말씀

이제는 가정이 중심이 된 교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지부, 와드, 스테이크 건물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10월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과 다시 모이게 될 오늘을 고대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를 지지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영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 전 연차 대회에서 주어진 권고 사항을 따르는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지대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의 스테이크 회장단은 장로 정원회를 재조직하기 위해 필요한 계시를 구했습니다. 장로 정원회의 형제들은 헌신적인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 훌륭하고 더 거룩한 방식으로 성역을 베풀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 구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이 하셨을 방식으로 성역을 베풀기 위해 보여



주시는 놀라운 노력과 선함은 저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 이후에 넬슨 자매와 저는 네 개의 대륙과 여러 섬나라에서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부터 하라레까지, 또 위니펙부터 방콕까지 여행하면서 여러분의 위대한 신앙과 간증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기 위해 주님의 청소년 대대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숫자를 보면 기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¹ 감사합니다! 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에서 제가 드렸던 권유를 계속하여 따를 때, 여러분은 나머지 저희들이 따를 수 있는



표준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최근 몇 년간, 교회의 감리 평의회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복음을 단순하고 순수한 형태 그대로 가져다주고, 영원한 효력을 동반한 의식을 전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기초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우리 후기 성도들은 '교회'란 집회소에서 하는 무언가이며, 가정에서 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생각의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가정이 중심이 된 교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지부, 와드,

스테이크 건물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교회가 전 세계에서 성장해 나감에 따라 집회소가 없거나 당분간 집회소를 갖게 될 가능성마저 낮은 지역에 사는 회원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가족은 그러한 상황 때문에 집에서 모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가족의 어머니에게 집에서 교회 모임을 하는 것이 어떤지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제 남편은 이제 집에서 더 고운 말을 사용합니다. 이곳에서 매주 성찬을 축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오래전부터 추구해 온 교회의 목적은

모든 회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증진하도록 돕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도우며, 그들의 가족을 강화하고 인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복잡한 세상에서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신앙과 우리와 가족을 향한 공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대응전략과 사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회원들과 가족들을 더 잘 방비하기 위해 교회 전반에 걸친 조정 사항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수년간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계획을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통해 가정과 개인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교과 과정 개발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계획은 교리를 배우고 신앙을 강화하며 개인적인 예배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 즉 그날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표하는 더 즐거운 날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 소개할 이 조정 사항들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가정에서의 복음 교육과 교회에서의 복음 교육을 서로 이어 주고 둘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조정 사항을 발표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또한 경전은 자녀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일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² 교회의 역할은 각 회원이 복음 지식을 키우는 이 신성한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 쿠엔틴 엘 쿡 장로님께서 이 중대한 조정 사항에 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제일회장단 평의회와 십이사도 정원회의 모든 일원은 이 메시지를 한마음으로 지지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는 쿡 장로님께서 발표할 계획과 절차들이 주님의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며, 그분께서는 겸손한 종들에게 주시는 예언과 계시를 통해 이 교회를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넬슨과 웬디 더블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 (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HopeofIsrael,lds.org 참조.
2. 교리와 성약 93:40; 모세서 6:58~62 참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고 지속적인 개심

우리의 목적은 신앙과 영성을 크게 강화하고, 더욱 깊이 개심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에서 하는 경험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방금 아름답고 유려하게 설명하신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교리를 배우고, 신앙을 강화하며, 개인적 예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계획”을 마련하고자 오랜 기간 노력해 왔습니다. 넬슨 회장은 “가정에서의 복음 교육과 교회에서의 복음을 서로 이어 주고 둘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조정 사항을 발표하셨습니다.¹

이는 넬슨 회장의 지시하에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로 구성된 평의회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넬슨 회장이 말씀하신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요일 모임 일정이 2019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이 조정될 것입니다.

일요일 모임 일정

매주 일요일 교회 모임은 60분간의 성찬식 모임으로 시작하며, 그 모임에서는 구주와 성찬 의식과 영적 메시지가 주된

초점이 될 것입니다. 이후 교회 회원들은 각 반으로 이동하여 50분 동안 모임에 참석하며, 이 모임은 매주 일요일마다 다음과 같이 번갈아 진행될 것입니다.

- 매달 첫째 및 셋째 일요일에는 주일학교가 열립니다.
- 둘째 및 넷째 일요일에는 신권 정원회, 상호부조회, 청년 모임이 진행됩니다.
- 다섯째 일요일 모임은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 진행됩니다.

초등회는 같은 시간에 매주 50분 동안 진행되며, 이 시간에는 노래 부르기와 반별 모임이 포함됩니다.

일요일 모임 일정에 관하여, 우리의 소중한 회원들 중 일부에게는 세 시간 동안 교회의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힘든 일일 수도 있음을 총관리 직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둔 부모, 초등학교 어린이, 연로한 회원, 새로운 개종자 등과 같은 분들은 더욱



그러셨을 것입니다.²

하지만, 이 변경 사항에는 단순히 일요일 집회소 일정을 축소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지난 번 권고들을 여러분께서 충실히 이행해 주신 덕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넬슨 회장님과 모든 지도자들은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균형 있는 노력을 통해 부모, 어린이, 청소년, 독신, 연로한 회원, 새로운 개종자 및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복음에서 더욱 큰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조정 사항 및 최근 있었던 변경 사항에 수반되는 목적과 축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개심과 신앙을 강화한다.
-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과 과정을 통해 개인 및 가족을 강화하여 복음 생활에 기쁨을 더한다.
- 성찬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안식일을 지킨다.
- 성전에서 의식, 성약, 축복을 받고 선교 사업을 통해 휘장 양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돕는다.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복음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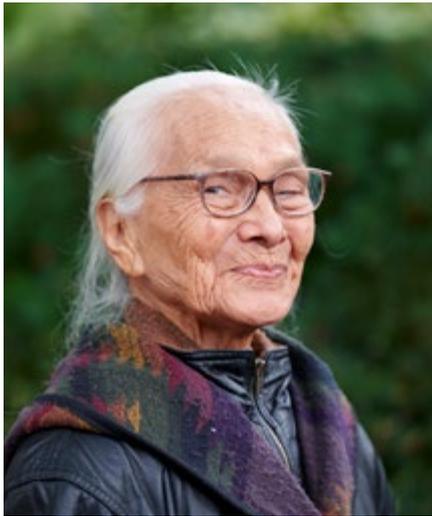
이러한 일요일 모임 일정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며, 일요일 혹은 개인 및 가족 상황에 따라 다른 시간에 가정에서 복음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가족 활동의 밤은 월요일 혹은 다른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월요일 저녁에는 교회 모임과 활동을 계획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및 가족을 위한 가정의 밤, 복음 학습, 활동을 위한 시간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개인 및 가족 복음 학습은 새로운 통합 교과 과정인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교재를 통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이 교재는 주일학교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보조를 같이할 것입니다.³ 오는 1월부터, 교회의 청소년반, 주일학교 성인반, 초등학교반은 모두 신약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정 학습 자료인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교재 역시 신약전서를 다루며, 이 자료는 회원들이 가정에서 복음 학습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재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교회의 모든 개인과 가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료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복음을 공부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고안되었다. … 여기에 수록된 개요는 주간 … 일정에 맞춰 구성되어 있다.”⁴

교회에서 새롭게 가르칠 *와서 나를 따르라* 초등학교 교재 역시 같은 주간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첫째 및 셋째 일요일에 진행될 성인 및 청소년 주일학교반은 새로운 *와서 나를 따르라* 가정 학습 자료를 보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및 넷째 일요일, 신권회와 상호부조회에 참석하는 성인들은 계속해서 현대 선지자들이 최근에 전한 메시지에 중점을 둔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공부할 것입니다.⁵ 둘째 및 넷째 일요일, 청년 및 아론 신권 청년들은 복음 주제를 학습할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 학습 교재에는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가 나와 있습니다.⁶ 주별 개요에는 개인 및 가족을 위한 활동과 유용한 학습 제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와서 나를 따르라* 교재에는 개인 및 가족, 특히 어린이들의 학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삽화가 많이 수록되었습니다.⁷ 이 새로운 자료는 올해 12월까지 각 가정에 배부될



것입니다.

벨슨 회장님은 1월에 교회 회원들에게 전하는 첫 말씀에서 성약의 길을 걸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권면하셨습니다.⁸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 깊이 개심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위험한 시기에 대비하여 말씀을 말씀을 더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최근,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염려 사항을 다루도록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 최근 3년 동안 안식일과 성찬이라는 거룩한 의식을 지키는 것이 다시금 강조되었습니다.
- 강화된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는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 교회의 목적과 신성하게 제정된 교회의 책임에 역점을 두고,⁹ 회원들이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더 높고 거룩한 방식”으로 행하는 성역이 기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의 일환으로, 성전 성약과 가족 역사 사업이 성약의 길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변경 사항은 우리 시대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또

다른 인도의 손길입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교과 과정은 일요일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사가 더 잘 가르치고, 반원들이 더욱 영적으로 준비된다면, 일요일에 교회에서 더욱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영을 통해 깊게 개심되고 강화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 새로운 교과 과정은 가족 및 개인의 종교 의식과 행위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영적 영향력과 깊고 지속적인 개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청남 청년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경전 공부와 기도를 할 때 성신의 영향력을 가장 자주 느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신앙과 영성을 크게 강화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 깊이 개심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에서 하는 경험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변경 사항에서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부분은 각각의 개인 및 가족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모든 가정에 큰 축복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필요 사항에 따라 청년 독신, 독신 성인, 한부모 가정, 일부만 회원인 가족, 새로운 회원¹⁰ 및 다른 이들은 일요일 예배 모임 이외에 따로 그룹으로 모임을 갖고 함께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에서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부함으로써 복음 안에서 친목을 다지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곳에는 일요일 정규 모임 일정을 마치고 집회소에 남아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변경 사항은 이 훌륭하고 유익한 관행을 어떤 식으로든 저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회원들이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중에 유익한 내용의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메시지를 보내는 와드들도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을 계기로 이러한 방식의 소통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회원들은 그 주 일요일 모임 일정과 공과 주제 등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가정에서 꾸준히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요일 성인 모임에서는 매주 교회에서의 학습과 가정 학습을 연관시킬 수 있는 내용이 전달될 것입니다.

성찬식과 분반 시간에는 행정적 기능보다는 영적 우선순위가 강조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 사항은 대부분 주중에 보내는 메시지나 순서지를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는 개회 기도와 폐회 기도가 있지만, 두 번째 시간 모임에는 폐회 기도만 하면 됩니다.¹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일요일 일정은 2019년 1월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와서 나를 따르라* 교재를 배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더 많은 와드가 더 이른 시간에 모이는 것을 목표로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님들께 모임 일정을 조정할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도자로서 계시를 구했을 때, 우리는 성찬식을 강화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가정을 영적인 힘과 신앙 강화의 원천, 즉 기쁨과 행복의 장소로 만들도록 부모와 개인을 권고하고 지원하라고 지난 몇 년 동안 인도를 받아 왔습니다.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에게 이러한 변경 사항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회원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축복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일요일은 교회와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이 가족 평의회, 가족 역사 사업, 성역, 봉사, 개인적인 예배에 참여하여 즐거운 가족 시간을 보낼 때, 안식일은 참으로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새로운 *와서 나를 따르라* 가정 학습 자료를 시범적으로 사용했던 스테이크의 한 가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환 선교사인 아버지의 이름은 페르난도, 어머니의 이름은 낸시였으며, 어린 네 자녀를 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프로그램이 저희 스테이크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집에서 경전을 공부하는 방식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너무 설렘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저는 다른 가정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 저희 가정에서는 경전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학습한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 저희의 복음 지식이 늘어났고, 신앙과 간증이



강화되었습니다. … 저는 이것이 경전에 나온 원리와 교리를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점차 사악해져 가는 세상에서 가정에 신앙과 간증과 빛이 더해지도록 주님께 영감받은 것임을 알고 있다고 간증드립니다.”¹²

이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전 세계 곳곳의 스테이크에서는 이 새로운 *와서 나를 따르라* 가정 학습 자료에 호평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전을 읽는 것에서 경전을 실제로 공부하는 것으로 발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경험을 통해 신앙을 강화하고, 와드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¹³

깊고 지속적인 관심

이러한 변경 사항의 목표는 성인 및 자라나는 세대가 깊고 지속적인 관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 및 가족 교재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복음 학습 및 가르침의 목표는 우리가 더 깊이 개종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 그것은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 …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¹⁴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학습은 교실을 넘어 개개인의 마음과 가정에서도

계속 이루어진다.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그대로 생활하고자 매일 꾸준히 노력해야만 성취될 수 있는 일이다. 참된 개종은 성신의 영향력이 필요하다.”¹⁵

깊고 지속적인 관심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궁극적인 축복은 성약의 길의 성약과 의식을 함당하게 받는 것입니다.¹⁶

저희는 여러분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함께 의논하고 계시를 구하실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실 때 풋대를 지나쳐 바라보거나 개인이나 가족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일회장단 서한 및 동봉 자료를 포함하는 추후 공지를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로 구성된 평의회가 숙고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가 주님께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계시를 구한 뒤,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강력한 확인을 받았음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우리의 살아 계신 선지자이자 회장이십니다. 오늘 발표된 변경 사항을 온 마음을 다해 기쁘게 받아들이고 성신의 인도를 구하는 분들께 깊은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리셀 엠 벨슨, “개회 말씀”,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8쪽.
2. 우리는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 교육, 심지어는 오락을 위한 다수의 행사가 상당히 축소되었음을 알고 있다.
3. 이 교과 과정은 디지털 버전 및 인쇄본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2019), vi쪽.
5. “*와서 나를 따르라—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40쪽. 연차 대회 메시지는 둘째 및 셋째 일요일이 아니라, 둘째 및 넷째 일요일에 학습하게 될 것이다.
6.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4쪽 참조. 개인 및 가족은 가정 복음 학습, 가정에서의 저녁 시간(home evening), 가족 활동 중 어떤 부분을 가정의 밤으로 할 것인지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정의 밤[family home evening]을 home evening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사항은 개인 및 가족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변경 사항에서는 home evening[가정에서의 저녁 시간]과 family home evening[가정의 밤]이라는 두 표현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사용되었다.
7.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29쪽 참조.
8. 리셀 엠 벨슨,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리아호나*, 2018년 4월호, 7쪽 참조.
9.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2 참조. 신성하게 제정된 책임에는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고, 선교 사업을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을 집합시키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성전을 건축하고 대리 의식을 행하여 죽은 자의 구원이 가능하게 하는 일이 포함된다.” 또한, 교리와 성약 110편에 있는 필수적인 열쇠의 회복에 관한 기록 참조.
10. 교회 회원이 아니거나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부모를 둔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독신 및 다른 이들 또한 관련된 모두에게 유익하다면, 가족과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다.
11. 두 번째 시간 모임에는 보통 개회 순서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12. 페르난도와 낸시 데 카르발류 가족, 브라질.
13.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개인 및 가족들은 평균적으로 복음 공부를 더 자주 했으며, 가정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경전 공부와 복음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가족 및 와드 회원들과 비공식적으로 더욱 많은 복음 토론을 했으며, 가족이 경전의 같은 부분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특히 청소년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14.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v쪽; 또한, *고린도후서* 5:17 참조.
15.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v쪽.
16. 리셀 엠 벨슨,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7쪽 참조.



엠 조셉 브로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

네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마주할 때, 머리를 들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19 81년에 저는 친한 친구 두 명과 저의 아버지와 함께 알래스카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외딴 호숫가에 내려 아름다운 고지대를 등반할 참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짊어져야 할 짐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상자에 넣고 포장재로 감싼 뒤 눈에 잘 띄는 커다란 끈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 경비행기가 목적지 위를 지날 때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우리가 던진 상자들을 계속 찾아봤지만, 실망스럽게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상자 하나를 찾았습니다. 상자에는 작은 가스 스토브와 방수포, 사탕 몇 개, 그리고 이제는 포장지만 남은 인스턴트 소고기 요리 몇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외부와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던 데다, 우리를 데리러 올 차량은 일주일 뒤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음식을 함부로 던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 둘째는 우리는 때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대체로 “왜 하필 나지?”하고 먼저 묻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묻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요구하시며,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우리의] 유익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¹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신이나 타인이 행사한 선택의지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니파이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리하이이는 아들들에게 라반에게서 낚시판을 가져오라고 하며 말했습니다. “보라 네 형들은 내가 그들에게 요구한 일이 어려운 것이라 하며 불평하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 일을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요, 이는 주의 명령이니라.”² 또 다른 상황에서 니파이의 형들은 자신들의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니파이의 선택의지를 제한했습니다. “보라, 그들이 심히 노하였던지라, 그 손을 내게 대었고 또 그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나를 줄로 묶었으니.”³

조셉 스미스는 리버티 감옥에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위안도 없이 절망에 빠진 조셉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⁴ 우리 중 조셉이 느낀 것 같은 감정을 느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혼, 복음에서 멀어진 자녀, 질병, 신앙의 시험, 실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날 에이 맥스웰 장로님이 백혈병으로 고통을 겪으시던 중에 하셨던 말씀은 저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심에 잠겨 깊이 생각하던 중, 교훈과 확신을 주는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진정성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너에게 백혈병을 주었다.’” 이 경험에 관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가] 영원의 위대한 실재성을 인식[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 영원에 대한 이러한 작은 깨달음 덕분에 우리는 다음 여정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이 아주 고될지라도 말입니다.”⁵

영원에 대한 이러한 작은 깨달음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바침으로써 어려운 일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든 이들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화합되게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⁶ 가족이나 친한 친구, 혹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가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젊은 감독 시절, 저는 스테이크 회장님이시던 브루스 엠 쿡 회장님이 나뉘 주신 다음 이야기를 듣고 용서에 관해 배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970년대 말, 저는 몇몇 동료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어리석은 결정에 어려운 경제 상황까지 겹치며 사업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우리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 변호사가 공교롭게도 저희 가족이 다니는 와드 감독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저를 파멸시키려는 사람을 지지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정말로 적개심이 생겨났고, 저는 그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5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우리는 집을 비롯하여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2002년, 저는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스테이크 회장단이 재조직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임되기 전 아내와 저는 짧은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때 아내는 만약 제가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받는다면 누구를 보좌로 선택하겠다고 물었습니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아내는 끈질겼습니다. 마침내 이름 하나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20년 전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핵심이라고 여겼던 그 변호사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영은 그가 보좌 중 한 명이 되어야 한다고 제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님이 제게 스테이크 회장의 부름을 주시던 날, 그분은 제게 한 시간을 주시면서 보좌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는 주님께서 이미 계시를 통해 알려 주셨음을 밝혔습니다. 원수로 여겼던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자, 제가 품고 있던 분노와 적개심과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용서가 가져오는 평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 제 스테이크 회장님은 고대의 니파이가 그랬듯 “흔쾌히 용서”하셨던 것입니다.⁷ 저는 쿡 회장님과 두 보좌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의로운 신권 지도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처럼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해 전 알래스카에서 어려움을 겪던 당시, 저는 우리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타하는 것, 즉 어두워지는 시간에 음식을 밖으로 던지게 했던 조종사를 타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님을 이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피로와 배고픔을 겪고, 병에 걸리고, 폭풍우 속에 방수포만 겨우 덮은 채 땅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배웠습니다.⁸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십니다. 열네 살 된 한 청년이 농구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그 청년은 언니처럼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뛰 수 있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자신의 부모님이 과테말라에 있는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청년은 학교 수업 중 일부가 자신에게 생소한 언어인 스페인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여자 스포츠 팀이라고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엄중한 보안으로 둘러싸인 건물의 14층에 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안전 문제 때문에 혼자서는 밖에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 청년이 몇 달 동안 잠자리에서 혼자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모는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결국 딸을 고향에 있는 할머니께 보내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의 결정을 알려 주기 위해 딸의 방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침대 위에 물문경을 펼쳐 둔 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딸을 발견했습니다. 영이 아내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딸은 괜찮을 거란다.” 제 아내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딸이 잠자리에서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딸은 강한 의지와 주님의 도움으로 용감하게 3년을 이겨냈습니다.

제 입기가 끝나 갈 무렵, 저는 딸에게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딸은 대답했습니다. “아뇨, 아빠 때문에 전 이미 봉사한 거나 다름없는걸요.”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섯 달쯤 후에, 저는 다음과 같은 영의 음성을 듣고 한밤중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내가 너희 딸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주었다.”

제 반응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딸은 이미 너무 많은 걸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영은 곧바로 제 생각을 바로잡아



주었고, 주님께서 딸이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요구하심을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딸을 데리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말했습니다. “괜지, 우리가 왜 여기 나왔는지 아니?”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빠. 제가 선교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걸 아빠도 아시는 거죠. 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기로 했어요.”

제 딸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고,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섬겼습니다. 딸은 제게 어려운 일을 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에서 러셀 엠 벨슨 회장은 청소년들에게 몇 가지 어려운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다섯 번째 권유는 세상에서 두드러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 주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처럼 보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복장을 갖추 입기를 요구하십니다.”⁹ 이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기쁘게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¹⁰ 리하이이는 그 모든 고난 중에도 기쁨을 찾았습니다. 엘마가 엠몬아이하 백성으로 인해 “슬픔에 눌”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¹¹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엘마야, 네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네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 이는 네가 … 그의

계명을 충실히 지켰음이니라.”¹² 엘마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면 언제든 기뻐할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모로나이 장군 시대에 전쟁과 고난 가운데서도 “니파이 백성에게 있어서 … 더 행복한 때가 결코 없었”음을 기억하십시오.¹³ 어려움에 직면할 때라도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또 찾아야만 합니다.

구주께서도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또 세상은 …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나 그는 이를 참으시며, 그들이 그를 치나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나,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친절과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¹⁴

바로 이 사랑 가득한 친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¹⁵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마주할 때, 머리를 들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간증을 전하는 이 성스러운 기회를 빌려, 우리 구주께서 살아 계시며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22:7.
2. 니파이전서 3:5.
3. 니파이전서 7:16.
4. 교리와 성약 121:1.
5. Neal A. Maxwell, “Revelation,” *First Worldwide Leadership Training Meeting*, Jan. 11, 2003, 6.
6. 니파이후서 10:24.
7. 니파이전서 7:21.
8. 누가복음 1:37.
9. 러셀 엠 벨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HopeofIsrael.lds.org.
10. 니파이후서 2:25.
11. 엘마서 8:14.
12. 엘마서 8:15.
13. 엘마서 50:23.
14. 니파이전서 19:9.
15. 요한복음 16:33.



스티븐 알 뱅거터 장로
칠십인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음

그 가르침이 비록 작고 단순한 것일지라도, 가정에서 전통을 세우고 그를 통해 가르침을 주는 것의 중요성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점차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 온의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 내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기쁨과 빛, 진리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일깨워 줄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 안에서 전통을 세우고, 가족 관계 내에서 언행의 방식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우는 전통이 자녀들에게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미덕의 특성들을 심어 주어, 그들이 인생의 시련에 맞설 힘을 지니게 해야 합니다.

수년간 저희 가족은 유타주 북동부에 있는 높은 유인타산에서 해마다 캠핑을 하는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32킬로미터를 달리면 높이 치솟은 협곡 사이로 맑고 차디찬 강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푸른 계곡에 이릅니다. 자녀와 손주들의 마음속에 복음 교리와 실천의 가치를 재차 각인시켜 주고자, 아내와 저는 해마다 여섯 아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이루는 토대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주제에 관해 짧은 메시지를 준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 후 한적한 곳에서 가족 영적 모임을 하며 각자 준비해

온 메시지를 나눕니다.

올해 제 손주들은 그들의 메시지 주제를 돌 위에 적고, 행복한 삶의 견고한 기초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 돌들을 하나씩 땅속에 나란히 묻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여섯 가지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초의 주춧돌이라는 불변의 영원한 진리로 엮여 있었습니다.



행복한 삶의 기초를 나타내는 메시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초의 주춧돌이심.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춧돌이라.”¹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의 토대에서 그 귀한 기춧돌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일이 생겨나느니라.”²

그 가르침이 비록 작고 단순한 것일지라도, 가정에서 전통을 세우고 그를 통해 가르침을 주는 것의 중요성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점차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작고 단순하지만, 전통으로 세울 때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위대한 일을 행할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최근에 캐나다 토론토 인근에서 열린 모임에서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쳐야 할 신성한 책임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부모의 필수적인 책임 중에서도 성찬을 취하는 이유와 성약 안에서 태어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축복사의 축복을 위해 준비하고



그 축복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부모에게 가족 경전 읽기를 이끌도록 권고하셨습니다.³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성소”로 만들도록 권고하셨습니다.⁴

물론경에서 이노스는 아버지의 모범에 대해 느끼는 깊은 감사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언어로, 또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몹시 감격하여 “이로 인해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쳤습니다.⁵

저는 3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가정에서 지켜 온 작고 단순한 전통을 소중히 여깁니다. 저희의 전통은 대개 미미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저녁 시간, 제가 집에 없어도 만아들은 아내의 지시에 따라 가족 경전 공부와 가족 기도를 이끄는 책임을 맡곤 했습니다.⁶
- 집을 나서거나 전화 통화를 마칠 때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저희의 또 다른 전통입니다.
- 시간을 따로 내어 아들 하나하나와 함께 정기적으로 개인 접견을 한 것은 저희의

삶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한번은 접견 중에 아들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려는 소망과 준비에 대해 물었습니다. 몇 가지를 논의한 후, 잠시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던 아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사뭇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어렸을 때 아빠와 접견을 시작했던 때가 기억 나세요?” “물론이지.” “그때 제가 선교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아빠 엄마도 나이가 드시면 함께 선교 사업을 나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잠시 멈추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두 분이 선교 사업을 나가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기도와 경전 읽기, 가정의 밤, 그리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 등 건전한 가족 전통은 작고 단순해 보여도, 사랑과 존중, 단합, 안전의 문화를 만듭니다. 이러한 노력에 수반되는 정신으로, 우리 자녀들은 오늘날 세상의 문화에 깊숙이 박혀 있는 대적의 불화살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힐라맨이 아들에게 준 현명한 조언을 되새겨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칠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⁷

여러 해 전, 제가 젊은 감독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노신사 한 분이 저에게 만남을 청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떠나게 된 사연과 더불어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이 따르던 의로운 전통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행복 가운데서 헛되이 영속적인 기쁨을 추구하면서 경험했던 심적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들어선 그는 어린 시절에 배운 가르침과 습관, 느낌, 영적인 안전을 되살려 주는 부드러우면서도 때로는 끝없이 깃가를 땀도는 하나님의 영의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전통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이로 인해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이노스의 말을 현대식으로

바꾸어 되풀이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신사분처럼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은 빈번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결국은 어린 시절에 받은 가르침과 습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잠언을 쓴 자의 지혜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부모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권고했습니다.⁸

모든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좌절의 순간을 경험하며, 자신의 결심과 가진 힘의 정도가 때에 따라 다름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신앙을 행사하여 자녀를 진실하게, 애정을 기울여 가르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은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릴 것이라는 더 큰 소망을 얻게 됩니다.

모세는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할 기본적인 필요성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네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권고했습니다.⁹

우리는 가족 기도 시간에 자녀들 곁에서 무릎을 꿇고, 의미 있는 가족 경전 읽기를 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들을 보살피며, 가정의 밤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참을성 있게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무릎 꿇고 개인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을 위해 고뇌합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이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뿌리내리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경전을 읽거나 가정의 밤을 하거나 상호 향상 모임과 다른 모임에 가기 위해 애쓸 때, 저는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모두 이해하는지”의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순간에 그들이 그런 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영감에 따라 부지런히 생활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며, 기대치를 세우라는 주님의 권고를 따를 만큼 충분한 신앙을 행사하고 있는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즉 언젠가는 어린 시절에 심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터서 자라나기 시작할 것임을 믿는 신앙에서 생겨나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치는 건전한 전통을 세울 때, 성령은 우리의 메시지가 참됨을 증거해 주고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진 복음의 씨앗에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이사야 28:16.
2. 교리와 성약 64:33.
3. See Neil L. Andersen's Facebook page, post from Aug. 19, 2018, facebook.com/lds.neil.l.andersen.
4. In Sarah Jane Weaver, "President Nelson Urges 'Teach the Children,'" *Church News*, Sept. 23, 2018, 11.
5. 이노스서 1:1.
6. 맬린 에이치 옥스,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권의 권세",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24~27쪽 참조.
7. 힐라맨서 5:12.
8. 잠언 22:6.
9. 신명기 6:7.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근심하지 말라

형제 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 위험천만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약의 길 위에 남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 금 러셀 엠 넬슨 회장님과 쿠엔틴 엘 쿡 장로님께서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평의회와 화합과 만장일치에 대하여 전하신 말씀에 제 간증을 더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시에 따른 이 발표가 주님의 생각과 뜻이며, 이것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도들을 여러 세대에 걸쳐 축복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몇 해 전,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제 딸 부부가 삶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저희 부부에게 던졌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악하고 무섭게만 보이는 이 세상에 자녀를 데려오는 것이 여전히 안전하고 현명한 일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결혼한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과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딸 부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고, 그들이 마음속에 품게 된 두려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다. 괜찮고 말고.”라고 흔들림 없이 대답하며, 복음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함께 저희의 개인적이고 진솔한 느낌, 그리고 인생에서의 경험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두려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 나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두운 밤에 닳친 “광풍[과] ... 물결”이 두려웠습니다.¹ 오늘날 그분의 제자인 우리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독신 성인들은 결혼과 같은 결심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제 딸 부부와 같은 신혼의 부부들은 점점 더 사악해지는 세상으로 자녀들을 데려오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많은 것을 두려워하는데, 특히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미망인들은 홀로 살아갈 것이 두렵습니다. 십 대들은 외톨이가 되는 것이 두렵고,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첫날이, 대학생들은 시험의 결과가 두렵습니다. 우리는 실패와 거부, 실망, 그리고 미지의 것들이 두렵습니다. 이 땅과 우리 삶을 황폐하게 하는 허리케인과 지진, 화재가 두렵습니다. 선택받지 못하는 것도 두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택받는 것도 두렵습니다. 내가 충분히 선하지 못할까 두렵고,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예비하지 않으셨을까 두렵습니다. 변화가 두렵고, 이런 두려움이 커지면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대로부터,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각과 관점을 제한했습니다. 저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늘 좋아했습니다. 아람 왕은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도록 군대를 보냈습니다.² 선지자 엘리사를 붙잡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³

사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⁴

그러나 엘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⁵

두려움을 물리치고 악마를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불병거가 보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훈은 단순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를 염려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에 생각을 집중하는 데 필요한 힘과 계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때로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저도 두려워한 적이 있고, 여러분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권고로 가득합니다.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⁶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⁷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⁸ 저는 “적은 무리”라는 다정한 표현이 좋습니다. 세상이 어떤 영향력을 가늠하는 방식으로 볼 때, 이 교회에 속한 우리는 그 수가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다면,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을 것입니다.⁹ 그런 뒤, 사랑하는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하게 하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진대,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라.”¹⁰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 있을까요? 어린 사환의 경우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바로 곁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약속을 받았습시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권고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¹¹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고자¹² 소망하면,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필멸의 삶을 더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¹³

주님은 땅을 뒤덮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재앙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제자들은 거룩한 곳에 서서 율기우지 아니하리라.”¹⁴



그런 뒤 다음과 같은 신성한 권고를 전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이 될 때 너희와 맺은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너희가 알 것임이니라.”¹⁵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우리의 두려움과 연관 지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우리는 의로운 가정이나 헌납된 예배당 및 성스러운 성전과 같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질문의 답을 찾게 되거나 그러한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작용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의 이 성스러운 장소들에서 경건하고, 서로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그분의 치유 권능을 얻고자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장소들과 그분 자녀들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무력화시키며, 그분의 사랑은 거룩한 곳에 깃듭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맺은 약속을 확신하지 못할 때, 영생으로 가는 그분의 길에서 벗어날 때, 그분의 성스러운 계획에서 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의문이나 의구심이 들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의 동료인 낙담과 분노, 절망, 실망에도 문을 열어 주고 말 때, 영은 우리를 떠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 보신 분은 이런 상황이 그리 편안하고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럴 때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¹⁶

둘째, “근심하지 [마십시오.]”¹⁷ 지상에 아무리 사악함과 혼돈이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함으로써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받습니다.¹⁸ 또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능과 영광 중에 오실 때 악과 모반, 불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오래전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우리 세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

...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¹⁹

기억하십시오. 휘장 이편과 저편에서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과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습니다.²⁰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과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에 종사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두려워하거나 그로 인해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세상의 영향과 압박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에서 영성을 추구하실 것을 간청합니다. 주님의 계명과 그분의 거룩한 집, 그분과 맺은 성스러운 성약과 매주 안식일의 성찬, 기도를 통한 소통 등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그분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성스러운 모임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있는 것이 분명하듯이,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주님은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무릇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한 자는—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썩혀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 날을 견디리라.”²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의 혼란과 크고 넓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정직한 노력과 헌신적인 봉사를 비웃는 사람들로 인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이나 혼란이 없을 때 낙관과 용기는 물론 자비도 생깁니다.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신 벨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공격하는 무수한 의견과 인간의 철학 속에서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을 걸러 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시를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²²

개인적인 계시를 받으려면, 복음대로 생활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와 타인의 신앙과 영성을 드높여야 합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은 제 어린

시절의 선지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후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그분이 1943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전하신 첫 번째 말씀에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받은 부름에 압도되어 계셨습니다. 저도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압니다. 당시의 김볼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으며, 금식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넌 그 일을 할 수 없어. 넌 합당하지 않아. 네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 하지만 결국에는 어김없이 자신감을 복돋아 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지명받은 임무를 수행해야 해. 그렇게 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해.’ 이 격렬한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²³

저는 이 위대한 교회의 열두 번째 회장이 되신 김볼 사도님의 솔직 담백한 간증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분은 “지명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하고, “그렇게 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의지해야 함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싸움은 격렬해지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두려움과 맞설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지지하고 그분의 원리와 영원한 계획을 옹호할 때, 거룩한 땅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 해 전에 두려움을 느끼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답을 찾고자 질문을 던졌던 제 딸과 사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저희와 나눈 대화를 진지하게 숙고했으며, 기도와 금식을 통해 자신들만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은 신앙과 사랑으로 생활하며 일곱 자녀를 얻는 축복을 받았으며, 이는 딸 내외만이 아니라 조부모인 저희 부부에게도 행복이자 기쁨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 위험천만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약의 길 위에 남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시대나 여러분이 가는 길에 닥친 문제로 인해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여러분에게 축복을 남깁니다.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으시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마가복음 4:37.
 2. 열왕기하 6:14.
 3. 열왕기하 6:15.
 4. 열왕기하 6:16.
 5. 열왕기하 6:17.
 6. 교리와 성약 68:6.
 7. 교리와 성약 6:36.
 8. 교리와 성약 6:34.
 9. 열왕기하 6:16.
 10. 교리와 성약 6:34.
 11. 교리와 성약 76:22.
 12. 교리와 성약 20:77.
 13. 러셀 엠 벨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6쪽.
 14. 교리와 성약 45:32.
 15. 교리와 성약 45:35.
 16. 모로나이서 8:16.
 17. 교리와 성약 45:35.
 18. 빌립보서 4:7.
 19. 디모데후서 3:1~2, 4.
 20. 열왕기하 6:16.
 21. 교리와 성약 45:57.
 22. 러셀 엠 벨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96쪽.
 23. Spencer W. Kimball, in Conference Report, Oct. 1943, 16-17.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함께 모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함

우리를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구주의 복음이 지닌 힘은 복음의 교리와 원리와 실천 사항 사이의 연관 관계를 식별하고 적용하는 데서 옵니다.

बाट 줄은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बाट**은 직물, 식물성 섬유, 철사 또는 기타 재료를 꼬아서 만든 하나하나의 가닥 여러 개를 모아서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더없이 평범한 재료가 함께 엮이면 놀랄 만큼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재료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결합하면 뛰어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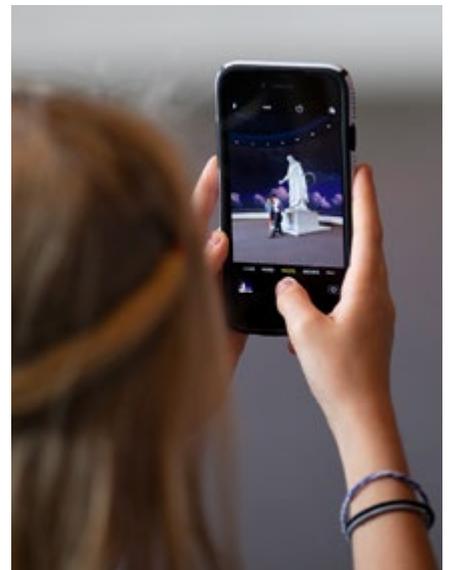
서로 엮힌 수많은 가닥들이 모여서 **बाट**의 힘이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함께 모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는 바울의 훈계에¹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를 바라보는 놀랍도록 위대한 관점과 가장 풍성한 축복을 줍니다. 중요한 점은, 진리를 모으는 이 필수적인 과업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과 초점을 둔다는 점입니다. 그분이 “길ियो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²

우리가 일상에서 그분의 회복된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서 **함께 모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이 원리의 현실적인 적용 방법을 생각할 때, 성신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계시가 주어지는 시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에 많은 계시가 주어지는 놀라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역사적인 변화에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목적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계획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모임 일정이 그저 단축만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개인과 가족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 가정과 교회에서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들 기회와 책임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 봄, 신권 정원회는 그저 조직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신권 정원회 조직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더 거룩하고 더 높은 차원의 방식으로 성역을 베푸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밭출의 꼬인 가닥들이 모여 강력하고도 견고한 도구를 만들어 내듯이, 서로 연관된 이 모든 움직임들은 구주의 회복된 교회의 초점과 자원과 사업을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 즉 하나님의 사업을 도와 그분의 자녀들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에 더욱 효율적으로 맞추고 조정하려는 통합된 노력의 일환입니다. 부디 발표된 내용의 실행 계획이나 절차적 측면에 주된 초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의 세부 사항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주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사명을 믿는 신앙이

지상에서 더욱 커져 하나님의 영원한 성약이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³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주님께 개종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욱 온전히 사랑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누고 구분 짓기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가끔 무엇을 공부하고 행해야 할지가 빠르게 적힌 점검표를 만들어서 일상에서 복음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구분 지으며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의 이해와 시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형식에 치중하는 점검표에 초점을 맞추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⁴, “[우리의]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닐 때⁵ 얻게 되는 목적과 죄 씻음, 행복과 기쁨, 지속적인 개종과 보호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하는 영적인 일들을 모두 실행에 옮기고 점검표에 표시했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구주의 복음이 지닌 힘은 복음의 교리와 원리와 실천 사항 사이의 연관 관계를 식별하고 적용하는 데서 옵니다. 오직 우리가 굳건하게 그분께 초점을 맞추어 함께 모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할 때, 복음 진리들은 서로 맞물려 상호 작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되게 해 주고⁶ 끝까지 용감하게 견딜 수 있게 해 줍니다.⁷

복음 진리의 학습과 접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서로 연결”하여⁸ 짠 멋진 진리의 용단입니다. 계시된 복음 진리들을 배우고 함께 연결할 때, 우리는 삶에서 주님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해 귀중한 관점과 더욱 큰 영적 능력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⁹ 또한 함께 모아 하나로, 즉 그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원리를 따름으로써 전통적인 점검표에서 탈피하여 통일되고 통합된 완전한 전체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바에 관해 교리와 교회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 1. 신앙개조 제4조는 함께 모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함을 보여 주는 훌륭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셋째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넷째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임을 믿[습니다.]”¹⁰

참된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즉 그분이 아버지께 신성하신 독생자이심을 믿는 것과 그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사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저 그는 율법의 목적에 부응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시며, 그를 믿는 자들은 모든 선한 것을 굳게 붙들 것인즉,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자녀들을 위하여 변호하[십니다.]”¹¹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주를 신뢰하면 그 결과로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악에서 멀어집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께로 향하고 나아가며 그분께 의지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 주시는 구속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¹²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만¹³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으며¹⁴

결국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 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의식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알거니와 만일 너희가 아들을 따르되, 마음의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나 거짓을 행함이 없이, 진정한 의도로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며, 너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려 함을 침례로써—참으로 그의 말씀대로, 너희 주 곧 너희 구주를 좇아 물에 들어감으로써 아버지께 증거할진대, 보라,

그리할진대 너희가 성신을 받을 것이라.”¹⁵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분께로 힘써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니파이는 말했습니다. “또 이제 … 이로써 내가 아노니 사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본을 따르며 끝까지 견디지 아니할진대 구원받을 수 없도다.”¹⁶

신앙개조 제4조는 회복된 복음의 기본 원리와 의식을 확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감받은 믿음의 성명서는 모든 것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합니다. 즉,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께 의지하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참으로 그분께로 힘써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시 2. 저는 이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사업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통일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례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에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세계 곳곳에서 시운을 세우고 강화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성도들에게 자국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모으고 그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침으로써 강한 스테이크를 세우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또한 성정이 더 많이 세워지리라고 명시하셨고, 성도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축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¹⁷

스테이크의 수가 늘어나면서, 회원들의 가정은 더더욱 “가족이 머물고 싶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서로 사랑, 도움, 감사,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만 했습니다.¹⁸ 그 결과, 1980년에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개인 및 가족의 책임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 일요일 모임이 세 시간 모임으로 통합되었습니다.¹⁹ 가족과





가정에 중점을 두려는 이러한 노력은 1995년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소개하신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²⁰

1998년 4월에 힝클리 회장님은 소규모 성전을 더 많이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전 세계 후기 성도 개인과 가족들이 주님의 집에서 베푸는 성스러운 의식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셨습니다.²¹ 교회가 2001년에 영구 교육 기금을 도입하여 현세적 자립이 증가하면서 그와 연관된 이러한 영적 성장과 발전의 기회들이 더욱 보완되었습니다.²²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임기 동안 성도들에게 “구조하”러 나설 것을 거듭 권고하셨고, 주님이 정하신 교회의 책임 중 하나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세적 준비를 계속 강조하면서, 2012년에는 자립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교회는 안식일을 가정과 교회에서 즐거운 날로 만드는 것에 관한 필수 원리를 강조하고 강화했습니다.²³ 이렇게 하여 우리는 이번 연차 대회에서 발표된 일요일 모임 일정 조정을 위해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가 강화되었으며 보조조직들과 더욱 효과적으로 하나가 되어 일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더 거룩하며 더 높은 차원의 방법으로 성역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행해진 이러한 움직임들의 순서와 시기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것이 독자적이고 개별적으로 나열된 일들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되고 종합적인 사업임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활동, 프로그램, 가르침, 의식을 통해 개인과 가족을 위한 영적 발전의 모형을 제시하셨습니다. 교회 조직과 프로그램은 개인과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²⁴

저는 주님의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위대한 전 세계적인 사업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시하실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간증드립니다.²⁵

약속과 간증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각각의 재료들이 가닥가닥 꼬여서 밧줄이 될 때 생겨나는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분 안에서 함께 모아 다 통일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서 더욱 발전된 관점과 더 큰 목적과 힘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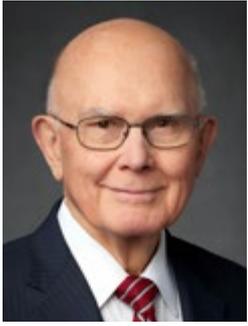
우리의 영원한 복리를 위해 중요한 모든 기회와 축복들의 원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그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의미 있게 되며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알마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 달리 없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해서일 뿐[이라.] … 보라, 그는 세상의 생명이요 빛이시니라.”²⁶

저는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들이 살아 계심을 기쁘게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구주 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얻습니다.²⁷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에베소서 1:10 참조.
2. 요한복음 14:6.
3. 교리와 성약 1:21~22 참조.
4. 힐라맨서 3:35.
5. 알마서 5:14.
6. 마태복음 5:48; 제3니파이 12:48 참조.
7. 교리와 성약 121:29 참조.
8. 에베소서 2:21.
9. 교리와 성약 136:32 참조.
10. 신앙개조 제4조.
11. 모로나이서 7:28.
12. 니파이후서 31:19.
13. 니파이후서 2:8.
14. 고린도후서 5:17 참조.
15. 니파이후서 31:13; 강조제 추가.
16. 니파이후서 31:16.
17. See Spencer W. Kimball, “The Fruit of Our Welfare Services Labors,” *Ensign*, Nov. 1978, 76.
18. 스테이크 회장단 및 감독단을 위한 지침: “Church Consolidates Meeting Schedules,” *Ensign*, Mar. 1980, 73.
19. 지침: “Church Consolidates Meeting Schedules,” 73.
20.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참조.
21. 고든 비 힝클리, “복음의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 줄 새로운 성전들”,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88쪽 참조.
22. 고든 비 힝클리, “영구 교육 기금”,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0~62, 67쪽 참조.
23. 리셀 엠 벨슨,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29~132쪽 참조.
24.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1.4. 강조 추가.
25. 신앙개조 제9조 참조.
26. 알마서 38:9.
27. 교리와 성약 59:23.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진리와 계획

종교에 관한 진리를 찾을 때는 그러한 탐구에 걸맞은 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 대의 계시는 진리를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93:24) 이는 구원의 계획과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정보가 무한¹히 확장하고 전파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정보가 참된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찾고 진리 탐색을 위한 자료를 선택할 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명성이나 권위가 검증된 진리의 출처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저명한 운동선수 또는 익명의 인터넷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나 조언에 기댈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다른 주제에 관한 진리에도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동기에 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경전에서 사제술에 대해 경고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니파이후서 26:29 참조) 출처가 익명이거나 불분명하다면 그 정보 또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에는 주제에 관해 검증되고 이기적인 동기가 없는 출처에서 나온 정보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I. 종교에 관한 진리를 찾을 때는 그러한 탐구에 걸맞은 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그런 방법에는 기도와 성신의 증거, 그리고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가르침 때문에 종교적인 신앙을 잃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늘 마음이 아픕니다. 한때 영적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초해서 영적 실명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볼 수 없는 것에 있습니다.”¹

과학적인 방법은 우리가 과학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이 “과학적 진리”가 삶의 전체는 아닙니다.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과학적인 수단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에만 국한합니다.(교리와 성약 88:118) 그렇게 하면 진리의 추구에 인위적인 한계를 정하게 됩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받은] 사람들도 [부주의하게] 세속적인 학문의 근원만을 추구한다면 영원한 영혼이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며, 그 복음이 진리와 영원한 깨달음의 중심임을 믿고 있습니다.”²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죽은 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에 관한 진리를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참되고 영속적인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 진리는 과학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습니다.

II.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교리적 기초를 이루는 회복된 복음 진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리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리와 관례에 관한 많은 부분이 복음 진리로 설명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그분은 지금까지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영의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성별은 영원합니다. 이 지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면전에서 남성 혹은 여성의 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 태버나클 합창단이 부르는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를 들었습니다.³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영의 자녀들이 영원히 진보할 수 있도록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영의 자녀들이 필멸의 상태로 태어날 수 있는 장소로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육체를 받고 의로운 선택을 통해 영원히 진보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필멸의 선택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선과 악의 반대되는 힘 사이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했기에 반항하여 쫓겨난 대적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 계획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 계획의 목적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현재에서의 경험과 죽은 이후 영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사후의 성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모두 대적이 악한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 죄로 더럽혀지고 결국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구주로 마련해 주실 것이며, 그 구주께서 당신의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이 사후에 다시 육신을 입도록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러한 도전들을 받아 들였습니다. 또한 구주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조건에 따르면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대가를 치르기 위해 속죄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조건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및 신권 권세로 집행되는 다른 의식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은 영원한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비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가져다줍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의 속죄로 인해 “온 인류가 [그의]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신앙개조 1:3; 강조체 추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가정을 중시하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점은 가정을 중시하는 우리의 태도가 현재적 관계 너머까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원한 관계 또한 우리 신학의 핵심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⁴ 사랑하는 우리 창조주의 위대한 계획 아래, 그분의 회복된 교회가 지닌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의 왕국에서 송고한 승영의 축복들을 얻도록 돕는 것이며, 승영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영원한 결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31:1~3 참조) 우리는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재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정체성]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며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지지합니다.⁵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사랑으로, 고의로 멸망의 자식이 된 소수를 제외한 모든 자녀를 위해 영광의 운명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라는 말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모든 자들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성전에서 대리로 의식을 집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목적은 그분의 자녀들이 가장 높은 영광의 단계, 즉 승영 또는 영생을 받기에 합당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지 않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더 낮은 영광의 왕국을 별도로 예비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진리들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III.

이제 이 영원한 진리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개인의 선택의지를 존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회복된 이 교회가 미국과 온 세계의 종교적 자유를 복돋기 위해 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런 노력은 우리의 이득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그분의 모든 자녀가 선택의 자유를 누리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둘째, 우리는 선교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그렇게 많은 나라로, 심지어 기독교 국가에도 선교사들을 보내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또 왜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수백만 달러 어치의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는지, 왜 그것을 선교 사업과 연계하지 않는지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의 형제 자매로 바라보기 때문이며, 우리가 누리는 영적 및 세사적 풍요를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필멸의 삶은 신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려면 낙태와 안락사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어떤 사람들은 결혼과 자녀에 대한 교회의 일부 입장을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밝히신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전통적인 결혼에서 물러나거나 성별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변경하고, 남녀간의 차이를 없애는 쪽으로 변화시키려는 지금의 사회적이고 법적인 압력에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 관계와 정체성, 남녀의 기능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데 필수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또한 자녀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하나님 계획의 일부이며 그에 참여할 권능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기쁘고도 성스러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상과 하늘에서 최고의 보물은 자녀와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 곧 모든 자녀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는 원리와 관례를 가르치고 수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남성성과 여성성, 남녀 사이의 결혼,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모두 그분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필수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 때문에 종종 교회에 대한 반대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되는 것은 계획의 일부이며, 사탄의 가장 격렬한 반대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가 주로 쓰는 방법은 구주와 그분의 신성한 권세를 폄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영향력을 무력화하고, 회개를 좌절시키며, 계시를 위조하고, 개인의 책임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결혼을 왜곡하며, 특히 진리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될 부모들의 출산을 막으려 노력합니다.

IV.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 마주치게 되는, 조직화된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반대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에게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으로 회개의 원리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께서 권고하셨듯이 “자신이 변화하기보다 교회를 변화시키려 노력하려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⁶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고 더 많은 지식이 주어질 때까지 굳건하게 견디십시오. ...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⁷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도우려 영적 인도를 구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복음을 공부하도록 돕는 보조 자료들과 LDS.org에서 찾을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제 사랑으로 도움을 줄 형제 및 자매 성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창조의 목적인 기쁨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그 기쁨에 찬 운명이
영생이며, 이는 우리가 우리의 선지자이신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자주 “성약의
길”이라고 칭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회장으로서 처음 전한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약의 길을 계속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구주와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한다면, 어느 곳에서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특권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⁸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참됨을 엄숙히
간증하며, 그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 아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가르침으로 가능해졌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Henry B. Eyring, *To Draw Closer to God: A Collection of Discourses* (1997), 143.
2. 제임스 이 파우스트, “풍성한 삶”, *성도의 벗*, 1986년 1월호 10쪽.
3.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 *어린이 노래책*, 86~87쪽.
4.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5.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45쪽 참조.
6. Neal A. Maxwell, *If Thou Endure It Well* (1996), 101.
7. 제프리 알 홀런드, “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4쪽; 원문 강조체.
8. 러셀 엠 넬슨,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리아호나*, 2018년, 4월호, 7쪽.



발표: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우리는 가정에서 복음을 공부하도록 돕는 보조 자료들과 LDS.org에서 찾을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제 사랑으로 도움을 줄 형제 및 자매 성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창조의 목적인 기쁨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그 기쁨에 찬 운명이 영생이며, 이는 우리가 우리의 선지자이신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자주 “성약의 길”이라고 칭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회장으로서는 처음 전한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약의 길을 계속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구주와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한다면, 어느 곳에서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특권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⁸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참됨을 엄숙히 간증하며, 그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 아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가르침으로 가능해졌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Henry B. Eyring, *To Draw Closer to God: A Collection of Discourses* (1997), 143.
2. 제임스 이 파우스트, “풍성한 삶”, *성도의 벗*, 1986년 1월호 10쪽.
3.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 *어린이 노래책*, 86-87쪽.
4.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5.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45쪽 참조.
6. Neal A. Maxwell, *If Thou Endure It Well* (1996), 101.
7. 제프리 알 홀런드, “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4쪽; 원문 강조체.
8. 러셀 엠 넬슨,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리아호나*, 2018년, 4월호, 7쪽.

교회 역원 지지

형 제 자매 여러분, 이제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문졌습니다.

러셀 매리언 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델린 해리스 옥스를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델린 해리스 옥스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엠 러셀 벨라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런드,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리 이스티븐슨, 데일 지 랜런드, 게릿 더블유 공, 그리고 울리세스 소아레스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회장단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전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은 브룩 피 헤일즈를 그 직에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명하는 분들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며 칠십인 총관리 역원에서 해임하고 명예 회원으로 추대할 것을 제의합니다.

머빈 비 아놀드, 크레이그 에이 카든, 래리 제이 에코호크, 시 스코트 그로우, 앨런 에프

패커, 그레고리 에이 슈바이처, 클라우디오 디 지빅.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 호명하는 분들을 지역 칠십인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비 서지오 앤툰스, 앨런 시 브렛, 알 랜달 블루스, 한스 티 붐, 페르난도 디 칼데론, 에이치 마르셀로 카터스, 폴 알 카워드, 매리온 비 데 안투나노, 로버트 에이 드라이든, 대니얼 에프 두니건, 제프리 디 에릭슨, 머빈 시 기디, 조하오 로버트 그랄, 리차드 케이 헨슨, 토드 비 헨슨, 마이클 알 쟈슨, 대니얼 더블유 존스, 스티븐 오 라인, 아크젤 에이치 라이머, 타사라 마카시, 앨빈 에프 메레디스 3세, 아도나이 에스 오밴도, 카츠유키 오타하라, 프레드 에이 패커, 호세 시 피네다, 게리 에스 프라이스, 이구엘 에이 레예스, 알프레도 엘 살라스, 네자후알코요틀 살리나스, 마이클 엘 사우스워드, 지 로렌스 스팍맨, 윌리엄 에이치 스타터드, 스티븐 이 톰슨, 데이비드 제이 톰슨, 조지 제이 토비야스, 재퀴에스 에이 반 리넨, 라울 에드가르도 에이 빈센초, 키스 피 워커, 대니얼 이렌나 타위아.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와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현재 구성된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를 표하신 분들은 소속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을 보여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과 영혼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호와와 맺은 성약을 지키고 그분을 예배한 시기와 그들이 그 성약을 무시하고 우상 또는 바알을 숭배한 다른 시기가 잇따라 등장합니다.¹

아합이 통치하던 때는 이스라엘 북왕국에서 배도가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한번은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나 제사들까지 갈멜산으로 모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이 한자리에 모이자,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즉, ‘너희는 언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² 이에 백성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에게 송아지를 한 마리씩 잡아서 각자의 제단에 쌓은 나무 위에 놓되 “불은 불이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³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 하나님이니라.” 그러자 백성들은 입을 모아, “그 말이 옳도다.”라고 답했습니다.⁴

아시다시피, 바알의 제사들은 존재하지 않는 그들의 신을 부르며 여러 시간 동안 불을 내려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⁵ 엘리야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무너져 버린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그 위에 나무와 제물을 놓았습니다. 그런 후, 그 위에 물을 붓되 한 번이 아닌 세 번을 흠뻑 부으라고 명했습니다. 엘리야는 물론 다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불을 붙일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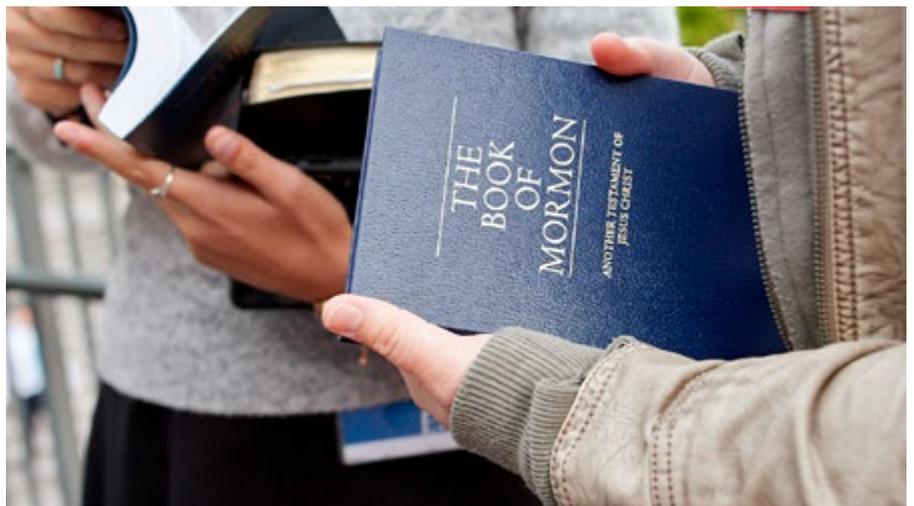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

이에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활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⁶

오늘날이라면 엘리야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1. 우리의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은 존재하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2.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부활하신 인류의 구속주이거나, 또는 구속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구속주라면, 그분을 따르십시오.
3. 물론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책의 교훈대로 [공부하고] 생활[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오.⁷

4. 조셉 스미스는 1820년의 그 봄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보고 대화했거나, 또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화했다면, 엘리야가 그에게 부여했던 인봉의 열쇠를 포함하여 그가 지녔던 선지자의 권세를 따르십시오.

가장 최근에 열렸던 연차 대회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참된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모로나이서 10:5 참조] 누구를 정말 신뢰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여러분은 물론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이며,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만의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참된 것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증거와 간증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⁸

아고보는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리라고 약속하며⁹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¹⁰

반면에, 우리 구주께서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본보기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¹¹ 경전에서 구주처럼 굳건하며 흔들리지 않는 남성과 여성을



묘사한 다음 성구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참된 신앙에서 떠나려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굳건하고, 확고부동하며, 부지런함을 다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기 원하였음이라.”¹²

“그들은 젊고 그들의 마음은 굳건하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도다.”¹³

“또 보라, 너희가 목격하였으므로 너희 스스로 알고 있거니와, 그들 중 진리의 지식에 이른 자들은] … 신앙과 그들을 자유롭게 한 것 안에서 굳건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¹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¹⁵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굳건하며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즉, 복음이 한 사람의 삶에 미치는 많은 영향력 중 하나가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성품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¹⁶

이것은 우리가 침례와 성전 의식을 통해 맺은 성약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¹⁷ 그들은 아직 복음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리와 계명을 선택적으로 따르고, 언제 어떤 교회 부름에 봉사할지도 선택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약에 따라



택함 받은 자”들은 자신의 성약을 정확하게 지킴으로써 속임수를 피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굳건히 남아 있습니다.¹⁸

지금 이 순간 우리 대다수는 사회적인 동기에 의해 복음 의식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양극단 사이 어느 지점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 영혼을 차지합니다. 그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모두 그 축복된 상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상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고난의 풀무에서” 정련되는 경험을 하기 마련입니다.¹⁹ 그럴 때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고난을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낙담과 절망, 심지어는 비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통은 위안이, 혼란은 평화가, 슬픔은 희망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굳건히 남는다면, 그분께서는 은혜와 지지로 우리를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²⁰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분은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며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게 하실 것입니다.²¹

이에 관해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세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신을 쇠약하게 하는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치료와 신권 축복, 금식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병은 차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도의 권능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그녀의 신앙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매일 (때로는 매시간) 교회 부름으로 봉사하고, 최대한 자주 미소를 지으며 남편과 함께 어린 자녀들을 돌봅니다. 자신의 고통으로 단련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깊이 연민하며, 자주 자신을 잊고 타인에게 성역을 베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며,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장하여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후 사랑스러운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친형제 몇몇이 교회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비판하기 시작하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교회를 떠난 형제들은 그도 교회를 떠나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글이며 팟캐스트, 동영상 등으로 그에게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런 자료는 대부분 한때 교회 회원이었으나 교회에

반감을 품게 된 이들이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그의 신앙을 조롱하며, 그가 잘 속는 사람이라 그릇된 길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주장에 다 반박하지 못했고, 맹렬한 반대를 받으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그만 다녀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성신을 느끼고 진리에 대해 영의 증거를 받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내가 나에게 솔직하다면, 영이 여러 번 내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과 그 영의 증거가 사실임을 인정해야 해.” 그는 새삼 행복과 평안을 느꼈고, 그 느낌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했습니다.

평생 흔들림 없이 총관리 역원의 권고를 기쁘게 따랐던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갖는 일로 어려움을 겪으며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유능한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느라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끝에, 얼마 후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채 되지 않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고로

아이가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반혼수 상태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최고의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들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토록 열심히 애쓰고 기도하여 세상에 데려온 아기를 빼앗긴 상황에서, 부부는 과연 그 아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다른 책임들을 수행하면서 아이에게 중요한 필요 사항들을 돌보느라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어려운 순간에 그들은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연민 가득한 여러 친구와 가족에게 도움을 받고 신권 축복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서로 더 가까워졌으며,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깊고 더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1837년 7월 23일, 주님께서서는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었던 토머스 비마쉬에게 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이사도에 속한 네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날카롭게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 훈계 받게 하고 내 앞에서 내 이름에 충실하라.

그리고 그들의 유혹과 많은 환난 후에 보라, 나 주는 그들을 살펴보니, 만일 그들이 내게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목을 뻗뻗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돌이키게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을 낫게 하리라.”²²

저는 이 성구에 나타난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는 유혹과 환난,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내리시는 모든 시험은 우리를 완전한 개종과 치유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오직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그분께 맞서 우리의 목을 뻗뻗하게 하지 않을 때만 일어납니다. 끝까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전하신 다음 말씀에서 의도하셨던 개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온전히 개종하도록 그]를 굳게 하라.”²³ 주님께서서는 죄로 상처받은 영혼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시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들의 조언을 기억합니다. “채소를 먹으렴, 몸에 좋단다.” 어머니들은 옳습니다. 이를 신앙 안에서 굳건히 남는 것에 대입해 보면, “채소를 먹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매일 경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며, 매주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²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좋은 것들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을 기억하십시오.²⁵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받으며, 그의 사랑을 흠족히 취하며, 즐거워[하십시오.] 이는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하면 영원토록 그리하여도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²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경전 안내서, “바알” 참조.
2. 열왕기상 18:21 참조.

3. 열왕기상 18:23.
4. 열왕기상 18:24.
5. 열왕기상 18:29.
6. 열왕기상 18:36, 38~39.
7. 물문경 소개.
8.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5쪽.
9. 야고보서 1:5 참조.
10. 야고보서 1:6~8.
11. 요한복음 8:29; 강조체 추가.
12. 제3니파이 6:14; 또한 엘마서 27:27 참조.
13. 엘마서 57:27.
14. 힐라맨서 15:7~8.
15. 사도행전 2:42.
16. 에스겔 36:26~28; 또한 고린도후서 3:3 참조.
17. 로마서 6:4.
18. 조셉 스미스—마태 1:22~23 참조; 또한 마태복음 24:24~25 참조.
19. 니파이전서 20:10; 또한 이사야 48:10 참조.
20. 물문경 번역본이 일부 분실된 후, 주님께서서는 22세의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하였음이니라. ... 그가 자기 팔을 펴서, 대적의 모든 불화살을 막도록 너를 떠받쳐 주고 고난의 때마다 너와 함께 해 주었으리라.”(교리와 성약 3:7~8) 엘마는 개종 후에 이렇게 간증했다. “또 나는 지금까지 온갖 시험과 곤경하에서와, 또한 온갖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입었나니, 참으로 하나님은 나를 옥에서와, 결박에서와, 사망에서 건지셨느니라. 또한 나는 이제도 그를 신뢰하노니, 그가 여전히 나를 건지시리라. 또 나는 그가 마지막 날에 나를 일으키사, 영광 중에 그와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을 아노라.”(엘마서 36:27~28)
21. 이사야 61:3.
22. 교리와 성약 112:12~13.
23. 누가복음 22:32.
24. 누가복음 9:23 참조. 러셀 엠 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일깨웠다. “더욱 정결하게 생활하고, 정확히 순종하며, 간절히 구하고, 매일 물문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하고[니파이후서 32:3 참조],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하늘의 문을 더 활짝 열 방법은 없습니다.”(“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5쪽)
25. 이노소서 1:3.
26. 야삼서 3:2.



딘 엠 데이비스 감독
감리 감독단 제1보좌

선지자의 음성

우리가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굳건히 할 때, 영원한 축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 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에 관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신권 직분의 회장의 의무는 온 교회를 감리하는 것이요, 모세와 같이 되는 것이라—

… 그러하도다 선견자, 계시자, 번역자, 선지자가 되어 교회의 머리 위에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가지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07:91-92; 강조체 추가)

저는 선지자들 위에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목격하는 축복을 누리 왔습니다. 제가 목격한 그런 성스러운 경험 중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의 부름을 받기 전에, 저는 성전 건립 부지를 찾고 추천하는 일을 보조했습니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은 국경의 출입국 통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회원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워싱턴 시애틀 성전으로 가기 위해 국경을 넘는 데 두세 시간을 더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회장이었던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밴쿠버에 성전이 있으면 교회 회원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부지 물색이 승인되자, 저희는 몇몇 교회 소유 부동산을 검토했고, 교회 소유가 아닌 밴쿠버 소재 부지들도 조사했습니다.

아름다운 부지를 한 곳 물색했는데, 그곳은 캐나다를 횡단하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종교용 부지였습니다. 접근도 쉽고 아름다운 캐나다산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지나가는 수천 명의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위치였습니다.

저희는 성전 부지 위원회 월례 모임에서 그 부지의 사진과 지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힝클리 회장은 거래 의향을 타진하고 필요한 추가 검토를 마무리하도록 승인하셨습니다. 그해 12월,



저희는 위원회에 검토 완료를 보고한 뒤, 매입 진행을 승인받고자 했습니다. 저희 보고를 들으신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탄절 이틀 후에, 저희는 힝클리 회장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 성전 건축가인 빌 윌리엄스와 함께 밴쿠버로 갔습니다. 우리는 현지 스테이크의 폴 크리스텐슨 회장님을 만나 그 부지로 이동했습니다. 약간 습하고 안개가 낀 날씨였지만, 힝클리 회장님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 부지 주변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부지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낸 후, 저는 힝클리 회장님께 고려 대상인 다른 부지들도 보러 가실지 여쭙었습니다. 회장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부지를 둘러봐야 각 부지의 장점들을 비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밴쿠버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크게 돌면서 다른 부동산들도 둘러본 후에 다시 처음 부지로 돌아왔습니다. 힝클리 회장은 “이곳은 아름다운 부지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400미터 정도 떨어진 교회 소유의 집회소에 가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물론이죠, 회장님.”하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가까운 집회소로 갔습니다. 교회에 다다랐을 때, 힝클리 회장은 “여기서 좌회전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시대로 좌회전하여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은 약간 오르막인 길로 이어졌습니다.

차가 오르막의 정상에 이르자, 힝클리 회장은 “차를 세우십시오.”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우측의 땅 한 구획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어떻습니까? 이곳이 성전이

세워져야 할 장소입니다. 이곳이 주님께서 성전이 세워지길 원하시는 장소입니다. 이 대지를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 부지를 살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요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매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모르겠다고 답하자, 핑클리 회장님은 그곳을 가리키며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성전이 세워져야 할 장소입니다.” 저희는 그곳에 잠시 머문 후에, 귀가하기 위해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날, 핑클리 회장님은 윌리엄 형제와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종이에도면을 그려 두셨습니다. 도로와 집회소, 좌회전 지점, 그리고 성전 건립 장소는 가위표로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저희에게 뭘 알아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그 부동산을 구매하기가 매우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유주가 캐나다인, 인도인, 중국인, 이렇게 세 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종교 지구로 설정되어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분은 “아무튼, 최선을 다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안 되어 저희는 그 부동산을 매입했고, 후에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랭글리시 당국이 성전 건축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으며 겸손해졌습니다. 윌리엄 형제와 제가 부동산 및 성전 설계 분야에서 정규 교육을 받고 수년간 실무 경험이 있었던 반면, 핑클리 회장님은 그런 정규 교육을 받지 않으셨으나 훨씬 더 훌륭한 것, 즉 선지자로서 선전의 은사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할 곳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경륜의 시대에 초기 성도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보여 줄 양식대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라.

그리고 만일 나의 백성이 내가 ... 보여 줄 양식대로 그 집을 짓지 아니하면, 나는 그들 손에서 그 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115:14~15)

그 말씀은 초기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인도할 방식을 교회 회장에게 계시하셨으며, 지금도 계속 계시하십니다. 또한,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행동이 당신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주십니다.

2013년 4월에 저는 각 성전이 폭풍과 재난을 견뎌 낼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준비 작업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기초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전은 수많은 건축 구성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리 설계된 양식에 따라 함께 짜 맞춰집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성전이고 우리 각자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것을 짓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라면(고린도전서 3:16~17 참조),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아름답고 위풍당당하게 잘 견디려면, 어떤 구성 요소로 쌓아 올려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물문경에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물문경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물문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물문경 소개) 물문경의 소개에서, 우리는 “[물문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 성스러운 증거를 얻는 사람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조셉 스미스는 이 마지막 날에 그분의 계시자요 [회복의] 선지자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준비로써 다시 한 번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왕국이라는 사실도 같은 권능으로 알게 될 것”을 배웁니다.

다음은 개인의 신앙과 간증을 이루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시다.
2. 물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3.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4.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이며, 우리에게는 오늘날 지상에 살아 계신 선지자들이 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저는 벨슨 회장님이 사도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연차 대회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34년간 벨슨 회장님이 전하신 지혜를 연구하며 숙고하다 보니, 그분의 가르침에는 명확하고 일관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주제는 모두 앞서 언급한 구성 요소와 연결되거나 우리 개인의 성전을 위한 또 다른 주요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 주제 목록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죄 사함을 위한 침례, 성신의 은사, 죽은 자의 구속 및 성전 사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기, 성약의 길에 머물기 등이 포함됩니다. 벨슨 회장님은 이 모든 주제를 사랑과 헌신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이자 구성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벨슨 회장님은 그분의 선지자입니다. 벨슨 회장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품성을 증거하고 밝힙니다. 벨슨 회장님은 구주의 본성과 사명을 잘 알고 계시기에 애정을 담아 그런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자신이 함께 봉사했던 교회 회장들, 곧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신성한 부름에 대해 자주 열성적으로 간증하셨습니다.

그분을 오늘날 지상에 살아 계신 주님의 선지자로 지지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받아들이고 돕겠다는 표시로 팔을 직각으로 드는 신성한 행위를 통해 그들을 지지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몇 분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지는 그와 같이 손을 드는 행위 이상입니다. 교리와 성약 107편 22절에 언급되었듯이, 제일회장단은 “교회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됩니다.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을 지니고, 주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는 패턴을 발전시킬 때, 우리는 온전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지지하게 됩니다.

저는 러셀 엠 벨슨 회장님을 생각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구주의 말씀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만일 나의 백성이 내 음성과 내 백성을 인도하도록 내가 임명한 나의 종들의 음성을 들으면,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옮겨지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124:45)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음성을 귀 기울여 경청한다면 우리의 삶은 깊은 영향을 받게 되고, 심지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강해지며, 주님 안에서 더 큰 확신과 자신감을 얻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러셀 엠 벨슨 회장님을 비롯하여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부름받은 분들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벨슨 회장님의 머리 위에 은사들을 부어 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굳건히 할 때, 영원한 축복을 거두게 되리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음 권유를 받습니다.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참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와 생명을 얻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주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할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며 더 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고국인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포르투갈어로 인사드립니다. “Boa tarde!(보아 타드)”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인도하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훌륭한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이 후기에 지상에 있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훌륭한 기회에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제 조국인 브라질은 천연자원이 풍부합니다. 그중에는 유명한 아마존강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긴 강 중의 하나입니다. 아마존강은 솔리몽에스강과 네그루강이라는 두 지류가 합류하여 형성됩니다. 흥미롭게도 두 강은 완전히 섞이기까지 수 킬로미터를 나란히 흐르는데, 이는 두 강의 수원과 유속, 수온 및 화학 성분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 킬로미터를 그렇게 흐르다가 마침내 섞이게 되면 원래와는 매우 다른 강이 됩니다. 두 강이 섞인 이후에야 비로소 아마존강은 아주 강력해져서 대서양에 이르렀을 때는

그 민물이 바닷물을 수 킬로미터까지 밀어냅니다.

솔리몽에스강과 네그루강이 만나서 거대한 아마존강을 형성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각기 다른 사회적 배경, 전통, 문화를 지닌 하나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함께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는 훌륭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대서양에 이르렀을 때는 아주 강력해져서 그 민물이 바닷물을 수 킬로미터까지 밀어내는 아마존강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 되어 선의 물결에 몸을 싣고, 진리를 갈구하는 세상에 복음의 “생수”를 공급할 수 있다.

사랑하면서 마침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강력한 세력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 되어 선의 물결에 몸을 싣고, 진리를 갈구하는 세상에 복음의 “생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가 형성됨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에게 서로 지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을 따르는 목적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신약 시대에 사도였던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¹

침례식에서 구주를 따르겠다는 약속을 맺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겠다는 뜻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증거합니다.² 우리 삶에서 그분의 신성한 속성을 얻고자 애쓰다면, 우리는 주 그리스도의 속죄에 힘입어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지며,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³ 모든 사람의 복지와

행복에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서로를 신성한 기원, 속성 및 잠재력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이자 우리의 형제 자매로 보게 됩니다. 서로를 아끼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자 합니다.⁴

바울은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⁵ 물몬경의 선지자 물몬은 이를 가장 숭고하고 고결하며 강력한 형태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⁶ 최근에 우리 시대의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더 집중적이고도 거룩한 방식입니다.⁷

구주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 원리를 최근의 개종자들과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이들을 격려하고 돕고 지지하는 맥락에서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벗어나 이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새로운 친구들은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통해 거듭나게 됩니다.⁸ 그들은 자신이 잘 알던 세상을 뒤로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고는 거대한 아마존과도 같은 새로운 “강”, 즉 하나님의 면전을 향해 흐르는 선과 의로움의 용감한 세력에 합류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⁹ 이들은 익숙하지 않은 이 새로운 강에 합류하면서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발원지, 수온, 화학 성분을 지닌 채 고유의 전통, 문화, 어휘가 존재하는 강에 섞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벽차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가정의 밤”,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 “금식 주일”,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물몬경 합본” 등과 같은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곳에 어울리지 못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유를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위한 자리가 과연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교회는 나를 필요로 할까? 기꺼이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 줄 새로운 친구들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오면 제자의 길이라는 기나긴 여정에서 각기 다른 지점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친구들에게 따뜻한 우정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며,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리 삶에 동화되도록 돕고 사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들입니다.¹⁰ 우리는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아마존강이 지류에 좌우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선을 위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도 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 선한 기운을 교회에 불어넣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어서 우리 자신의 간증을 다시 불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삶과 복음을 이해하는 신선한 관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친구들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환영받으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돕는 방법을 오랫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들이 평생토록 강하고 충실하게

남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 그들의 형제, 자매가 되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언제든 찾아갈 수 있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곁에서 함께 걸어 주며, 질문에 대답해 줄, 그런 참되고 충실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교회 활동과 모임에 참석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나 임무 또는 염려와 상관없이 늘 주의를 기울여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친구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환영받는다 느낄 수 있게 하는 단순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진심 어린 미소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곁에 앉아 함께 노래하고 예배를 보며, 그들을 다른 회원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성역의 영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께서 하신 방법으로 그들에게 성역을 베푼다면 그들은 “교회 내의 이방인”처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심 어린 관심을 통해 구주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친구들은 다른 이에게 봉사할 기회인 부름이 필요합니다.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특징짓는 가장 훌륭한 요소이며 신앙을 더욱 키워 주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은 모두 그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직후 그들에게 임무를 주는 직접적인 책임은 감독님과 와드 평의회에 있지만, 우리가 회원으로서 새로운 친구들에게 비공식적으로나 여러 봉사 활동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권유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셋째, 새로운 친구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¹¹ 우리는 그들과 함께 경전을 읽고 그 가르침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배경을 알려 주고 어려운 단어를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이 경전을 사랑하고 친숙하게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경전 공부를 통해 어떻게 개인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후기 성도 공동체라는 거대한 강에 온전히 스며들도록 돕기 위해 교회 정규 모임과 활동 시간 외에도 그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그들을 여러분의 집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자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변화와 어려움을 이해해 주면서, 우리는 그와 비슷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¹²

솔리몽에스강과 네그루강이 한 줄기로 섞일 때, 아마존강은 힘차고 강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친구들과 진정으로 하나가 될 때,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훨씬 강하고 견고해집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 로사나와 저는 오래전에 우리가 브라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새로운 강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훌륭한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저희에게 진심 어린 성역을 베풀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반구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새로운 친구들이 영생으로 향하는 이 새로운 선의 강물에 합류하여 어떻게 하면 계속 충실히 흘러가게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았던 모로나이는 물문경을 저술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 단계를 기술했습니다.¹³

“또 그들이 받아들여져 침례를 받고 성신의 권능으로 역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된 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백성 가운데 해아림을 받았고,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을 바른 길에 있도록 지키며 그들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며 그들의 신앙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하도록 하려 하여 그들의 이름을 취하였느니라.

또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의 복리에 관하여 서로 말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였느니라.”¹⁴

주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할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며 더 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더욱 포용하고, 받아들이며, 돕기 위해 바로 다음 일요일부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임무 때문에 교회 모임과 활동 모임에 참여하는 새로운 친구들을 환영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며 프로그램과 활동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순수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새로운 친구들에게 성역을 베푸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노력을 도우실 것임을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구주의 모범을 따라 충실한 성역자로 행할 때, 우리의 새로운 친구들은 끝까지 강하고 헌신적이며 충실하게 남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강력한 백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축복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일을 도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이제부터 ...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¹⁵ 저는 그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팔에 안겨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날까지 모든 선함의 근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에서 우리와 함께 흘러갈 것입니다.¹⁶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일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음과 같은 물문의 권고를 따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아,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¹⁷ 이 모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

주

1. 갈라디아서 3:27~28; 강조체 추가.
2. 교리와 성약 20:37 참조.
3. 모사이야서 3:19 참조.
4. 모사이야서 18:8 참조.
5. 고린도전서 13장 참조.
6. 모로나이서 7:47.
7.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성역을 행함”, 리야호나, 2018년 5월호, 68~75쪽 참조.
8. 모사이야서 27:25 참조.
9. 베드로전서 2:9.
10. 교리와 성약 18:10 참조.
11. 모로나이서 6:4; 또한 “나는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들과 함께 어떻게 일할 수 있는가?” *Preach My Gospel: A Guide to Missionary Service*, rev. ed. (2018), [lds.org/manual/missionary](https://www.lds.org/manual/missionary).
12. 니파이전서 7:12 참조.
13. 물문서 8:35 참조.
14. 모로나이서 6:4~5.
15. 예베소서 2:19..
16. 니파이후서 31:20; 강조체 추가.
17. 모로나이서 7:48.



게릿 더블유 공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 신앙의 모닥불

신앙을 추구하고, 받아들이며, 얻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때로는 서서히, 신앙이 동트고 다시금 밝아올 것임을 간증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러셀 엠 벨슨 회장님과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하늘로부터 계속되는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계시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새롭고도 더 거룩한 방식으로 생활하도록 이끕니다.¹

여러분은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을 해내려고 노력함으로써 축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몇 년 전,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제게 “게릿, 나와 함께

수채화를 그려 보지 않겠습니까?”라고 친절하게 권하셨습니다.

스코트 장로님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관찰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창의적인 시도를 해 보십시오. ... 창의력은 삶에 대해,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 주신 재능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 현명하게 선택하면, 창의적인 일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²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자신의 예술적 명상이 “사랑의 감정”에서 유발되며,

이는 “그의 자녀들이 자신과 같이 창조하고 만드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창조주의 사랑”도 포함한다고 설명하십니다.³ 아이어링 회장의 창조적인 작품들은 “간증과 신앙에 관한 독특하고도 영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⁴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의 미술 작품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복음 메시지를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지구 및 그 안에 있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자연은 신성한 인도를 받은 창조를 증거하며, 자연과 과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습니다.”⁵

엘마는 “만물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나타내나니”라고 간증했습니다.⁶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청아한 새소리 들을 때나 푸른 하늘 바라볼 때 ... 이 세상에 사는 것 기뻐져요 주는 세상을 창조했네.”⁷ 작가 빅토르 위고는 “태양에서 진땀물에 이르기까지 이 무궁무진한 우주에서 창조물 간의 놀라운 관계”를 찬양했습니다. “날아가는 새들은 저마다 발톱에 영원의 한 가닥을 쥐고 가나니. ... 성운은 별도로 이루어진 개미탑이라.”⁸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의 권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장로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코트 장로님, 저는 관찰력이 뛰어나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어오르는 구름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빛깔을 그리시는 모습을 상상하면 온 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저는 “하지만”이라고 말하고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코트 장로님, 저는 수채화를 그릴 줄 모릅니다. 저를 가르치려 하시다가 좌절하실까 봐 걱정됩니다.”

스코트 장로님은 미소를 지으시고는 저와 만날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약속한 날에 그분은 종이와 물감과 붓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밑그림을 그리신 후 제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종이를 적셔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리신 석양이 질 무렵의 모닥불이라는 수채화를 참고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신앙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닥불의 빛과 온기를 받을 때 어떻게 우리는 어둠과



석양이 질 무렵의 모닥불,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불확실성으로부터 멀어지는지, 이따금 찾아오는 길고 외로운 밤에 신앙이라는 모닥불이 어떻게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신앙이라는 모닥불,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친절하신 자비에 대한 기억과 경험과 신앙의 유산을 통해 우리는 밤을 이겨 낼 힘을 얻습니다.

신앙을 추구하고, 받아들이며, 연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때로는 서서히, 신앙이 동트고 다시금 밝아 올 것임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할 때,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성약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때, 그 빛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게릿, 딱 한 번만 배워도, 간직하고 또 기억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분 말씀이 옳았습니다. 저는 스코트 장로님께 도움을 받아 그린 신앙의 모닥불 수채화를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제 예술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닥불을 기억하는 것은 다섯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고양시켜 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의 모닥불은 우리가 건전한 창의성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해 줍니다.

가치 있는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배우며, 행하는 것은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신뢰가 깊어질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 잘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⁹

여러분은 생일 파티에 혼자만 초대받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팀을 짤 때 여러분이 제일 마지막으로 선택되거나 아예 선택을 받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학교 시험이나 직장 면접 또는 여러분이 정말로 원했던 어떤 기회를 위해 준비했는데



실패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대인관계를 위해 기도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가 관계가 어긋났던 적이 있습니까?

만성 질환을 앓거나, 배우자에게 버림받거나, 가족으로 인해 빈민한 적이 있습니까?

구주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지를 행사하고 신앙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능력을 사용할 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삶의 도전과 기쁨을 맞이하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신앙은 믿고자 하는 소망과 선택을 포함합니다. 신앙은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오며,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약의 길을 따를 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없거나, 외롭거나, 좌절하거나, 화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하나님과 그분의 회복된 교회에서 멀어졌다고 느꼈거나 느끼고 있다면 그분의 성약의 길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더 큰 노력과 신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십시오! 또는 다시 나아오십시오! 현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의 끈보다 더 강합니다.¹⁰ 구주의 속죄는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며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잠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간에,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받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¹¹

둘째, 우리 신앙의 모닥불은 우리가 새롭고, 영적으로 창조적이며, 영으로 충만한 더 높고 거룩한 방식으로 성역을 베풀 수 있게 합니다.

그와 같은 성역은 기적을 낳고, 하나님의 성약에 속함으로써 오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 성약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영으로 다른 이들에게 성역을 베풀기를 원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공 자매와 저는 한 아버지와 그 가족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어느 충실한 신권 형제로 인해 축복을 받았습니 다. 그 신권 형제는 감독님에게 가서 자신이 그 아버지의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가 되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활동 회원이 아니었으며 가정 복음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변화되면서, 그와 이 사랑이 많은 신권 형제는 “자식들이 맡은” 가족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방문을 한 차례 하고 오자, 당시 교회에 나가지 않던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나고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내가 뭔가 느꼈나 봐.”라고 인정한 뒤, 맥주를 가지러 주방으로 갔습니다.¹²



하지만 영적인 경험들, 성역 봉사, 마음의 변화, 성전 준비반, 교회 참석, 거룩한 성전에서의 가족 인봉과 같은 일들이 잇달아 일어났습니다. 그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신권 형제가 친구이자 성역 동반자로서 자신들의 아버지와 함께 다른 이들에게 성역과 사랑을 베풀어 줄 것에 얼마나 감사해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셋째, 신앙의 모닥불은 우리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주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자 할 때, 창조적인 복음의 기쁨과 축복을 얻도록 해 줍니다.

경전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우리 전부를 사랑과 봉사의 계단에 바칠 것을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구약전서의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명합니다.¹³ 여호수아는 이렇게 권유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¹⁴

신약전서에서 우리의 구주께서는 두 가지 큰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¹⁵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몬경에서 베냐민 왕은 “그의 육신의 모든 힘과 그의 온 영혼의 능력을 다해” 일하여 그 땅에 평화를 이루었습니다.¹⁶ 모든 선교사들이 알고 있듯이,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당신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¹⁷ 성도들이 책순군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길지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¹⁸

우리는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는 데 높고 거룩한 방법을 추구하는 일에 온 영혼을 바치라는 권유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넷째, 우리 신앙의 모닥불은 우리가 의로운 생활 방식을 규칙적으로 세움으로써 신앙과 영성을 강화하도록 해 줍니다.

이러한 거룩한 습관, 일상에서 행하는 의로운 일, 또는 독실한 생활 방식에는 기도, 경전 공부, 금식, 성찬식을 통해 우리의 구주와 성약을 기억하는 것, 선교사와 성전 및 가족 역사 그리고 기타 봉사를 통해 복음의

축복을 나누는 것, 개인 일지를 세심하게 기록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의로운 생활 방식과 영적인 갈망이 만날 때, 현세와 영원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규칙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영적인 빛과 생명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의식들을 사랑할 때, 영원한 것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십니다.¹⁹ 매일 순종하고 생명수를 마실 때, 우리는 일상의 도전과 기회들을 복음의 인내와 관점과 기쁨으로 맞이할 해답과 신앙과 힘을 얻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익숙하지만 가장 좋은 방식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과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준비할 새롭고도 더 거룩한 방법을 구할 때, 우리 신앙의 모닥불은 온전함이 자신이나 세상의 완벽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유는 사랑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²⁰ 그분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권하시며, 그분께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²¹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²²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라는 확언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잘못이 없는데도 일이 우리가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아니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조차도 계속 주님께 대한 신앙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위안과 평안과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시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이 부족하거나, 확신이 없거나, 합당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성역을 베풀려는 충실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이들 및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감을 새롭고도 더 거룩한 방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연민을 담아, 우리가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격려와 약속을 주십니다.²³ 그리스도의 교리와, 구주의 속죄와, 온 영혼을 다해 그분의 성약의 길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진리를 아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²⁴

저는 그분의 충만한 복음과 행복의 계획이 회복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거룩한 경전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로부터 오늘날의 러셀 엠 벨슨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간증합니다. 저는 그분의 성약의 길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 가장 큰 은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²⁵

우리가 신앙의 모퉁이 앞에서 그 온기로 우리의 마음과 소망과 결심을 강화할 때, 그분의 축복과 지속적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럽고 거룩한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벨슨, “성역”,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00쪽.
2. Richard G. Scott, *Finding Peace, Happiness, and Joy* (2007), 162–63; quoted in Elder Richard G. Scott Art Exhibit: *A Self-Guided Tour* (pamphlet, 2010).
3. *A Visual Journal: Artwork of Henry B. Eyring* (booklet, 2017), 2.
4. *A Visual Journal*, 28.
5. Boyd K. Packer, *The Earth Shall Teach Thee: The Lifework of an Amateur Artist* (2012), ix.
6. *앨마서* 30:44.
7.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 *어린이 노래책*, 16~17쪽.
8. Victor Hugo, *Les Misérables*, trans. Julie Rose (New York: Random House, 2008), 728.
9. *잠언* 3:5~6 참조.
10. *교리와 성약* 121:44 참조.
11. *누가복음* 15:20 참조.
12. 개인의 경험을 허락을 받아 사용함.
13. *신명기* 6:5.
14. *여호수아* 22:5.
15. *누가복음* 10:27.
16. *물론의 말씀* 1:18.
17. *교리와 성약* 4:2.
18. *교리와 성약* 59:5.
19. *교리와 성약* 121:45~46 참조.
20. *요한복음* 14:6.
21. *마태복음* 11:28.
22. *모로나이서* 10:32.
23. *니파이후서* 31:20.
24. *요한복음* 8:32 참조.
25. *니파이후서* 31:20.



폴 비 파이프 장로
칠십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을 받들어야 합니다

구주의 이름에는 특별하고도 본질적인 고유의 힘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몇 주 전에 저는 8살이 된 어린이들의 침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침례식 전에 이미 부모와 교사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씨앗이 그들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주님의 회복된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 그분의 모범을 따라 침례의 물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기대에 부푼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들이

침례 성약에서 중요한 부분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결심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중대성을 선포하셨습니다. 한 천사는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할지며,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지니라.”¹



물몬경의 선지자 베나민 왕은 백성에게 “구원이 이를 수 있는 다른 아무 이름이나 다른 어떠한 길이나 방법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가르쳤습니다.²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니,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³

우리 시대에도 댈린 에이치 옥스 회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 성약을 맺는 ...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단순히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하십니다. 구주의 이름에는 특별하고도 본질적인 고유의 힘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경륜의 시대에 이 진리를 강조하시어 당신의 모든 자녀가 당신께로 돌아올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귀환을 자동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요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이름을 받들어야만 하[느니라.]”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오는 구원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와서,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자”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여덟 살 난 제 어린 친구들과 같이, “침례로써 그의 교회에 받아들여”질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⁶

진심으로 구주의 이름을 받들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결정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증거로서 침례 의식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그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⁷ 그러나 침례는 시작일 뿐입니다.

“받들다”라는 말은 수동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의미로 정의되는 행위의 단어입니다.⁸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우리의 결심에는 행위가 요구되며 그것은 여러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받들다”의 한 가지 의미는 무언가를 마실 때처럼 우리의 몸에 무언가를 취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특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되도록, 그것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합니다. 따라서, 댈슨 회장님이 청년 성인들에게 주신 다음의 권유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구주의] 다양한 명칭과 직위가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를 구하십시오.”⁹ 또한 댈슨 회장님은 경전, 특히 물몬경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¹⁰

“받들다”의 또 다른 의미는 특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어떤 생각이나 원리의 진실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 때,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든지, 우리는 그분의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복음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받들다”라는 말은 또한 어떤 이름이나 대의에 보조를 같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일터에서 책임을 맡거나 어떤 대의나 운동에 동참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 때, 우리는 참된 제자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대의를 옹호하며,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우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¹¹ 댈슨 회장님은 “모든 청년과 모든 청년에게 ...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기 위해 주님의 청소년 대대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셨습니다.¹²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구주의 회복된 교회의 이름을 그분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공표하라는 선지자의 외침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¹³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와 그분 교회의 대의는 하나이며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주를 향한 우리의 제자됨과 그분의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는 것 또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흔들리면 또 다른 것에 대한 헌신이 약해지는 것은 하루가 끝나고 밤이 오듯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대의를 받들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이를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며, 국한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주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을 때 느낀 소망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마음에 살아 있는 이 소망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은사와 재능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권능을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의 복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의 이름을 받들 때, 우리는 모든 선한 것을 붙잡으며 그분처럼 됩니다.¹⁴

구주의 이름을 받드는 것은 성약을 동반하는 결심이며, 이는 침례 성약과 함께 시작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벨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구주와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면, ... 모든 영적 축복과 특권의 문이 ... 열릴 것입니다.”¹⁵ 우리가 침례를 통해 구주의 이름을 받들 때 얻게 되는 거룩한 특권 중 하나는 성약의 길에서의 그다음 의식인 확인 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덟 살 난 친구들 중 하나에게 물었을 때, 그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신을 지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맞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우리가 침례 의식을 받은 뒤 확인에 의해 주어집니다. 이 은사는 성신을 변하지 않는 동반자로 삼을 권리이자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작고 조용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침례를 통해 들어선 성약의 길에 계속 머물게 해 주시고, 그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받을 때 경고해 주시며, 필요에 따라서는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격려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은 후에 성약의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성신을 항상 동반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성신은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때에만 우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정결하게 하는 침례의 효과를 우리가 계속 되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다른 의식인 성찬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매주 우리는 손을 뻗어 주님의 살과 피의 상징물인 빵과 물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취함으로써 “[우리가] 가까이 ... 아들의 이름을 받들”고자 함을¹⁶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구주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기적을 다시금 행하시어 우리가 성신의 지속적인 영향력과 함께할 자격을 갖추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줄 수 있는 무한한 자비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죄와 슬픔을 지시지만, 그분의 “자비의 팔(은) ... 펼쳐져 있”으며,¹⁷ 이는 그분의 사랑의 팔에 우리를 감싸기 위함입니다.¹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은 침례받은 날에만 한 번 있는 행사가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해야 하는 결심이라는

것을 매주 상기시켜 주는 모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¹⁹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 죄 위하여서 살과 피 바치신 사람들 잘 모르는 그 거룩한 제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²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 때 오는 강력하고 영적인 축복을 이해하게 되면, 항상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과 성약 맺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²¹

우리가 이 신성하게 설계된 성약의 길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자 하는 결심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이름을 항상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간직할”²²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며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과 함께 추가적인 성약을 맺음으로써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자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약하여 의로운 소망을 행하지 못할 때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 오는 힘을 간구하게 될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충실히 견딘다면, 언젠가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할 것이고, 우리가 그분처럼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돌아갈 자격을 갖추게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주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며,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는²³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으로써 이 비할 수 없는 축복들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세서 5:8.
2. 모사이아서 3:17.
3. 교리와 성약 18:23.
4. 델린 에이치 옥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 성도의 벗, 1985년 7월호, 88쪽
5. 교리와 성약 18:24; 강조체 추가.
6. 교리와 성약 20:37; 강조체 추가.
7.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될 때, 그것은 구주의 이름을 받드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기쁘게 그의 이름을 받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 88쪽)
8. 메리암-웹스터 온라인 사전에는 타동사 받들다(take)의 의미 20가지가 목록으로 나와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동사와 같은 형태이다. (merriam-webster.com/dictionary/take)
9. 러셀 엠 넬슨, "선지자와 지도력,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2017년 1월 8일), broadcasts.lds.org.
10. 러셀 엠 넬슨, "물문경: 그것이 없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리야호나, 2017년 11월호, 60~63쪽.
11. 모사이아서 18:9.
12.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hopeofisrael.lds.org.
13.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의 이름으로 직접 제정하셨던 바로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이름의 중요성을 제 마음에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임무가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교회 명칭" [공식 성명, 2018년 8월 16일], mormonnewsroom.org)
14. 모로나아서 7:19 참조.
15. 러셀 엠 넬슨,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리야호나, 2018년, 4월호, 7쪽.
16. 교리와 성약 20:77; 강조체 추가.
17. 제3니파이 9:14; 또한 앨마서 5:33~34 참조.
18. 니파이후서 1:15 참조.
19.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자 할 때, 우리도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결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 [우리는] 해의 왕국에서 승영하고자 하는 결심을 진심으로 표명하는 것입니다. ...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와 같이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증거는 어떤 미래의 사건이나 상태에 관련되며, 그 성과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다는 구주의 권능과 주도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 88~91쪽)
20. "하늘 중에 사시는 하나님", 찬송가, 105장.
21. 모사이아서 5장: 6장: 18장: 제3니파이 19장 참조.
22. 모사이아서 5:12.
23. 교리와 성약 20:29.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믿고, 사랑하고, 행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됨으로써, 즉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풍성한 삶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연차 대회 모임에서 여러분과 함께 영감받은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인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을 대표하는 놀랍도록 멋진 선교사 합창단의 음악을 들으며,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이자 교회 회장인 러셀 엠 넬슨 회장님과 제일회장단과 교회 부부 역원들을 다시 지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단합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고대 왕이었던 솔로몬은 표면상으로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¹ 그는 돈과 권력, 존경, 명예 등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방종하고 화려함과 사치를 누린 후에 솔로몬 왕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습니다.²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에 환멸을 느끼고 비관적이며 불행하게 되었습니다.³

독일어 중에 Weltschmerz(벨트슈머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이 단어는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를 곱씹을 때 생기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Weltschmerz(벨트슈머츠)를 느낍니다.

어느 순간 삶에 슬픔이 스며들 때, 슬픔이 낮을 가득 채우고 밤에는 깊은 그림자를 드리울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포함하여 우리 주변에 비극과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외롭게 불행의 길을 여행하는 것 같고, 고통이 우리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을 깨뜨릴 때면, 삶은 헛되며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한 솔로몬에게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큰 희망

하지만 좋은 소식은, 바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공허함, 허무함, 그리고 *Weltschmerz*(벨트슈머츠)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깊디깊은 절망과 낙담에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변화의 힘 안에서, 그리고 우리 영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구주의 구속 권능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 사항이나 성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됨으로써, 즉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풍성한 삶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잊고 그리스도의 대의에 참여할 때 풍성한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⁵ 그분은 궁핍한 자와 방랑자, 병자, 부끄러운 자들 가운데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힘없고 약하며 친구가 없는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⁶

구주께서는 어디를 가시든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르치셨습니다.⁷ 그분은 사람들을 세상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유롭게 해 줄 영원한 진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의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구주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 하신 약속이 참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⁸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솔로몬은 틀렸습니다.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인생은 목적과 의미,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려 노력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으며,⁹ 우리의



고통은 누그러지고, 우리 영혼은 “심히 큰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되었습니다.¹⁰

믿고, 사랑하고, 행하십시오

물론 치유하는 그분의 손길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는 그저 머리로만 복음을 이해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과 행동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제자의 길은 다음의 간단한 세 단어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고, 사랑하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 자라납니다. 그런 사랑이 자랄 때, 구주를 따르겠다는 영감을 받고 제자의 길을 걷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해 보이네요. 삶의 문제들, 적어도 제 문제들은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될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믿고, 사랑하고, 행하라는 세 단어만으로는 *Weltschmerz*(벨트슈머츠)를 치료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말이 슬픔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조하고 회복하며 소생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라도 그분은 여러분께 손을 내미십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매일 그분은 여러분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시고자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며, 여러분 마음의 공허함을 변치 않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흐리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당신의 끝없는 영광이라는 거룩하고도 눈부신 빛으로 채워 주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스스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 진실로 믿고, 사랑하고, 행하는 모든 이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경전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가르칩니다.¹¹

어떤 이들에게는 믿는 일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이 그걸 가로막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지적이거나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종교를 어리석은 전통으로 보기 시작합니다.¹²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토론하고 이론을 제시하는 그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란 우리가 밖으로 가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땅에 고랑을 만들고, 씨앗을 심어서 후에 열매를 거두게 해 주는 쟁기와 같은 것입니다.¹³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¹⁴ 이것이 믿으려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경전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행복해진다고 밝혀 줍니다.¹⁵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상품권과 같은 것이 아니며, 그냥 잠시 쓰고 버리거나 쉽게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한 번 말하고 난 후에 잊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연락해 주세요”라는 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급하신 사랑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마음에 들어와 온종일 우리와 함께하고, 하루를 정리하며 소리 내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을 부풀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바로 이 끝없는 연민입니다. 순수한 사랑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과 딸들, 즉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지닌 불멸의 존재들을 보게 됩니다.

일단 그 렌즈를 통해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합니다

주님의 사업에서는 작고 단순한 방법으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¹⁶

우리는 무언가에 능통하려면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것이든, 공을 골대에 차 넣는 것이든, 차를 수리하는 것이든 또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든,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능숙하게 됩니다.¹⁷

구주께서 지상에 세우신 조직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우리가 바로 그것을 하도록 돕습니다. 교회는 구주께서 가르치신 방법으로 생활하고 그분께서 하신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연습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동정심을 품고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서 성역을 베푸라는 부름과 책임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최근에 교회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봉사하고, 그들을 사랑할 것을 새롭게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이 특별한 강조 사항을 지칭할 단어를 결정하기 위해 많이 고심했습니다.

고려했던 이름 중 하나는 양치기, 즉 *shepherding*(셰퍼딩)이라는 말로,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리스도의 권유에 잘 맞는 말이었습니다.¹⁸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shepherding*(셰퍼딩)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저는 독일산 셰퍼드가 되는 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역이라는 단어에 아주 만족합니다.

이 사업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강조 사항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라는¹⁹ 구주의 계명을 더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더 훌륭하고 새로워진 기회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목적을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선교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용감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누는 일은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훌륭한 예입니다.

또는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찾고 그분들께 영원의 축복을 드리는 일인 성전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는 성역을 베푸는 참으로 거룩한 방법입니다.

궁핍한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고 병 들고 고난받는 자들을 축복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지상을 거니시며 행하셨던 순수한 성역에 일치하는 행동이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이 교회 회원이 아니라면, “와서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²⁰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 회원이지만 현재 활동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부디 돌아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여러분의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특별한 재능과 능력, 개성이 우리가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여러분도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치유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자비를 베푸는 환경을 조성하고 강화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 새 것이” 될 것입니다.²¹ 구주께서는 우리가 이생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십니다. 그분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²²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전체에 장려하고자 하는 복음 문화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강화하여 서로를 용서하는 곳, 결점을 찾거나 소문을 퍼트리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유혹을 떨쳐내는 곳, 흠을 찾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도록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돕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권유하겠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합시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채우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따뜻하고 사랑 넘치며 친절하고 진실합니다. 부지런하고 기꺼이 희생하며 때로는 영웅적인 일들을 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몹시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실수를 저지르고,

때로는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발전하려 하고, 우리 구주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그들은 사랑합니다.

그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좀 더 이타적이고, 더욱 동정심을 가지며, 더욱 정제되고, 좀 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위한 청사진

맞습니다. 인생은 때로 힘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절망과 낙담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우리는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함께 믿고, 사랑하고, 행할 수 있는 성장의 장소입니다.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서로를 감싸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이생에서는 행복과 의미를 찾을 청사진을 주셨고, 다음 생에서는 영광의 장소에서 영원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아픔과 인생의 *Weltschmerz*(벨트슈머츠)를 치유할 방법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그분의 자녀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행하려 노력할 때, 치유받고 평안과 행복과 의미를 찾게 될 것임을 간증하며, 아울러 그것들을

저의 축복으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msn.com 설문 조사에서 솔로몬은 현재까지 생존했던 사람 중 다섯 번째로 부유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다. “성경에 따르면, 솔로몬 왕은 기원전 970년부터 931년까지 통치했으며, 당시 그는 통치 기간인 39년 동안 매년 25톤의 금을 상납받았다고 알려졌다. 이는 2016년 시가로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세금과 부역을 통해 벌어들인, 믿기 힘들 정도의 재물을 비롯하여 이 생서 속의 통치자가 소유했던 개인 자산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2조 달러를 넘었을 것이다.” (“The 20 Richest People of All Time,” Apr. 25, 2017, msn.com)
2. 전도서 1:1~2 참조.
3. 전도서 2:17 참조.
4. 요한복음 10:10.
5. 사도행전 10:38.
6. 마태복음 12:15; 또한 마태복음 15:30 참조.
7. 복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이다. (see Bible Dictionary, “Gospels”)
8. 마태복음 16:25.
9. 예스겔 36:26, 예레미야 24:7 참조.
10. 니파이전서 8:12.
11. 히브리서 11:6.
12. 니파이후서 9:28 참조.
13. 요한복음 3:16 참조.
14. 야고보서 4:8 참조.
15. 제4니파이 1:15~16 참조.
16. 앨마서 37:6.
17. 아리스토텔레스는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다. (*The Nicomachean Ethics*, trans. David Ross, rev. Lesley Brown [2009], 28)
18. 요한복음 21:15~17 참조.
19. 요한복음 15:12.
20. 요한복음 1:39.
21. 고린도후서 5:17.
22. 요한복음 14:15.



조이 디 존스
본부 초등회 회장

그분을 위해

다른 이에게 봉사할 때 자신이 누구를 위해, 왜 봉사하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위대한 방식이 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저녁,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의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나이와 지역, 상황을 막론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 있는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는다는 간증으로, 그 하나의 목적과 힘과 뜻 아래 모였습니다.

신혼 시절에 저와 남편은 오랫동안 교회에 오지 않는 한 가족을 방문하고 보살피라는 부름을 감독님께 받았습니다. 저희는 기꺼이 부름을 수락했고, 며칠 뒤에 그 가족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곧 우리는 그 가족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을 원치 않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방문 때 저희는 쿠키를 한 접시 구워 왔습니다. 초콜릿 칩이 그분들의 마음을 녹여 줄 거라는 확신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기대는 었나갔습니다. 그분들은 방충문도 열지 않은 채 대꾸를 하면서 저희를 달갑게 여기지 않음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쿠키 대신 라이스 크리스피[곡물로 만든 과자의 이름-옮김이]를 가져갔다던 좋아하셨을 거라고 꽤나 확신했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영적인 지혜가 부족했던 저희는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며 좌절감을 맛보았습니다. 거절을 당하는 일은 언제나

힘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는 이렇게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 거지? 무슨 목적을 위해?”

칼 비 쿡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는 부탁을 받을 수도 있고, 봉사하는 것에 지칠 때도 있으며, 또는 끌리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¹ 저희는 쿡 장로님의 이러한 말씀을 몸소 경험한 끝에 저희보다 훨씬 더 위대한 관점을 지니신 분에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를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랫동안 진지하게 기도하고 연구한 후, 저희는 우리가 왜 봉사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이해력과 마음에 변화가 일었고, 실로 계시를 경험했습니다.² 경전에서 인도를 구하던 중에 저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좀 더 쉽고 의미 있는 방법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찾았습니다. 다음 구절은 우리의 마음과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길지니라.”³ 너무도 잘 아는 성구였지만, 그 성구는 그때 새롭고도 중요한 방식으로 저희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 가족에게 봉사하고, 또 감독님을 위해 봉사하려 분투하긴 했으나, 과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냐민 왕은 이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섬기며 내 날을 보내었다고 너희에게 말하였다 하여, 내가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다만 하나님을 섬겨 왔을 따름임이니라.”⁴

베냐민 왕이 실제로 섬긴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른 이에게 봉사할 때 자신이 누구를 위해, 왜 봉사하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위대한 방식이 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점이 점차 바뀌면서 저희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 친애하는 가족을 방문하는 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⁵ 저희는 주님을 위해 그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난관이 난관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문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눈 지 몇 달이 지난 후, 그 가족은 마침내 저희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애정이 담긴 복음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깊은 우정을 쌓아 나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노력했으나 여러분의 노력을 알아 주거나 감사해하기는커녕 도리어 꺼려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혹시 자신이 하는 봉사의 가치를 의심하셨습니까? 그랬다면 베냐민 왕의 다음 말씀으로 여러분의 의문과 상처를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⁶

우리는 분한 마음을 품는 대신 봉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좀 더 완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다면 우리는 인정이나 감사를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짐은 물론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처음에는 의무감이나 책임감만으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봉사할 때도 우리는 내면에 잠재된 더욱 고귀한



무언가에 의지하여 “가장 좋은” 방식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⁷ 이는 바로 벨스 회장님이 권고하신,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새롭고도 더 거룩한 방식”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봉사를 하게 됩니다. 봉사가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지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시 하는 것이 봉사의 초점이 됨을 깨닫습니다.⁹

엠 러셀 벨라드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 또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이웃을 위해 친절을 베풀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¹⁰

이 신성한 지혜는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에서 거듭 강조됩니다. “나는 ...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¹¹ 이 계명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최우선에 둔다면, 궁극적으로 다른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적절하게 조정될 것임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라고 권고하셨습니다.¹² 그리고 우리는 매주 “항상 그를 기억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성약을 맺습니다.¹³ 그러한 독실한 행위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소한 일을 할 때도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낼 기회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 목록에 있는 모든 일도 각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감 일자를 앞두고 있거나,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저귀를 가는 등의 일을 할 때도 말입니다.

암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노니, 내 능력으로는 내가 약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겠고, 내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¹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최우선에 둘 때, 우리는 자신을 잊음과 동시에 결국 참된 자신을 찾게 됩니다.¹⁵

구주께서는 이 원리를 참으로 단순하고도 직선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빛이 이 백성 앞에 비취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¹⁶

인도 캘커타의 한 보육원 벽에 적혀 있는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문구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친절에 이기적인 속셈이 있다는 비난이 따를지라도, 부디 친절하라. 몇 해에 걸쳐 쌓아 올린 것을 누군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계속 쌓으라. 오늘 베푼 당신의 선행이 내일이면 쉬이 잊힐 것이나, 그래도 선행을 베풀라. 세상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가 있을 것이나, 최선을 다하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임을 알게 되리니.”¹⁷

자매 여러분,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구주와 개인적이고, 지속적이며, 매일 계속되는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내면에 잠재된 신성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신성한 관계를 알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삶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¹⁸

같은 맥락에서, 엘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으로 네 모든 행위로 주께 드리는 것이 되게 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안에서 행하도록 하라. 참으로 네 모든 생각으로 주를 향하게 하라. 참으로 네 마음의 사랑을 영원히 주께 두도록 하라.”¹⁹

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발적인 속죄를 이해할 때, 그분을 섬길 수 있는 특권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우리가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²⁰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권능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는 다른 이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임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봉사합니다. 우리는 경전에 묘사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웃의 이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순전한 눈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됩니다.²¹

아마도 저희 감독님은 저와 남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선의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에게 성역을 베풀고자 노력하며 배움을 얻게 될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노력할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는 개인적이고도 확실한 간증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칼 비 쿡, “봉사하십시오”,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110쪽.
2. 모사이야서 5:2 참조.
3. 교리와 성약 59:5; 강조체 추가.
4. 모사이야서 2:16; 강조체 추가.
5. 니파이전서 11:22 참조.
6. 모사이야서 2:17.
7. 고린도전서 12:31.
8. 리셀 엠 넬슨, “성역”,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00쪽.
9. 마태복음 6:1~4, 33 참조.
10. 엠 리셀 벨라드, “봉사에서 느끼는 기쁨”,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47쪽.
11. 출애굽기 20:2~3.
12. 교리와 성약 6:36.
13. 교리와 성약 20:77, 79.
14. 엘마서 26:12.
15. 마태복음 16:24~25 참조.
16. 제3니파이 12:16; 강조체 추가.
17. 혼히 테레사 수녀가 한 말로 여겨짐. See Kent M. Keith, *The Paradoxical Commandments* (1968).
18. 제임스 이 파우스트, “나와 구주와의 관계”, *리아호나*, 1977년 2월호, 54쪽.
19. 엘마서 37:36.
20. 리셀 엠 넬슨, “속죄”, *리아호나*, 1996년 11월호, 35쪽.
21. 교리와 성약 82:19.



미셸 디 크레이그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신성한 불만족

신성한 불만족을 통해 우리는 신앙으로 행하고, 선을 행하라는 구주의 권유를 따르고, 우리의 생활을 겸손히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초 등학교 시절, 우리는 언덕을 가로지르며 구불구불하게 나 있는 포장길을 걸어서 하교를 했습니다. 또, 그 길 말고도 “남자애들 길”이라고 부르는 비포장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길은 언덕 꼭대기까지 곧장 오르는 흙길이었습니다. 남자애들 길은 거리는 짧지만 경사는 훨씬 급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였던 저는 제가 남자아이들이 가는 그 어떤 길도 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가 후기에 살고 있고, 개척자들처럼 힘든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 자신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포장길을 걷는 친구들에게서 일부러 뒤통수쳐서 신발을 벗은

뒤, 맨발로 남자애들 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발을 단련시키려 했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소녀였던 저는 그렇게 하면 제가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님을 압니다! 저는 맨발로 산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성신의 권유에 응함으로써 성약의 길을 견도록 제 발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더 높고 더 거룩한 방법”으로 생활하고, 타인을 보살피며, “더 높은 곳으로 발걸음을 떼”도록 선지자를 통해 외치시기 때문입니다.¹ 행하라는 선지자의 이러한 외침이 더 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우리의



내적인 인식과 어우러지면, 널 에이 맥스웰 장로님께서 “신성한 불만족”이라고 부르신 것이 우리 안에서 생성됩니다.² 신성한 불만족은 “우리의 현 상태를 우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존재”와 비교할 때 생깁니다.³ 자신에게 솔직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자신의 현 위치 및 됴됨이가 사실은 우리가 되고 싶은 위치나 됴됨이와 격차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지니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딸이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느낌은 하나님에게서 오며,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긴박함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우리를 더 높은 길로 부르는 신성한 불만족의 느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한편 사탄의 모조품, 즉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낙담을 인식하고 피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낙담하게 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추구하도록 이끄는 더 높은 길을 걷겠다고 선택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훌륭하고 부유하거나 똑똑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절대 못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쏟아붓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불만족감은 신성할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행함

신성한 불만족과 사탄의 모조품을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것입니다. 신성한 불만족은 우리를 신앙심 어린 행동으로 이끕니다. 신성한 불만족은 우리에게 하기 편한 일만 하라고 권하지 않으며,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루지 못한 것들만 생각하며 버둥거리고 있으면, 발전하지 못하고, 영을 느끼고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⁴

조셉 스미스는 어린 시절에 자신의 결점을 통렬하게 인식했고, “[그의] 불멸의 영혼의 복리”를 걱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마음은 나의 죄를 확실히 알게 되고, ... 몹시 낙담했습니다.



... 나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 때문에 크게 애통했습니다.”⁵ 따라서 그는 “진지한 묵상에 잠기는 한편 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⁶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결점 때문에 불안하거나 낙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조셉은 행동했습니다. 그는 “종종, 어떻게 할 것인가? ... 자문해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⁷ 조셉은 신앙으로 행했습니다. 그는 경전을 펴고, 야고보서 1장 5절의 권유를 읽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받은 시현은 회복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저는 신앙으로 행하도록 조셉을 떠올려 준 그 신성한 불만족이, 그 불안과 혼란의 시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의 속삭임을 따라 선을 행함

세상 사람들은 종종 불만족감을 핑계 삼아 오직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자기중심적이고 퇴보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신성한 불만족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⁸ 구주의 모범을 따르도록 우리를 고무시켜 줍니다. 제자의 길을 걷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영의 부드러운 자극을 받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들은 한 이야기는 제가 성신의 속삭임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셨던 보니 디 파킨 자매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수잔은 바느질 솜씨가 좋았습니다. 수잔은 김볼 회장님과 같은 와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수잔은 김볼 회장님이 새 양복을 입으신 것을 보았고,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고급 실크를 사다 주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수잔은 그 실크로 김볼 회장님의 새 양복에 어울리는 멋진 넥타이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넥타이를 만들었고, 종이 포장지에 정성스럽게 싸서 김볼 회장님이 사시는 동네로 갔습니다.

그 맥 환관으로 가던 수잔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선지자를 위해 넥타이를 만들었지? 분명 넥타이가 많으실 텐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 그녀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김볼 자매님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 수잔!’

수잔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일요일에 김볼 회장님이 새 양복을 입으신 걸 봤어요. 마침 아버지가 뉴욕에서 실크를 사다 주셔서, 회장님을 드리려고 넥타이를 만들어 보았어요.’

김볼 자매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는 자신의 손을 수잔의 어깨에 얹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잔, 베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마세요.’”⁹



저는 이 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베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말아요.” 누군가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이 영의 속삭임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도록 이끌며 권유하니, 그러므로 무릇 선을 행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도록 이끌며 권유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¹⁰

직접적인 영의 속삭임이든, 그냥 도와주고 싶은 충동이었던 간에 그 어떤 선한 행동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응하는 것은 절대 그릇되지 않기 때문입니다.¹¹

봉사를 하기에는 때가 맞지 않을 때가 종종 있고, 우리의 작은 봉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신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승인하신다는 표시임을 알고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할 일 목록이 이미 꽉 차 보일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성신을 통해 보여 주시도록 간청할 수 있습니다.¹² 영의 속삭임을 느끼면, 우리는 설거지거리나 당장 해결해야 할 많은 일을 제쳐두고,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거나, 친구를 방문하거나,

이웃집 아기를 봐 주거나, 성전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록을 만들고 완료 표시를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곧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때 평온이 찾아옵니다. 불만족감을 느낄 때 영의 속삭임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내 시간”에 대한 저의 사고방식이 변화하고, 사람들을 방해물이 아닌 인생의 목적으로서 보게 됩니다.

신성한 불만족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

신성한 불만족은 자기 연민, 또는 늘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할 때 생기는 낙담이 아닌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성약을 지키는 여성들의 가족과 인생 경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신성한 잠재력에는 미치지 못하기에, 우리 혼자서는 충분할 수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하는 기쁜 소식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¹³ 경전에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나옵니다.¹⁴

우리의 약점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할 때 그것은 축복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¹⁵ 자기 연민 속에서 망설이기보다는 부족함을 안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불만족은 신성한 것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기적은 자주 부족이나 필요, 실패나 불충분을 인식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각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수천 명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먹이셨는지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¹⁶ 그 이야기는 음식이 부족한 것을 제자들이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¹⁷ 제자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충분치 않았습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음식을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일을 하기에는 자신의 재능과 은사가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노력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노력을 크게 키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다면, 비록 여러분이 인간적인 연약함과 약점을 안고 있을지라도 그분께 충분히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한 세대 차이밖에 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¹⁸ 여러 시대에 걸쳐 선지자들과 평범한 남녀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C. S. 루이스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 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하수구를 고치고 지붕에서 물이 새는 틈새를 막는 등의 일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일이므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분께서 집을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하십니다. 그 과정은 지독하게 고통스럽습니다. … [사실] 그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매우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 여러분은 자신이 꽤 괜찮은 조그만
오두막집이 될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그분은
여러분을 궁전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궁전 안에 거하고자 하십니다.”¹⁹

우리 구주의 속죄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신성한
불만족을 통해 우리는 신앙으로 행하고, 선을
행하라는 구주의 권유를 따르고, 우리의
생활을 겸손히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

이타적인 봉사가 주는 기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그분께 약속했습니다.

주

1. Russell M. Nelson, in Tad Walch, "The Lord's Message Is for Everyone": President Nelson Talks about Global Tour," *Deseret News*, Apr. 12, 2018, deseretnews.com.
2. Neal A. Maxwell, "Becoming a Disciple," *Ensign*, June 1996, 18.
3. Neal A. Maxwell, "Becoming a Disciple," 16; emphasis added.
4. "낙담은 여러분의 신앙을 약하게 만든다. 여러분이 기대치를 낮춘다면 효율성은 줄어들고, 여러분의 소망은 약해지고, 점점 더 영의 인도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선교사로서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18), lds.org/manual/missionary).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8쪽.
6. 조셉 스미스—역사 1:8.
7. 조셉 스미스—역사 1:10; 강조체 추가.
8. 사도행전 10:38.
9. Bonnie D. Parkin, "Personal Ministry: Sacred and Precious"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Feb. 13, 2007), speeches.byu.edu.
10. 모로나이서 7:13.
11. 고린도전서 13:8.
12. 니파이후서 32:5.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
14. 히브리서 4:16.
15. "또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이디서 12:27; 강조체 추가)
16. 마태복음 14:13~21; 마가복음 6:31~44; 누가복음 9:10~17; 요한복음 6:1~14 참조.
17. 요한복음 6:9.
18.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의 족보에 얼마나 많은 세대가 쓰여 있든, 어떤 민족을 여러분이 대표하든, 여러분의 영의 족보는 하나의 계통으로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청년 청년에게",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69쪽)
19. C. S. Lewis, *Mere Christianity*(1960), 160.

저는 지난 연차 대회 이후로 많은 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니다. "컨퍼런스 센터의 연단에 있는 의자는 편안하나요?"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말씀 순서를 말지만 않는다면 아주 편안하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번 대회에서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그다지 편안하지

못했지만, 오늘 저녁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축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자에 앉게 됩니다. 어떤 의자는 꽤 편안하고 어떤 의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그분께 약속했습니다.

몇 해 전, 교회의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실 때]"[교리와 성약 4:2],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여정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와 그분의 일을 서두르며 기쁨 넘치는 훌륭하고 기이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¹ 이 여정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할 수 있으며,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께서 "성약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²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또는 "내 부름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더 훌륭히 봉사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나?"라고 묻기보다는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라고 끊임없이 묻는 이기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타적인 봉사의 훌륭한 모범이 되어 주신 분으로 빅토리아 안토니에티 자매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빅토리아 자매님은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자랄 때 우리 지부의 초등학교 교사 중 한 분이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 초등학교 활동을 하러 모일 때마다 자매님은 초콜릿 케이크를 교회로 가져오셨습니다. 모두가 그 케이크를 좋아했는데, 유독 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초콜릿 케이크를 싫어했습니다. 자매님은 저에게 케이크를 맛보이려 하셨지만, 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나눠 주시는 자매님께 저는 이렇게 여쭙었습니다. “다른 맛 케이크를 가져오시면 안 될까요? 오랜지나 바닐라 맛 같은 걸로요.”

자매님은 잠시 웃음을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입만 먹어 보지 그러니? 이 케이크는 특별한 재료로 만들었거든. 한 입 먹어 보면 분명 좋아하게 될 거야.”

주변을 둘러보니, 놀라게도 모든 사람이 다 그 케이크를 맛있게 먹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럼 한 번 먹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케이크가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그날 저는 난생처음으로 초콜릿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야 저는 안토니에티 자매님의 초콜릿 케이크에 들어간 비밀 재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함께 매주 친정 어머니를 방문하곤 했는데, 한번은 어머니와 초콜릿

케이크를 한 조각씩 먹으면서 제가 어떻게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제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크리스, 그거 아니? 빅토리아 자매님 가족은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아이들 넷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초등학교에 갈지, 아니면 초등학교 반을 위해 만들 초콜릿 케이크 재료를 살지 매주 선택해야만 하셨어. 자매님은 항상 버스 타는 걸 포기하고 초콜릿 케이크를 택하셨지. 그리고는 아이들 넷을 데리고 날이 맑으나 곳으나 3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걸어 다니셨단다.”

그날 저는 빅토리아 자매님의 초콜릿 케이크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자매님의 케이크에 들어간 그 비밀 재료란 바로 자신이 섬기는 이들을 향한 자매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이타적인 희생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자매님의 케이크를 생각하다 보면, 주님께서 성전 헌금함 쪽으로 걸어가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타적인 희생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에는 열세 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각 헌금함에 새겨져 있는 다른 용도에 따라 헌금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각각양색의 헌금자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중 일부는 “진정한 마음”으로 바쳤지만,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헌금한 것을 보이고 칭송받으려고 “많은 액수의

금은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가난한 과부는 한 헌금함에 렘돈이라고 알려져 있는 작은 구리 동전 두 개를 넣었습니다. 과부가 바친 헌금의 액수를 미화로 환산하면 반센트도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이 가난에 시달리는 과부의 행위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마가복음 12:43~44]”³

그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알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도가 순수했고, 자신이 가진 전부를 바쳤습니다. 바친 금액은 적었을지 몰라도, 그녀는 남들과는 달리 드러내지 않고 남다른 방식으로 바쳤습니다. 그녀가 바친 것은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었으나,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의 감찰자”이신 구주께서 보시기에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바친 것이었습니다.⁴

자매 여러분, 우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자라나는 세대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바치고 있습니까?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었을 시간과 힘을 희생하여 주위 사람들과 우리에게 지명된 사람들 모두에게 관심을 쏟고 부지런히 성역을 베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까?⁵ 그 사랑은 대개 봉사로 나타납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몸소 [이타적인]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면 자신의 이기적인 이해를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옥스 장로님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한 가지 흔한 예는 ... 바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아 기르기 위해 고통을 겪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들과 안락을 희생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들의 삶과 우선순위를 맞춥니다. ...

우리는 또한 장애가 있는 가족이나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이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하고 묻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편리는 제쳐두어야 합니다. ...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풀기 위해서 행동하고 봉사할 때 더 행복해지고 더 큰 보람을 갖게 된다는 영원한 원리를 대변해 줍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봉사를 하는 희생을 통해 그분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⁶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창조주를 대면했을 때 받게 될 질문은 ‘직책을



몇 개나 맡았었느냐?’가 아니라 ‘몇 사람이나 도와주었느냐?’일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분을 섬기기 전까지는 [결코]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⁷

자매 여러분,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편안한 의자에 앉든, 모임 내내 뒷줄에 놓인 녹슨 접이식 의자에 불편하게 앉든 그것은 별반 중요하지 않으리라는 뜻입니다. 우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잠시 복도에 나간 것도 그다지 중요치 않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봉사하려는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성역을 베푸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는지, 뒷줄 접이식 의자에 함께 앉은 사람이 우리에게 지명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친근하게 다가가 자기를 소개했는지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과 희생이 깃든 봉사라는 특별한 재료를 넣어 행하는 것이 중요함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공적이고 헌신적인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굳이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케이크가 아니라 행동 뒤에 숨겨진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사의 희생과 하나님 아들의 궁극적이고도 영원한 희생처럼, 사랑은 희생을 통해 성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그분이 살아 계심을 간증합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처럼 사랑하고 성역을 베풀기 위해 이기적인 욕심을 떨쳐 내기를 열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본부 청남 회장단, “이 기이한 일”, *리아호나*, 2015년 1월호, 49쪽.
2. 러셀 엠 넬슨,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리아호나*, 2018년, 4월호, 7쪽.
3.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1916), 561쪽.
4. 교리와 성약 33:1.
5. 마태복음 22:37, 39 참조.
6. 맬린 에이치 옥스, “비이기적인 봉사”,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3~94, 96쪽.
7. Thomas S. Monson, “Great Expectations”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Jan. 11, 2009), 6, speeches.byu.edu.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가정에서의 복음 학습과 여성

구주께서 가정에서의 복음 학습을 더욱 강조하시는 가운데, 그분은 여러분이 해낼 중요한 역할에 대한 완벽한 모범이 되십니다.

사 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렇게 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지금 가슴 뛰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교회에 지식을 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흐르는 물이 흐린 채로 있을 수 있으리요? 어떠한 권능이 여러 하늘을 멈추게 하리요? 사람이 자기 연약한 팔을 뻗어 정해진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주리 강을 멈추게 하거나 그 물줄기를 역류시킬 수 있다면, 전능하신 이께서 하늘에서 후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식을 부어내려 주심을 막을 수 있으리라.”¹

주님은 오늘날 더욱 박차를 가하여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슴속에 영원한 진리를 부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기적적인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이 주된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기적의 증거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 있는 선지자께서 가정과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지식을 부어 주시는 일에서 충실한 자매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이미 기억하시는 내용이겠지만, 여러분은 다음 구절에서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가슴 뛰는 변화를 주님께서 예견하셨음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선언문에는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주요한 책임을 주님께서

자매들에게 맡기셨음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² 여기에는 복음의 진리와 지식을 길러 주는 일도 포함됩니다.

선언문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³ 부부는 동등한 동반자이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잠재성 또한 동등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도움으로써 하나가 됩니다. 또 그들은 함께 승영할 신성한 운명을 동등하게 지고 있습니다. 사실, 남성과 여성은 홀로 승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동등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언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양분인, 하늘에서 오는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하는 주된 책임이 하나님의 딸에게 주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한, 세상에 가족이 창조된 이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가족을 이루려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해야 한다는 지식을 받은 이는 이브였습니다. 왜 이브가 이 지식을 먼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에게 그 지식이 부어지자 아담과 이브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성이 지닌 양육하는 은사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또 다른 예는 주님이 힐라맨의 아들들을 강화하신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 목이 맵니다. 그리고 제가 군 복무로 집을 떠났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신 조용한 확신의 말들이 떠오릅니다.

힐라맨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받았었더라.

또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말을 내게 들려주었나니,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 하였느니라.”⁴

주님께서 가정에서의 양육에 관한 주된 책임을 충실한 자매들에게 주신 이유를 저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것이 자매 여러분이 지닌 사랑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크게 인식하려면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양육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 자애의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영향력을 얻을 자격이 있고 양육하는 자로 택함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몸소 모범으로 보여 주셨던 상호부조회 모토,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참으로 영감을 받은 말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로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감지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위대한 역량을 타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그 능력 덕분에 영의 속삭임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영은 여러분이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식과 진리, 용기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각자 삶의 여정에서 어느 특별한 지점에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성 총회에 처음 참석한 어린이 여러분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양육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젊은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의 자매님, 자녀 한둘을 키우는 젊은 어머니, 십 대 자녀를 둔 어머니, 또 자녀를 선교 사업에 내보낸 어머니도 계십니다. 신앙이 약해진 데다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둔 분도 계시고, 충실한 동반자 없이 홀로 지내는 분도 있으며, 손주를 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과 여러분 각자의 가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다음 생과 이생,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족 중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을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양육할 것이라고 신뢰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는 누구를 어떻게 언제 양육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도움

필요합니다. 그분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여러분의 양육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될 시점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는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너희가 받게 될 줄로 믿는 신앙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 필요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성신을 갖게 되리라.”⁵

기도뿐 아니라 진지한 경전 공부도 양육하는 힘을 기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쌓아 두라. 그리하면 바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할당되는 분량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⁶

여러분은 영적인 일에 관해 기도하고, 숙고하고, 명상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일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부여져, 가족을 양육할 힘이 자랄 것입니다.

더 좋은 양육법을 배우다 보면 진전이 더디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신앙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런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보라,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나니, 기꺼이 하고자 하며 순종하는 자는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⁷

오늘 밤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양육하라는 주님의 권유를 기꺼이 받아들여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가족 중에서 누구를 양육할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도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행하고 어떤 말을 할지 알고자 기도한다면, 응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마다 양육하는 능력이 자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날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십 대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양육에 반응하지 않는 자녀를 양육할 방법을 알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필요하며, 영적인 영향력을 지닌, 또한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누군지 알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심에 찬 어머니들의 이러한 진심 어린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그런 어머니들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할머니들 또한 자녀나 손주들이 겪는 부담과 어려움을 보며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전에 나오는 가족들의 경험을 통해 용기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브와 아담의 시대부터 아버지 이스라엘을 거쳐 몰몬경의 모든 가족에

이르기까지, 반응하지 않는 자녀가 가져오는 슬픔에 대처하는 분명한 교훈 한 가지는 결코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영의 자녀들을 양육하심으로써 힘이 되는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우리가 고통을 초래할 때조차도 변함없이 손을 내미십니다.⁸ 제3니파이에서 주님은 자신의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려 하셨으나 성공하지 못하셨던 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집에 속한 ... 백성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고 양육한 것이 몇 번이나.”⁹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국면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가정 상황 또는 문화에 놓여 있든지 간에, 구주는 여러분의 완벽한 본보기가 되십니다. 구주께서 가정에서의 복음 학습을 더욱 강조하시는 가운데, 그분은 여러분이 해낼 중요한 역할에 대한 완벽한 모범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내면에 존재하는 사랑의 감정을 통해 가족의 활동과 행동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더 큰 영적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들에 대한 구주와 여러분 자신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자 할 때, 그것은 점차 여러분의 영적인 은사가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큰 신앙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도 그 점을 느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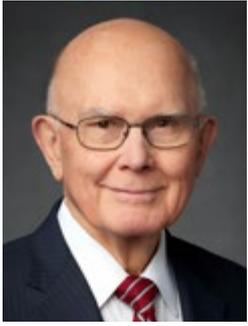
가족이 함께 모여 소리 내어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 이미 그 부분을 읽고 그에 대해 기도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시간을 내서 영이 생각을 밝혀 주기를 기도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을 차례가 되면, 가족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으로 양육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한다면, 모든 가족 모임에 동일한 영이 부여될 것입니다.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교훈이 생각납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여정을 담아 만들어 주셨던 알록달록한 지도가 생생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 시간과 힘을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충실한 사도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오늘까지도 저에게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자신의 가족이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서 진리를 풍성히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바지할 길을 알고자 기도하고, 공부하고, 숙고할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등하게 멩에를 진 여러분 각자는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기적의 주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 덕분에 이스라엘의 집합이 이루어지도록 서두를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위해 하나님의 가족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21:33.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45쪽.
4. 엘마서 56:47~48.
5. 교리와 성약 18:18.
6. 교리와 성약 84:85.
7. 교리와 성약 64:33~34.
8. 니파이후서 19:12, 21 참조.
9. 제3니파이 10:4.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부모와 자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위대한 행복의 계획은 여러분이 누구이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사 랑하는 자매 여러분, 만 8세 이상의 교회 여성들을 위한 이 새로운 연차 대회 여성 총회를 열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자매 지도자들과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께 영감 어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어링 회장님과 저는 러셀 엠 벨슨 회장님의 지시 아래 즐겁게 일하고 있으며, 그분이 선지자로서 전해 주실 말씀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I.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은사이며, 우리는 자녀를 통해 영원히

증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많은 여성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많은 청년 성인이 현세적으로 조건이 충족되기까지 결혼을 미룹니다. 후기 성도의 평균 결혼 연령은 2년 이상 높아졌으며, 회원들이 출산하는 자녀의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향후 은퇴 연령의 성인들을 부양할 성인 자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¹ 미국에서는 전체 신생아 수의 40퍼센트 이상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II.

후기 성도 여성들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자신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가장 큰 기쁨임을 이해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들은 대부분 가정과 가족에서 가장 큰 성취감과 가장 큰 행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요한 힘, 우아함, 평화, 선함, 덕, 진리, 사랑 안에서 발현되는 어떤 신성한 것을 여성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뛰어난 성품들은 모성에서 가장 참되고 만족스러운 모습을 찾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를 의와 진리 안에서 보살피고, 가르치고, 생활하게 하고, 격려하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²

어머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해 여러분이 해 주시는 일 그 자체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2015년 연차 대회 당시 러셀 엠 벨슨 회장님은 “자매님들께 드리는 간청”이라는 중요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여성,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말할 수 있는 여성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온전하지 않으며 온전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

오늘[날 우리는, 신앙으로 어떻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지를 아는 여성, 죄로 병든 세상에서 도덕과 가족을 용감하게 지키는 여성이 필요[합니다.] ... 우리는 승영에 이르는 성약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여성,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법을 아는 여성, 성전 엔다우먼트가 주는 힘과 평안을 아는 여성, 자녀와 가정을 지키고 강화하고자 하늘의 힘을 청할 줄 아는 여성, 두려움 없이 가르치는 여성이 필요합니다.”³

이 영감받은 가르침은 모두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그 근거를 둡니다. 이 회복된



교회는 지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주께서 마련해 두셨던 계획의 중심이 되는 교리와 관행을 그 선언문을 통해 재확인합니다.

III.

이제 저는 나이가 어린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과 초등회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알고 있기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지식으로 여러분은 성장기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쓰기와 말하기, 계획하기 등의 재능을 계발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법과 거짓말, 속임수, 도둑질, 혹은 술과 마약의 유혹을 견디는 법도 배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진행된 미국의 십 대와 종교에 관한 연구에서도 여러분이 지난 특별함이 인정받았습니다. *Charlotte Observer*(샬롯 옵서버) 신문에 “Mormon Teens Cope Best: Study Finds They Top Peers at Handling Adolescence(물론 청소년이 또래 집단 중에서 사춘기를 가장 잘 대처하고 극복하는 것으로 밝혀지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물론은 위험 행동을 피하며, 학교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부분에서 가장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주로 면담했던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거의 전 영역에서 나타난 한 가지 뚜렷한 양상은 물론이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⁴

여러분이 청소년기의 어려움에 가장 잘 대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이 누구이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청소년은 가장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먼저 옳은 일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에 겪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할 때 자신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유능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훌륭한 찬송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불러왔고 믿어온 1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나 주 지키며
너를 축복하여 주리

옳은 일 힘써 행하면⁵

여기에는 두 가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며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가 “옳은 일[을] 힘써 행하면”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불안과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이것은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받았으며,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옳은 일[을] 힘써 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모든 자녀들과 같은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권고를 드릴 수 있을 테지만, 지금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권고는 휴대 전화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십 대의 절반 이상은 자신이 휴대 전화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40퍼센트 이상의 청소년들은 휴대 전화가 손에 없으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⁶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린 자매 여러분과 성인 자매 여러분, 휴대 전화 사용을 줄이고 의존도를 낮춘다면 여러분의 삶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권고는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친절은 이미 청년 여러분들이 많이 실천하고 있는 성품입니다. 몇몇 지역에 있는 청소년 단체들은 우리 모두에게 그 실천 방법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친절을 보인 청소년들의 행동에 우리는 모두 고무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한 도움과 사랑을 서로에게 베푹니다. 우리가 모두 여러분의 모범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사탄이 우리가 불친절하게 행하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심지어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도 그러한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불친절한 행위는 괴롭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및 교회 본부 직원

제일회장단



달린 에이치 옥스
제1보좌



러셀 엠 넬슨
회장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2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엠 엠 벤넌드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터 에프 우흐토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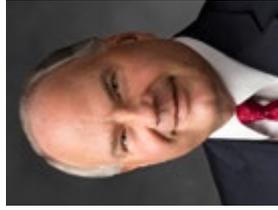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케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렌런드



게릿 더블유 공



울리세스 소아레스

철심인 회장단



엠 벤넌드



패트릭 카어론



칼빈 쿡



로버트 시 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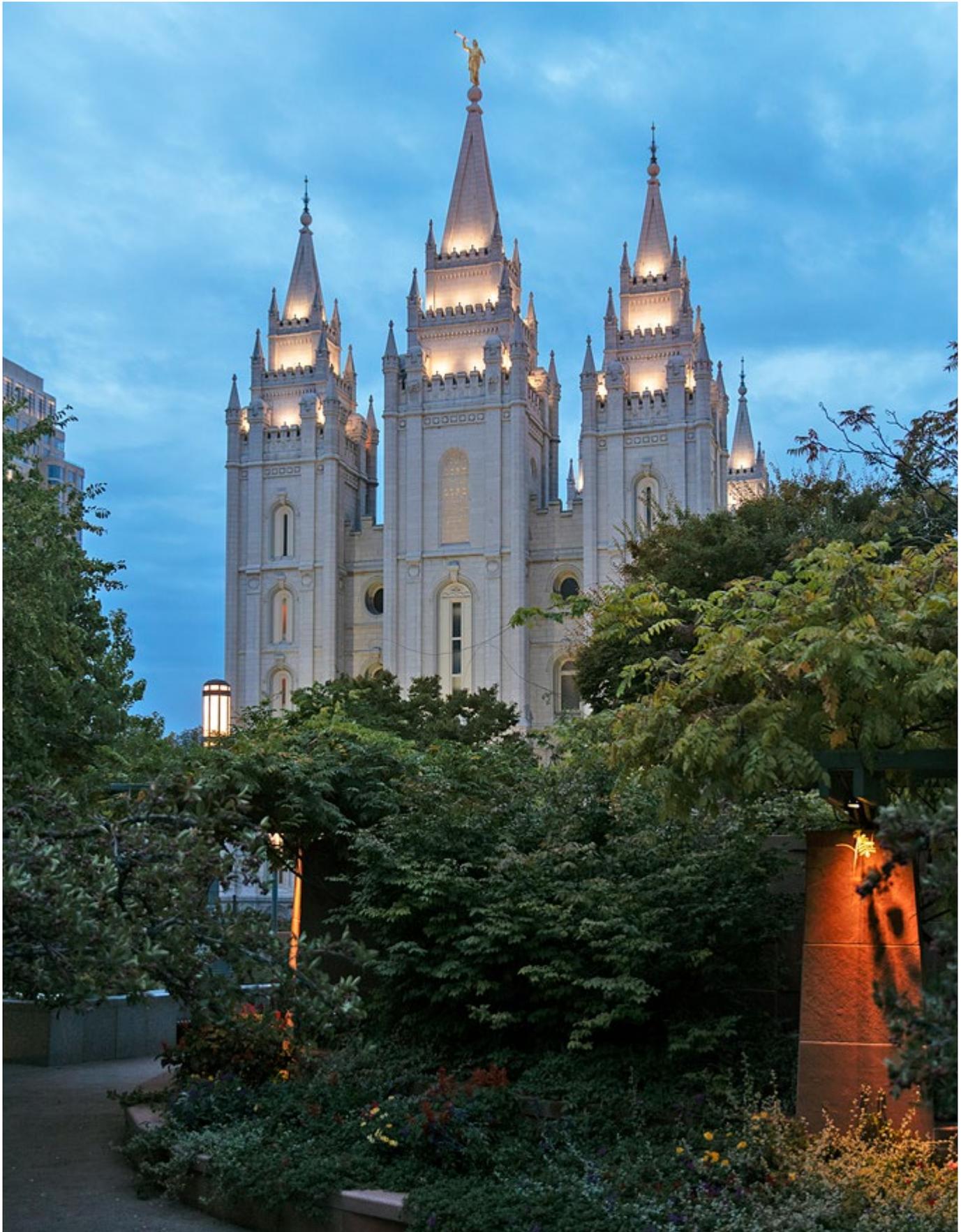
러셀 엠 넬슨



조세 에이 테이처



울리세스 에이 소아레스



집단으로 누군가를 따돌리는 것, 다른 이들을 소외시키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예는 다른 급우나 친구들에게 고의로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어린 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몰인정하거나 모질게 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이곳 유타주에 있는 한 난민 청남을 압니다. 그는 자신의 모국어를 쓰는 것 등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종종 놀림을 받았습니다. 한 특권층의 청소년 무리가 계속 자신을 괴롭히자, 그는 일종의 보복을 가했고, 그 문제로 70일 넘게 감옥에 갇힌 후, 강제 추방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과 같은 후기 성도인 이 청소년들이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비열한 행위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비극적인 경험과 회생을 겪게 되었다는 점만은 알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불친절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최근 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에서 우리의 선지자 넬슨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이야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회장은 여러분과 모든 청소년에게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는 일에 참여하라고 요청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두드러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과 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처럼 보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복장을 갖추어 입기를 요구합니다.”⁷

넬슨 회장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참을 권유하신 주님의 청소년 대대는 서로에게 불친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주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고 배려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도 다른 뺨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태어났던 해의 한 연차 대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복음에 따라 생활하려 애쓰는 아름다운 청년”들에게 찬사를 보내셨습니다. 회장은 오늘 저와 마찬가지로 심정으로 그 청년들을 묘사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관대하며 서로를 강화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은 부모와 그들이 자라난 가정의 자랑입니다. 그들은 여성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 현재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이상을 계속 지니고 살아갈 것입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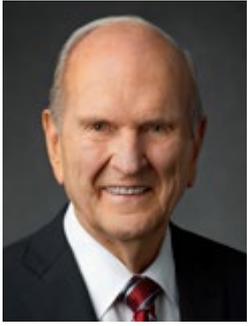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청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선함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친절하게 대화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친절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애정 어린 영향력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만약 개인으로나 집단으로 어떤 비열하고 옹졸한 행동에 가담하고 있다면, 지금 변화하겠다고 다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독려하십시오. 이것이 저의 권고이며, 저는 이 권고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 세계 이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도록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분은 우리 구주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See Sara Berg, “Nation’s Latest Challenge: Too Few Children,” AMA Wire, June 18, 2018.
2.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387, 390; 또한 엠 러셀 블라드, “어머니와 딸”, 리야호나, 2010년 5월호, 18쪽 참조.(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 [2011], 156쪽에서 인용됨)
3. 러셀 엠 넬슨, “자매님들께 드리는 간청”, 리야호나, 2015년 11월호, 96쪽; 또한, 러셀 엠 넬슨, “성약의 자녀”,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33쪽 참조.
4. The study was published by the Oxford University Press as Christian Smith and Melinda Lundquist Denton, Soul Searching: The Religious and Spiritual Lives of American Teenagers (2005).
5. “사랑하는 자녀들아”, 찬송가, 40장.
6. See “In Our Opinion: You Don’t Need to Be Captured by Screen Time,” Deseret News, Aug. 31, 2018, deseretnews.com.
7.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8쪽, broadcasts.lds.org.
8. 고든 비 힝클리, “보다 큰 친절의 필요성”, 리야호나, 2006년 5월호, 60~61쪽.



러셀 엠 넬슨 회장

이스라엘의 집합에는 자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여성 여러분께 흠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을 도움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주시기를 선지자로서 간청합니다.

사 랑하는 고귀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진 천부적인 능력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여 주는 최근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남아메리카의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던 중에 저는 제 감정이 점차 고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말씀의 정점에서 저는 “열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라고 말했고, 그런 뒤 계속 말을 이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저는 제가 어머니라고 말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 옆에 있던 통역자는 제가 말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는 어머니라는 말을 아버지로 바꿔 통역했고, 그래서 회중은 제가 저 자신을 어머니라고 칭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 웬디는 그 말을 들었고, 제가 무의식 중에 본심을 드러내다며 재미 있어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을 한 순간, 오직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제 마음속 깊은 열망이 마치 풍선처럼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의사로 일했던 그 긴 시간 동안, 왜 의사가 되는 것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되겠다는 선택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언젠든 제가 어머니라는 말을 할 때면, 이 지상에서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자녀를 둔 여성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게 어머니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성인 딸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여성은 자신이 지닌 영원하고 신성한 운명에 따라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열 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그것도 아홉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그리고 교회의 회장으로로서,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이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선행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여러분이 느끼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로운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머니의 영향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남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성분들에게는 특별한 은사, 즉 하늘에서 부여한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군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그것이 필요한지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 가르치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보며, 우리는 여러분의 그런 시각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닌 본성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어떤 일련의 행위나 조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생각하도록 이끕니다.

아이어링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타락”이라고 부르는 일을 시작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어머니 이브였습니다. 이브의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선택과 이를 지지하는 아담의 결정 덕분에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



덕분에 우리 각자는 이 지상으로 와서 육신을 얻을 수 있었고, 우리가 전세에서 그랬듯이 지금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편을 선택할 것인지를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한 영적 은사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마음속의 모든 소망을 담아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영적 은사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이상으로 그것들을 키우고 활용하며 확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따르고 본받을 만한 표준을 확립해 주십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발표되었는데, 그 이면의 배경을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모두 여러분, 즉 사랑스러운 자매님들이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성역입니다. 성역에서 최고의 표준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남성들보다 그 표준에 더 가까이 계시고, 과거에도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성역을 베푸실 때, 여러분은 자신의 느낌에 따라 누군가를 도우며 그 사람이 구주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누군가에게 성역을 베풀려는 성향은 의로운 여성들에게 내재된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저는 매일 “오늘 제가 누구를 돕기를 바라시나이까?” 하고 기도하는 여성분들을 압니다.

2018년 4월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더 높고 더 거룩한 방식이 발표되기 전, 일부 남성들은 가정 복음 교육을 “완료했음”이라 표기하고 다음 할 일로 넘어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방문 교육 대상인 자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즉시 그에 응하여 도움을 주고 한 달 내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역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방식으로 올라서도록 영감을 준 것은 바로 자매님들의 방문 방식이었습니다.

둘째, 지난 연차 대회에서 우리는 또한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를 개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남성들이 그들의 책임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를



고심하던 중에 우리는 상호부조회의 모범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상호부조회에는 다양한 삶의 국면에 있는 다양한 나이의 여성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든 자매님들에게는 각각의 연령과 환경에 따른 자기만의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은 매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복음을 가르치고 성장하며, 세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범을 따라,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도 모두 하나의 장로 정원회에 속한 회원입니다. 18세에서 98세 혹은 그 이상의 연령에 속한 이 남성들은 모두 동등하게 다양한 신권 및 교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이제 더 강한 형제애로 결속되고, 함께 배우며, 더 효과적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벨스 자매와 제가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회장 양편에서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도록 주님의 청소년 대대에 지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집합은 오늘날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전이자, 가장 위대한 대업이며, 가장 위대한 사업입니다!**

이 대업에는 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저는 교회의 여성 여러분께 흠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을 도움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주시기를 선지자로서 간청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에게 소셜 미디어와 그외 여러분의 마음에 부정적이고 부도덕한 생각을 가져다주는 모든 미디어를 끄는 10일 동안의 미디어 금식에 참여하도록 권유합니다. 그 미디어 금식 기간 동안 어떤 것을 끊어 버려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10일 간의 미디어 금식의 효과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상하게 해 왔던 세상의 관점과 시각에서 잠시 자유로워지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지금 여러분이 시간과 힘을 쏟고 있는 것이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의 우선 순위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여러분이 받는 모든 느낌과 영감을 기록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촉구합니다.

둘째, 지금부터 연말까지 물몬경을 읽으시도록 권유합니다. 바쁜 삶과 해야 하는 일들 속에서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만일 여러분이 이 권유를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 이를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연구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주님께서는 더 큰 영감과 계시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물몬경을 읽으면서, 구주를 이야기하거나 그분에 대해 언급하는 모든 구절에 표시해 보시도록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²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들 모두가 구주께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심지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일요일 모임 일정과,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과 과정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새롭고도 균형 잡힌, 조율된 복음 교육 방식의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전에서 배우는 것들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죄를 지었다면, 구주께로 마음을 돌이켜 그분이 지니신 치유와 정화의 권능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일생 동안 매일 그분의 권능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셋째,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는 생활 방식을 확립하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희생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 더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당신의 신권의 힘을 여러분이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가까이 성전이 없어서 성전에 갈 수 없는 분들에게는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며 성전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도록 권합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성전에 대해 더 알고, 더 이해하며, 더 느끼고자 노력하십시오.

지난 6월에 열린 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에서 저는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폴더 폰으로 바꿔 줌으로써 삶이 변화된 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청소년의 어머니는 두려움이 없는 신앙의 여성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선교 사업을 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선택들을 해 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고, 아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성전에 가서 마음을 쏟으며 간구했습니다. 그런 뒤 그녀는 자신이 받은 모든 느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영의 인도를 통해 아들의 휴대 전화를 종종 확인하여 특정한 몇 가지를 알아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고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본 적도 없었지만, 영이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자녀를 보호하고자 인도를 구하는 부모에게 영의 도움이 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제게 화를 많이 냈지요. ... 하지만 단 사흘 만에 아이는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을 아이도 느낀 거죠.”

아들의 행동과 태도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목적

상호부조회는 다음 사항들을 통해 여성이 영생의 축복을 받도록 준비하는 일을 돕는다.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키운다.
- 의식과 성약을 통해 개인과 가족과 가정을 강화한다.
- 궁핍한 사람을 돕기 위해 단합하여 일한다.

이 문서는 [Lds.org/callings/relief-society/purposes](https://www.lds.org/callings/relief-society/purposes) 또는 [store.lds.org](https://www.store.lds.org)에서 볼 수 있다.

집안일도 더 잘 거들고, 웃음도 더 많아졌으며, 교회 모임에서도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 대리 침례 봉사와 선교 사업 준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권유는 성인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에 온전히 참여하십시오. 현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공부하도록 권고합니다. 그 목적은 영감을 줍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계발하도록 이끌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의 20년 전에 발표되었던 상호부조회 선언문에 담긴 진리를 다시금 읽고 음미해 보시기를 간청합니다.³ 이 선언문 사본이 담긴 액자가 제일회장단 사무실 한쪽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 선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흠어진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는 일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가운데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개종,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의 지도력과 지혜,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여러분 없이 이스라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이제 여러분이 이 중대하고 긴박한 사업을 도울 때 세상을 뒤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도록 축복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월요일), [hopeofisrael.lds.org](https://www.hopeofisrael.lds.org).
2. 니파이후서 25:26 참조.
3. 다음 문서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lds.org/callings/relief-society](https://www.lds.org/callings/relief-society)를 참고한다. 상호부조회 선언문은 다음을 참고한다. 메리 앨런 스무트, “시온의 딸아, 기뻐하라”,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11~114쪽.
4. 러셀 엠 넬슨, “자매님들께 드리는 간청”,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96쪽, 강조체 추가.



엠 러셀 벨라드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

저는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받은 시현이 참되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리라고 간증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저는 제 사랑하는 아내인 바버라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준비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제 가족을 대표하여 여러분이 보내 주신 사랑과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동안 주님의 축복이 저와 함께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8년 10월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영광스러운 시현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주님께 헌신적으로 봉사한 지 65년이 되어 가던 때였으며, 1918년 11월 19일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방에 앉아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영의 세계로 가셔서 펼치신 구주의 성역에 관해 사도 베드로가 서술한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읽을 때에 ... 크게 감명을 받았느니라. 기록된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내 이해의 눈이 열리고 주의 영이 내 위에 머무는지라, 내가 보니, ... 죽은 자의 큰 무리가 있더라.”¹

이 시현의 전문은 교리와 성약 13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가 이 놀라운 계시를 받기까지 평생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교회의 회장이었던 1906년에 나부를 방문하여 다섯 살 적에 경험했던 일을 추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제 삼촌인 조셉과 아버지인 하이럼이] 카테지로 말을 타고 가실 때 내가 서 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버지는 말에서 내리지 않고 안장에 앉으신 채 몸을 굽혀 나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작별 키스를 하시고는 나를 다시 땅에 내려놓으셨으며, 나는 아버지가 말을 타고 떠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²

조셉 에프 스미스가 아버지와 삼촌을 다시 본 건 그들이 1844년 6월 27일 카테지 감옥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후 나란히 주검으로 누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인 메리 필딩 스미스가 조셉을 안아 올려 두 순교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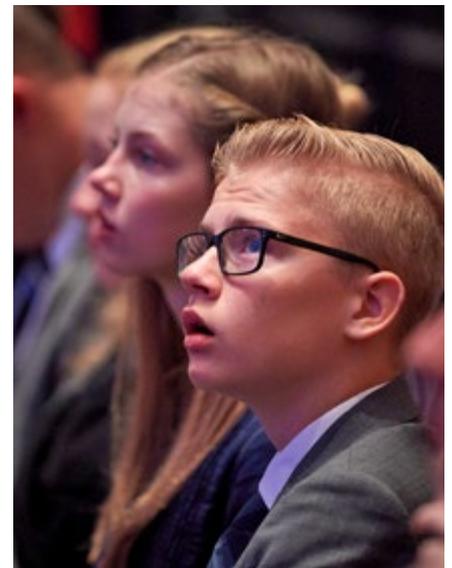
2년 후에 조셉 에프 스미스는

헌신적인 어머니 메리 필딩 스미스와 나머지 가족과 함께 나부의 집을 떠나 윈터쿼터스로 향했습니다. 아직 여덟 살이 채 되지 않았지만 조셉은 아이오와주 몬트로즈를 거쳐 윈터쿼터스, 후에는 솔트레이크밸리까지 수레를 끄는 한 무리의 소들을 몰아야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느덧 열 살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린 형제들과 청남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듣고, 소년 시절 조셉 에프 스미스에게 주어졌던 책임과 기대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불과 4년 후인 1852년, 조셉이 열세 살이었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조셉과 형제자매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³

조셉 에프 스미스는 1854년, 15세의 나이에 하와이로 선교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3년 넘게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이때부터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셉은 유타주로 돌아오고 나서 1859년에 결혼했습니다.⁴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은





1918년 10월에 받은 영광스러운 시현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아버지 하이럼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보았다.

일과 가족사, 두 차례의 추가적인 선교 사업으로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1866년 7월 1일, 27세의 나이에 브리검 영에게 사도로 성임되면서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이듬해 10월에 그는 십이사도 평의회에 생긴 공석을 채우게 되었습니다.⁵ 그는 브리검 영,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 로렌조 스노우 회장의 보좌로 봉사했고, 1901년에는 교회 회장이 되었습니다.⁶

사도로 성임된 지 일 년 후에 조셉 에프 스미스와 아내 줄리아나 사이에 첫 딸인 머시 조세핀이 태어났습니다.⁷ 그러나 그 아이는 두 살하고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조셉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제로 사랑하는 조세핀이 떠난 지 한 달이 되었다. 오!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면 어엿한 숙녀로 자랐을 텐데. 매일 그 애가 보고 싶고 외롭기 그지없다. … 하나님, 제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면, 제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⁸

그의 생애 동안 스미스 회장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한 명과, 자매 두 명, 그리고 두 아내와, 열세 명의 자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는 슬픔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아들 엘버트 제시마저 사망하자, 조셉은 누이인 마사 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주님께 아들을 살려 달라고 간청했었고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습니까?”⁹

그렇게 기도했는데 조셉 에프 스미스는 그와 관련하여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¹⁰ 그는 마사 앤에게 죽음과 영의 세계라는 주제에 관해 “하늘이 우리에게 굳게 입을 닫은 듯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을 믿는 그의 신앙은 굳건하고 확고부동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고, 스미스 회장은 1918년 10월, 한 놀라운 시현을 통해 영의 세계에 관해 그가 구했던 더 많은 응답과 위안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해는 조셉에게 유난히도 고통스러운 해였습니다. 그는 세계 대전에서 희생된 사망자 수에 비통해했습니다.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 이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해에 스미스 회장도 소중한 가족을 세 명이나 잃었습니다. 그의 장남이자 제 외조부셨던 십이사도 평의회 하이럼 맥 스미스 장로는 맹장 파열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할 말을 잊었으며 비통함으로 감각조차 없다. 내 마음은 무너지고, 꺼져 가고 있다! … 오! 나는 아들을 사랑했다! …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내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지만, 그는 장남이며, 내게 처음으로 영원하고 명예로운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준 자녀였다. 그를 주신 하나님께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드린다! 그러나! 내겐 그가 있어야 했다! 우리는 모두 그를 필요로 했다! 그는 교회에서도 크게 쓰였던 사람이었다. … 그런데 이제 …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¹¹

그다음 달에는 스미스 회장의 사위인 알론조 케슬러가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¹² 스미스 회장은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끔찍하고도 비통하며 치명적인 사고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다시 한번 침울한 먹구름을 드리웠다.”¹³

7개월 후인 1918년 9월, 스미스 회장의 며느리이자 제 조모이신 아이다 보우먼 스미스마저 다섯 번째 아기가자 제 삼촌이신 하이럼을 출산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¹⁴

그렇게 전쟁과 질병으로 희생된 수백만 명의 죽음과 자신의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극심한 슬픔을 겪고 난 이후인 1918년 10월 3일에, 스미스 회장은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이라고 알려진 하늘의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다음날 10월 연차 대회 개최 모임에서 이 시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건강이 쇠약해져 가고 있었지만, 간단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제 머릿속에 있는 많은 것들에 관해

감히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제가 느끼는 것들에 관해 말하려는 시도를 주님께서 뜻하시는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미루어 두고자 합니다. 지난 오 개월 동안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신앙과 결심의 영이 저와 함께했으며, 저는 주님의 영과 끊임없이 교통했습니다.”¹⁵

10월 3일에 받은 계시를 통해 스미스 회장은 마음의 위안과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 계시를 공부하고 그것이 우리가 매일을 사는 방식에 미치는 중요성을 깊이 생각한다면, 죽어서 영의 세계로 가게 될 우리의 미래에 대해 우리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미래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시현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았는데 그중에는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영의 세계에 있는 충실한 자들을 방문하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시현에서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의로운 자들 가운데에서 그는 자기 군대를 조직하사 사자들을 임명하시고 권능과 권세를 입히시고 그들로 나아가 복음의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에게 가지고 가도록 임무를 맡기셨으니,¹⁶ 이같이 하여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느니라. ...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 죄 사함을 위한 대리 침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의 다른 모든 원리도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

이는 죽은 자들은 자신들의 영이 자신들의 육체로부터 오래 떠나 있음을 속박으로 여겼음이라.



이들을 주께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사,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나와서, 그의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 그 곳에서 불멸과 영생으로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주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의 일을 계속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간직해 두신 모든 축복의 참여자가 되게 하셨느니라.”¹⁷

스미스 회장은 시현 중에 아버지 하이럼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보았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 나무에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후로 74년 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삼촌을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할지 우리는 그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스미스 회장은 모든 영이 살아 있을 때의 육체와 닮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약속된 부활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 영감받고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과,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비할 데 없는 그분의 속죄 권능의 깊이와 범위에 관하여 더 충만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¹⁸

그 시현을 받은 지 100주년을 맞는 이 특별한 절기에, 저는 여러분이 이 계시를 깊이 생각하며 꼼꼼히 다시 읽어 보기를 권유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구원과 행복의 계획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받은 시현이 참되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읽고 그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리라고 간증합니다. 인생에서 이 지식을 얻지 못한 자들은 분명 모든 이들이 영의 세계에 당도하게 될 때 그 지식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이들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약속된 부활, 즉 영과 육신이 재결합하여 다시는 분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양할 것입니다.¹⁹

제 사랑하는 아내 바버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우리가 가족과 다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항상 지탱해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38:6, 11.
2. Joseph F. Smith, in Preston Nibley, *The Presidents of the Church* (1959), 228.
3. Joseph Fielding Smith, *Life of Joseph F. Smith* (1938), 13.
4. 조셉 에프 스미스는 1859년에 트리바 클라크, 1866년에 줄리나 램슨, 1868년에 세라 리차즈, 1871년에 에드나 램슨, 1883년에 엘리스 김볼, 1884년에 메리 슈워즈와 결혼했다.
5. 조셉 에프 스미스는 제일회장단(브리검 영, 히버시 김볼, 대니얼 에이치 웰스)의 추가 보좌로 부름받았다. 그는 또한 제일회장단에서 세 명의 교회 회장, 즉, 존 테일러 회장, 윌포드 우드럽 회장, 로렌조 스노우 회장의 제2보좌로 봉사했다.
6. 조셉 에프 스미스는 제일회장단에서 브리검 영 회장의 보좌로 봉사했고,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 로렌조 스노우 회장의 제2보좌로 봉사했다. 그는 회장으로 부름받기 전에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했던 첫 번째 교회 회장이었다.
7. 조셉 에프 스미스의 첫 아이인 머시 조세핀은 1867년 8월 14일에 태어나 1870년 6월 6일에 숨졌다.
8. Joseph F. Smith, journal, July 7, 1870, Church History Librar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Salt Lake City, Utah.
9. Joseph F. Smith to Martha Ann Smith Harris, Aug. 26, 1883, Church History Library; see Richard Neitzel Holzzapfel and David M. Whitchurch, *My Dear Sister: The Letters between Joseph F. Smith and His Sister Martha Ann* (2018), 290-91.
10.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꿈, 계시, 시현을 통해서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개인적인 삶과 사도이자 교회의 회장으로서 그의 성역을 이끄셨다. 주님으로부터 온 이와 같은 소중한 은사들은 그의 일지, 설교, 회고록, 그리고 교회의 공식 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11. Joseph F. Smith, journal, Jan. 23, 1918, Church History Library; spelling and capitalization modernized; see Joseph Fielding Smith, *Life of Joseph F. Smith*, 473-74.
12. See "A. [P.] Kesler Is Killed in Fall from a Building," *Ogden Standard*, Feb. 5, 1918, 5.
13. Joseph F. Smith, journal, Feb. 4, 1918, Church History Library.
14. See "Ida Bowman Smith," *Salt Lake Herald-Republican*, Sept. 26, 1918, 4.
15. Joseph F. Smith, in Conference Report, Oct. 1918, 2.
16. "우리의 영화로운 어머니 이브"와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 충실한 그의 딸들"에 관한 참조 성구 참조(교리와 성약 138:39).
17. 교리와 성약 138:30, 33-34, 50-52.
18. 시현의 내용은 스미스 회장이 1918년 11월 19일 세상을 떠난 지 11일 후인 1918년 11월 30일 자 *Deseret News*에 처음으로 실렸다. 또한 12월호 *Improvement Era*와 1919년 1월호 *Relief Society Magazine*,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Young Women's Journal*, *Millennial Star*에 게재되었다.
19. 멸망의 자식들도 부활하겠지만, 그들은 영광의 왕국을 받을 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엘마서 11:41; 교리와 성약 88:32-35 참조.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
본부 청년 회장

목자가 됨

여러분이 성역을 베푸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고, 여러분이 그들의 대변인이자 막역한 친구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일 년 전 칠레에서 만난 한 초등학교 어린이가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안녕하세요, 전 다비드예요. 연차 대회에서 제 이야기를 해주실래요?"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조용히 다비드가 건넨 뜻밖의 인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기 원합니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기억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자매와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중요합니다.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십니다.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다면, 주께서 "[여러분]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음"을 깊이 생각해보십시오.¹

우리를 향한 구주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구주께 어떻게 가장 잘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 나를 ...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하자 주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근심하였지만, 그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²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임을 이미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해변에서 구주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³ 베드로는 진정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구주께서 친히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함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베드로의 곁에 계실 수 없음을 아셨기에 그에게 언제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주께서 곁에 계시지 않을 때 베드로는 영의 인도를 구해야 하고, 스스로 계시를 받아야 하며, 행동할 용기와 신앙을 가져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양에 집중하여 그가 계셨더라면 하셨을 일을 베드로가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난 4월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비슷한 제안, 즉 성역을 통해 더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고 제안하셨습니다.⁴

이 제안을 효과적으로 따르기 위해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함양하고 주님의 양들의 필요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질문에 답이 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의 양들을 아시고, 헤아리시며, 지키시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모으셨습니다.

알고 헤아림을 받음

구주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의 양을 알고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모든 무리가 헤아림 받고 잊힌 자가 없도록, 특정한 개인과 가족을 맡아 돌보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헤아리기 위해서 수를 셀 때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헤아리는 일의 핵심은 구주를 대신해 섬기는 자를 통하여 각 사람이 그분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알고 계심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한 청년은 자기보다 거의 다섯 배나 나이가 많으신 자매님의 성역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음악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청년이 방문할 때 둘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서로 좋아하는 노래를 나눔으로써 서로의 삶에 축복이 되는 우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역을 베푸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고, 여러분이 그들의 상황을 알고, 그들의 희망과 염원을 지지해 주는 대변인이자 막역한 친구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최근에 저와 제 성역 동반자는 잘 모르는 한 자매님의 성역자로 지명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의논할 때, 열여섯 살인 제 성역 동반자 제스는 지혜롭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그분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즉시 셀카를 찍어 우리를 소개하는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들고 제스가 카메라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반자와 힘을 모아 성역을 위한 첫 번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이 자매님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녀를 위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우리가 기도해 주면 너무나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매님의 솔직함과 신뢰 덕분에 우리들 사이에 즉각적인 사랑의 유대가 생겨났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그녀를 기억하는 것은 달콤한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역을 베풀고 있는 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양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것보다 양을 먹이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지킴

목자의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의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무엇이든지 거의 다 움직이고, 고치고,

보수하고, 재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도움의 손길이나 쿠키 한 접시를 건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일까요?

우리의 양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자신들을 지키고 있으며, 자신들을 돕기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와 ...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 ... 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 ... 나이까”⁵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보고**입니다. 의인들은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는 중이었기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도움을 주고 위로하고, 축하하며 잠재력을 볼 수 있도록 살피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음 약속이 참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⁶

제 친구 존(익명)은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누군가의 필요 사항을 눈여겨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다음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와드의 한 자매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두 달이 지난 후, 나는 우리 정원회에서 아무도 그 자매의 남편에게 이 충격적인 일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저 또한 시도하지 않았죠. 마침내 저는 그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는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매님이 자살을 시도하셨는데, 많이 힘드셨지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싶네요.’라고 말하자, 그는 마구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속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울 만큼 가까워지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존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진솔함과 사랑으로 직접 다가가려 하기보다는 그저 간식을 가져다주고 말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⁷

우리의 양은 상처가 있거나, 길을 잃었거나, 일부러 무리를 떠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목자인 우리는 그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성신의 분별하는 인도를 받아 희망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매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건네는 영감 어린 친절함의 행동으로 인해 세상은 더 희망차고 즐거운 곳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역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는 데에서 주님의

인도를 구할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거룩한 성역의 임무로 인해 여러분은 영감을 받을 신성한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영감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모음

셋째, 우리는 양들을 하나님의 우리 안에 모으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이 성약의 길 어디에 있는지 고려하여, 신앙의 여정에 기꺼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특권입니다.

피지에 사는 조시비니 자매는 성약의 길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보는 일이 실제로 어려웠습니다. 조시비니의 친구는 그녀가 경전을 읽기 힘들 만큼 시력이 나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조시비니에게 새 안경과 밝은 노란색 색연필을 구해 주고, 물문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표시하게 했습니다. 성역을 베풀고 경전 공부를 돕고자 하는 단순한 열의로 시작한 일의 결과로 조시비니 자매는 침례받은 지 28년 만에 처음 성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양이 강하건 약하건, 즐거워하건 화가 나 있건,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 견디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딛도록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주께서 그들 앞으로 가실 때 “[그들을 둘러싼] 천사들”⁸이 될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방법으로 그의 양을 먹이라고 권유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국가와 모든 나라에서 목자가 되라고 권유하십니다. (맞습니다, 우흐트도르프 장로님. 우리는 독일인 목자[German sheperd, 즉 독일산 셰퍼드 견종을 이르는 영단어와 동일 — 옮긴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은 젊은이들이 이 대업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청소년들은 가장 강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주님께서 이 지상에 보내신 이들 중 가장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고귀한 영들”이며, 구주를 따르는 “가장 뛰어난 선수들”입니다.⁹ 그런 목자들이 주의 양을 돌볼 때 어떤 힘이 발휘될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 청소년들과 나란히 성역을 베풀며 우리는 기적을 봅니다.

청녀와 청남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성역 지명을 받지 않았다면 상호부조회 회장이나 장로 정원회 회장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분들은 주의 양을 알고 헤아리며, 지키고, 하나님의 우리로 모으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여러분의 뜻에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주의 발 앞에 무릎 꿇는 날, 우리가 그의 양 떼를 먹여 왔기에 베드로처럼 “주님 그러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¹⁰ 당신의 이 양들은 사랑받았고, 안전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전서 21:16.
2. 요한복음 21:15~17 참조; 강조체 추가.
3. 마태복음 4:20 참조.
4. 러셀 엠 넬슨, “성역”, 리야호나, 2018년 5월호, 100쪽 참조.
5. 마태복음 25:34~35, 37~38; 강조체 추가.
6. 마태복음 25:40.
7. 개인적인 대화.
8. 교리와 성약 84:88.
9.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hopeofisrael.lds.org.
10. 요한복음 21:15.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화해의 성역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이들과 화해할 때 우리 영혼에 평안이 찾아올 것임을 간증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할 만큼 온유하고 용감하다면 말입니다.

지난 4월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성역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셨을 때, 회장은 우리가 성역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¹ 저희는 이 점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보여 주신 엄청난 반응에 교회 본부 직원으로서 박수를 보내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를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일에서 다른 지침을 더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바로 뛰어들어 헤엄쳐 가십시오. 배영으로 가야 할지 개해염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원리들을 지키고, 신권 열쇠를 지닌 지도자들과 발 맞추며, 성령의 인도를 구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좀 더 개인적인 측면의 성역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임무 지명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며, 접견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 외에는 보고드릴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성역의 예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트 모델 보웬은 근면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감자 작황이 나빠지자

그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보웬 형제와 그의 아내 노르마는 다른 직업을 구했고, 이후에 새로운 도시로 이주하였으며, 힘겹게 경제적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감독과 성전 추천서 접견을 하던 보웬 형제가 온전하게 십일조를 내고 있다는 자신의 말에 감독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감정이 무척 상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성전 추천서 접견에서 보웬 자매는 추천서를 갱신했지만, 보웬 형제는 화가 난 채로 밖으로 나갔으며, 그 일로 15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십일조에 관하여 누가 옳았는지와는 상관없이, 두 사람 모두 “[대적과] … 급히 [화해]하라”라는 구주의 명령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²라는 바울의 권고를 분명 잊었던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은 화해하지 않았고, 해가 진 뒤에도 보웬 형제는 분을 품은 채로 여러 날, 여러 주, 그리고 여러 해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느 현명한 고대 로마인의 다음 말이 옳았음을 입증해 줍니다. “억제되지 않은 분노는 그 분노를 촉발한 상처보다 종종 더 [파괴적]이다”⁴ 그러나 화해의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또 자신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다시 교회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웬 형제의 아들인 브래드는 우리 가족의 친구이며, 아이다호주 남부에서 지역 칠십인으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일이 있었을 때 열한 살이었던 브래드는 그로부터 15년 동안 아버지의 신앙이 약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오해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거두게 되는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1977년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무렵, 당시 브리검 영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스물 여섯 살의 브래드는 짐을 챙겨 아내 말레리와 새로 태어난 갓난 아들 믹을 그들의 낡은 차에 태우고는, 악천후를 뚫고 몬태나주 빌링스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웨스트 엘로스톤 근처에서 눈더미를 맞이받는





할지라도 보웬 형제에게 성역을 베풀러 길을 나선 이 세 사람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브래드와 여동생 팜은 아버지께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브래드는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정말 훌륭한 아버지셨어요.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는 항상 알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런지가 꽤 오래되었죠. 아버지가 한 번 상처받으신 일로, 온 가족이 수년 동안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세요.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는데 부디, 부디 그 감독님과 의 안 좋았던 일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예전처럼 우리 가족을 다시 복음 안에서 이끌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보웬 형제는 그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인⁵ 이 두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마.”

뜻밖의 대답에 기쁨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브래드와 가족들은 그들의 남편이자 아버지가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화해의 마음으로 지금의 감동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보웬 형제에게 교회로 다시 돌아오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었던 감동은 이 용감하고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아 그저 보웬 형제를 꼭 안아 주었고, 그렇게 열싸안은 채 긴 시간,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교회로 돌아오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웬 형제는 교회에 완전히 활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회원 수가 25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작은 지부를 맡으라는 부름을 받아들였고, 그곳을 100명이 훌쩍 넘는 곳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성역을 베풀고자 했던 한 아들과 딸의 간절한 호소와 타인의 결집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아버지의 각오가 있었기에 보웬 가족은 지금까지도 축복을 받고 있고 그 축복은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⁶ “너희 가운데 논쟁이 없”게⁷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니파이인들에게는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⁸ 진정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상당 부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은 최소한 그것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 내게로 오기를 원할 때, 네 형제가 너를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네 형제에게로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⁹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누군가의 마음이나 가족 또는 지역 사회의 평안을 해치는 오래된 상처, 슬픈 사건, 고통스러운 기억 등을 얼마든지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준 사람이든 또는 그 고통을 받은 사람이든, 그런 상처는 치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여러분 대신 늘 확인해 주는 냉장고 속 음식들처럼, 이 목은 상처들도 그 유효기간을 넘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에 더 이상 그런 상처가 머물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에서 프로스페로는 후회하고 있는 알론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로 우리의 기억에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마시다.”¹⁰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라고 가르치셨습니다.¹¹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리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¹²





하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지 않으셨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 때문에 비통한 경험을 하더라도 고통이나 슬픔을 느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려면 해로운 관계라도 그것을 유지해야 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끔찍한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참된 치유의 길에 발을 내디딜 때 그 고통을 넘어서실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 모두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¹³라고 말씀하시는 나사렛 예수께서 걸으셨던 용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이 하신 대로 행하라고 권유하시며, 또 그분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도록, 즉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말했듯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고 하십니다.¹⁴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모든 잘못을 바로잡으시는 그분은, 다른 방법으로는 평안을 찾기 힘든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힘겨운 과제를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청하십니다.

필립스 브룩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젠가는 해결하겠다고 작정만 한 채 괴로운 오해를 수년간 품고 사는 사람이나, 바로 지금 자신의 교만을 접고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마음 먹기가 힘들어 불쾌한 싸움을 오랫동안

끌어 온 사람이나, 누군가에게 악의를 품고 고의로 말을 걸지 않은 채 길거리에서 그들을 지나쳐 버리는 사람이나, 언젠가는 해야지 생각만 하면서 한 마디 감사의 말이나 공감의 말을 미루는 바람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그 일을 하십시오. 지금이 아니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¹⁵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과거나 현재의 상처를 용서하고 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간중드립니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영적 치유는 오직 우리의 신성한 구속주이자 “그의 날개에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¹⁶ 서둘러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중드립니다. 새롭게 되고 거듭나고, 묵은 슬픔도 과거의 잘못도 없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음에 구주와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그저 가능하지만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흘린 피로 상징되는 심히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구주께서 제게 주신 사도의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이들과 화해할 때 우리 영혼에 평안이 찾아올 것임을 간중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할 만큼 온유하고 용감하다면 말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간청하십니다. “서로 다투기를 그치라.”¹⁷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치료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는 화해의 성역에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평안을 사랑하고,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이루고, 평안을 소중히 여기기를 우리 각자에게 요청합니다. “친구의 집에서 받[는] 상처”가¹⁸ 어떤 것인지 모두 다 아시는, 그러나 그것들을 용서하고 잊고, 치유하고, 행복해질 힘을 찾으신 평강의 왕의 이름으로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간구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22:36~40; 누가복음 10:25~28 참조.
2. 마태복음 5:25.
3. 에베소서 4:26.
4. Seneca, in Tryon Edwards, A Dictionary of Thoughts (1891), 21.
5. 창세기 2:23 참조.
6. 교리와 성약 42:45.
7. 제3니파이 11:22; 또한 제3니파이 11:28 참조.
8. 제3니파이 11:29.
9. 제3니파이 12:23~24; 강조체 추가.
10. William Shakespeare, The Tempest, act 5, scene 1, lines 199–200.
11. 누가복음 6:37.
12. 교리와 성약 64:10.
13. 누가복음 18:22.
14. 고린도후서 5:18~20 참조. (역자 주—“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해당하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은 이 말씀에서 “화해의 성역”이라고 번역되었음)
15. Phillips Brooks, The Purpose and Use of Comfort (1906), 329.
16. 말라기 4:2 참조; 또한 니파이후서 25:13; 제3니파이 25:2 참조.
17. 교리와 성약 136:23.
18. 스가랴 13:6; 또한 교리와 성약 45:52 참조.



세인 엠 보웬 장로
칠십인

개종에서 몰몬경이 하는 역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모으고 있으며, 그 일은 주님의 영광 연합할 때 개종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몰몬경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관해 거의 또는 전혀 모릅니다. 30여 년 전, 에스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 세상의 많은 이들이 구주의 신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경이로운 탄생과 완전한 삶, 그리고 그분의 영화로운 부활의 실재성에 의문을 품습니다.”¹

오늘날 사람들의 질문은 구주뿐 아니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그분의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관해서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대개 구주의 교회의 역사나 가르침, 또는 관행에 집중됩니다.

몰몬경은 우리의 간증이 자라게 도와줍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행복의 계획에 관한]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현대의 선지자들, 즉

조셉 스미스와 그의 계승자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한다. 따라서 구도자가 답을 얻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며, 그들은 몰몬경을 읽고 그에 대해 기도함으로써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다.”²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을 공부함으로써,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신성한 부름에 대한 저의 간증이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몰몬경의 참됨을 알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는 모로나이의 권유대로 행했습니다.³ 그 책이 참됨을 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 지식을 “성신의 권능으로” 알게 되었으며, 여러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⁴

몰몬경의 소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성스러운 증거를 얻는 사람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조셉 스미스는 이 마지막 날에 그분의 계시자요 선지자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준비로서 다시 한 번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왕국이라는 사실도 같은 권능으로 알게 될 것이다.”⁵

저는 칠레로 부름받은 젊은 선교사 시절에 몰몬경이 지닌 개종의 힘에 관해 삶을 뒤바꿀 만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곤잘레스 씨는 여러 해 동안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존경받는 직분에서 봉사했던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신학 학위를 가진 데다가 종교에 관해 광범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상당히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종교학자였음은 누가 봐도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도시인 페루의 리마에서 봉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선교사들에 관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선교사들을 만나 성경에 관해 한



수 가르쳐 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 두 명이 거리에서 그를 불러세우더니 집에 방문하여 경전 가르침을 나누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곤잘레스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릇된 길로 빠져든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곤잘레스 씨는 이를 기쁘게 수락하며 자기 집으로 와서 경전에 관해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약속한 날짜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사용하여 선교사들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선교사들의 믿음의 잘못된 점을 명확하고도 상세하게 짚어 낼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녁, 선교사들이 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들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는 문을 열고 선교사들을 맞이했습니다. 선교사 중 한 명이 그에게 파란색 책 한 권을 주고는, 자신은 그 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음을 안다는 진지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도 조셉 스미스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현대의 선지자가 그 책을 번역했으며, 그 책은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친다고 자신의 강한 간증을 덧붙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양해를 구하고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곤잘레스 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책을 펴서 대강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를 읽더니 다음 날 늦은 오후까지 멈추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는 책을 전부 읽고는 그것이 참됨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선교사 토론을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 이전의 삶을 버렸습니다.



그 선한 분은 유타주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저를 가르치신 교사였습니다. 곤잘레스 형제님의 개종 이야기와 몰몬경의 권능은 제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제가 칠레에 도착했을 때, 선교부 회장님인 로이든 제이 글레이드 회장님은 저희에게 ‘조셉 스미스—역사’에 기록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매주 읽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첫번째 시현에 대한 간증과 복음 및 몰몬경에 대한 우리의 간증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권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첫번째 시현의 기사를 읽었고 몰몬경도 읽었습니다. 저는 모로나이가 명한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몰몬경이 참된지를 기도로 여쭙었습니다.⁶ 조셉 스미스가 간증했던 대로, 저도 몰몬경이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간증합니다.⁷ 선지자 조셉은 또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몰몬경과 계시를 없애 버린다면, 우리의 종교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⁸

개인적인 개종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또 몰몬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때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개종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더 강해집니다.

몰몬경의 주된 목적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집합으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성약의 길로 들어올 기회를 얻으며, 또한 그 성약들을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개종자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 때 우리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것입니다.

몰몬경에는 이스라엘의 집에 관해 108차례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몰몬경 앞 부분에서 니파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나의 뜻하는 바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 나아와 구원받게 하려는 것임이라.”⁹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니파이는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나의 부친은 이방인들에 관하여서 많이 말씀하셨으며, 또한 이스라엘



집에 관하여서도 많이 말씀하셨으니, 곧 그들이 그 가지가 꺾여 온 지면에 흩어질 감람나무에 비유될 것이라 하셨느니라. ...

또 이스라엘 집이 흩어지고 난 후, 그들은 다시 함께 모이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즉 요컨대 이방인들이 복음의 충만함을 받은 후, 감람나무의 원가지들 즉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이 그들의 주이시며 그들의 구속주이신 참 메시아에게로 접목될 것이니, 즉 그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라 하셨느니라.”¹⁰

이와 마찬가지로, 몰몬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지자 모로나이는 우리가 맺은 성약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혼란하게 되지 않게 하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게 맺으신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약이 성취되게 하라.”¹¹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약

모로나이가 말한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약”이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니, 나는 시작부터

끝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내 손이 네 위에 있으리라.

또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고 내가 네게 한량 없이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모든 나라 가운데서 크게 할 것인즉, 너는 네 뒤를 이을 네 자손에게 복이 되리니,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이 성역과 신권을 지니고 모든 나라에게 전하리라.”¹²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최근 전 세계에 전하는 방송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은 분명 후기이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을 서두르고 계십니다. 이 집합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규모, 중요성, 장엄함에서 이것과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원한다면 그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고, 장대하며, 장엄한 일의 중대한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합을 말할 때, 우리는 단순히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는 휘장 양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들을 자격이 있다. 그들이 더 알기 원한다면 그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¹³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개종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후기에 집합을 돕는 자들”입니다.¹⁴ 우리의 임무는 분명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모로나이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기 위해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며, 이 지식을 말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사람들이 됩시다.

개종에서 몰몬경의 역할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충만함을 담고 있습니다.¹⁵ 이 책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성약으로 이끌어 주며, 우리가 이 성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영생이 보장될 것입니다.¹⁶ 몰몬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아들과 딸을 개종으로 이끄는 종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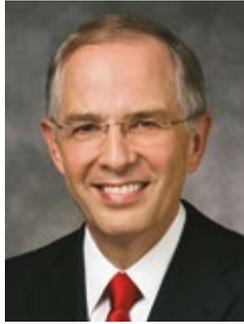
넬슨 회장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 매일 몰몬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집합의 교리를 배우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진리, 그리고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그분의 복음의 충만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은 이스라엘의 집합의 중심이 됩니다. 사실, 몰몬경이 없다면, 약속된 이스라엘의 집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¹⁷

구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가르치신 약속된 축복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요, 또 아버지께서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성약에 속한 자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¹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며, 이스라엘 집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모으고 있으며, 그 일은 주님의 영과 연합할 때 개종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물문경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집합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문경은 참됩니다. 그 책은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모로나이와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약속했듯이, 저도 물문경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¹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테프트 벤슨(2014), 129쪽.
2. “물문경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18), lds.org/manual/missionary.
3. 모로나이서 10:4.
4. 모로나이서 10:4.
5. 물문경 소개.
6. 모로나이서 10:4.
7. 물문경 소개.
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96쪽.
9. 니파이전서 6:4.
10. 니파이전서 10:12, 14.
11. 모로나이서 10:31.
12. 아브라함서 2:8-9.
13.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8쪽, HopeofIsrael.lds.org.
14. 야곱서 5:72 참조.
15.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은 물문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교리와 성약 20:9)이 들어 있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책에 이제까지 제시된 모든 가르침과 모든 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충만한 교리를 물문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책은 분명하고 간결하게 가르치므로 어린이이라도 구원과 승영에 이르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131쪽)
16. 교리와 성약 14:7 참조.
17.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 6쪽.
18. 제3니파이 20:25.
19. 예를 들어, 헨리 비 아이어링,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줄 물문경”, 리아호나, 2004년 2월호, 13~18쪽 참조.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상처 입은 자

우리가 지상에서 호된 시련을 겪는 동안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구주께서 지니신 치유의 권능은 우리에게 빛과 이해, 평안과 소망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20 16년 3월 22일 오전 8시 무렵, 브뤼셀 공항에서 폭탄 두 개가 폭발하는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리처드 놀비 장로와 메이스 웰스 장로, 조셉 앰피 장로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선교부로 떠나는 패니 클레인 자매를 공항으로 데려온 참이었습니다. 그날 서른두 명이 목숨을 잃었고, 모든 선교사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선교사 중에 가장 심각하게 부상을 당한 사람은 아내인 팸 놀비 자매와 함께 봉사 중이던 66세의 리처드 놀비 장로였습니다.

놀비 장로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는 리처드 놀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곧바로 알았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뛰어가려고 했지만, 금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 왼쪽 다리가 심하게 다친 것이었습니다. 양손에서 거미줄 같은 검은 그을음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살살 잡아당겨 보니 그것은 그을음이 아니라 그을린 제 피부였습니다. 등에 입은 부상 때문에 제 흰 셔츠가 붉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머릿속에 명확해지자, 한 가지 생각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 바로, 구주께서는 제가 어디에 있고,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이 순간 제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것이었습니다.”¹

리처드 놀비와 그의 아내 팸은 그 후로 힘겨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의사는 리처드를 혼수상태에 들게 하여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병균에 감염되었고, 생존 가능성은 불확실했습니다.

그 후 목숨은 건졌지만, 리처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년 반이 지난 지금도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았으며, 부상당한 다리 부위에는 보조기가 있습니다. 그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브뤼셀 공항에서 일어난 사고의 순간 이전과는



리처드 놀비와 팸 놀비.

드립니다.

왜 리처드와 팸 놀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² 그들은 이제껏 성약에 충실했습니다. 이전에도 아이보리코스트에서 선교 사업을 했으며 훌륭하게 가정을 이뤘습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불공평해요! 이 건 옳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생을 바치고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것이 필멸의 삶입니다

그 모습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예기치 못한 시험과 시련의 비극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이번 모임에서 말씀하시는 연차 대회의 연사분들을 생각해 보니, 두 분은 자녀를, 그리고 세 분은 손주를 예기치 않게 하늘로 떠나보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질병과 슬픔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지상에 온 천사이셨던, 우리가 사랑하는 바버라 벨라드 자매님께서 바로 이번 주에 회장 저편으로 떠나셨습니다. 벨라드 회장님, 우리는 오늘 아침에 회장님께서 나눠 주신 간증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평화를 갈망합니다. 사랑을 염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나 행복과 더불어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 잠시, 몇 시간, 며칠, 때로는 몇 년 동안 아픔을 느낄 때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우리가 쓴 것과 단 것을 모두 맛볼 것이며³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⁴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⁵

영혼의 상처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특정 문화나 국가나 세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멸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배움의 일부입니다.

의로운 자들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만 예기치 못한 고통스러운 시련과 고난을 겪는 놀비 부부와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전 세계의 남성, 여성, 어린이께 특별히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재해나 불의의 사고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충실하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의로운 배우자와 자녀들의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면서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어둠과 암울함, 예상치 못한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나 때 이른 죽음, 신앙을 잃은 가족을 보는 안타까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영원한 동반자가 없을 때의 외로움, 그 밖에도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온갖 “보이지 않는 슬픔”에서도 상처가 생깁니다.⁶

우리는 모두 그러한 어려움이 인생의 일부임을 이해하면서도, 막상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면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⁷ 시련과 비극이라는 어두운 씨실은 행복과 기쁨의 밝은색 날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직물에 깊숙이 짜여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은 힘겹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사가 되곤 합니다.⁸

힐라멘의 이천육십 명의 용사에 관한 기적적인 이야기를 전할 때, 우리는 다음 구절을 즐겨 읽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좇아 그들 중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우리가 크게 놀라고 또한 우리의 온 군대가 다 기뻐하였느니라.”

구절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많은 상처를 입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⁹ 이천육십 명의 용사 한 명 한 명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인생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 근원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언제 혹은 어디서 생기든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멸망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남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신뢰를 통해 생활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속죄의 은사를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처에서 비롯한 슬픔과 고통에서 언제나 우리를 구하시고자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¹⁰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¹¹ 지상에 오신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다.¹²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피해 지나가도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그분은 우리의 상처에 치유의 향유를 바르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고 가시며, 돌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¹³

“[예수께서] ...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깊어지시려] ... 하심이라. ... 또 [우리의] 연약함을 깊어지시리니, ... 그의 심정[이] 자비로 충만하[심이라].”¹⁴

오라, 슬픔에 잠긴 너희 어디 있든지
자비로운 보좌로 나와 무릎 꿇고
상한 마음 내려놓고 내 괴로움 말하라
하늘이 치유 못 할 땅의 슬픔 없도다.¹⁵

선지자 조셉이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시기에,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¹⁶ 어떻게 고통스러운 상처가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상에서 호된 시련을 겪는 동안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구주께서 지니신 치유의 권능은 우리에게 빛과 이해, 평안과 소망을 가져다줍니다.¹⁷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실재하심,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붙들십시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¹⁸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강력한 영적 치료제입니다.¹⁹ 구주의 다음 약속을 기억하며 계명을 지키고 보혜사를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²⁰

성전에서 얻는 평안은 상처 입은 영혼을 진정시키는 유향입니다.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과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가지고 가능한 한 자주 주님의 집으로 가십시오. 성전은 우리가 사는 필멸의 짧은 순간을 영원이라는 대형 화면에 비취 줍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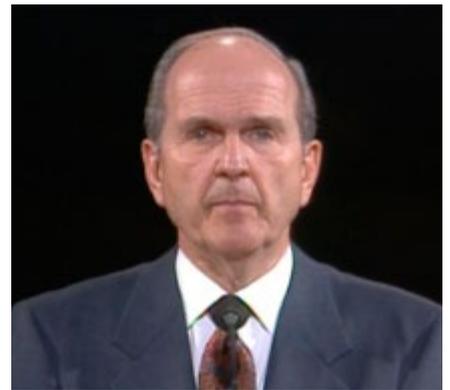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세에서 우리가 자신의 합당성을 입증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용감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승리했고,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는 곤경과 슬픔은 매우 힘들지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²²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날개에 치료함을 가지고 떠오르[셨기]” 때문입니다.²³

놀비 부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담이 가끔 저희를 찾아오지만, 절대 머무르도록 두지는 않습니다.”²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 옥여쌘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라].”²⁵ 힘겨우시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²⁶



넬슨 회장은 푸에르토리코의 성도들에게 말씀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1995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딸 에밀리에 관해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열쇠를 지니셨음을 간증했다.

자신의 입은 고통스러운 상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²⁷ 하신 구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자신도 상처를 입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돌보는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이제 몇 분 뒤면, 우리는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소망과 화평을 지니셨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시지만, 그분도 영혼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셨습니다.

1995년에 그분의 따님인 에밀리가 임신 중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아기가 태어날 무렵에는 기쁘고 행복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이 재발했고 가족이 사랑하는 에밀리는 서른일곱 번째 생일 2주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다섯 자녀를 남겨 두고 말입니다.

따님을 떠나보낸 직후에 열린 연차 대회에서, 벨슨 회장님은 이렇게 속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제 딸[에게] … 더 잘해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니 슬픔의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만약 부활의 권능이 있었다면 [딸을] 다시 살리고 싶은 충동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열쇠를 지니고 계시며, 주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면 에밀리[와] … 모든 사람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²⁸

지난달에 푸에르토리코의 성도들을 방문하신 벨슨 회장님은 작년에 엄청난 파괴력으로 불어 닥쳤던 허리케인을 떠올리시며 사랑과 연민을 지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얻고 시련과 시험을 받기 위해 지상에 왔습니다. 그런 시험 중에는 육체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곳에서 육체적이고 영적인 시련을 모두 겪고 계십니다.”²⁹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충실한 성도 여러분은 많은 것을 잃으셨지만, 이 모든 것을 겪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게 기르셨습니다.”³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³¹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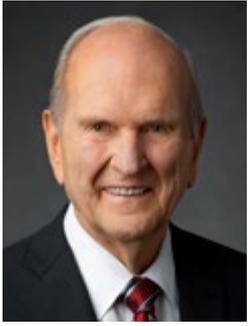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커지면 더 큰 힘과 소망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치유자께서는 의로운 여러분을 위해 당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상처를 모두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³² 불의와 박해, 시련과 슬픔, 고통과 상처가 아무리 깊고 넓고 고통스러워도, 그분이 펼친 팔과 못 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그분의 면전으로 다시 맞으실 때 우리에게 베푸실 위로와 평안과 지속적인 희망 앞에서 그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날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의로운 자들이³³ “하나님의 보좌 앞에 … 흰 옷”을 입고 서리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³⁴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개인적인 대화, 2018년 1월 26일.
2. 리처드 놀비는 올해 초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반응합니다.” 그는 자신이 일지에 쓴 다음의 내용을 나누어 주었다. “개개인이 겪는 시험과 시련은 구주를 더 잘 알아가고 그분의 속죄 희생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와 특권을 제공한다. 우리가 기대는 분은 그분이다. 우리가 찾는 분도 그분이다. 우리가 의지하는 분도 그분이다. 우리가 신뢰하는 분도 그분이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분도 그분이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필멸의 삶에서 겪을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짊어지셨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덜어 주신다.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신다.”
3. 교리와 성약 29:39 참조.
4. 니파이후서 2:11.
5. 마태복음 5:45.
6. “Lord, I would Follow Thee”, *Hymns*, no. 220.
7. 베드로전서 4:12.
8.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에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아브라함서 3:25, 또한 교리와 성약 101:4-5 참조)
9. 엘마서 57:25.
10. 한 친구가 나에게 다음의 편지를 보냈다. “5년 가까이 갖가지 감정적인 ‘암흑과 우울’을 겪으며 전쟁을 치르고 보니 능력도, 결심도, 신앙도, 인내도

바닥을 드러냈다네. ‘고통’이 며칠간 계속되면 피곤해지고, 몇 주간 계속되면 기진맥진해지지. 몇 달간 계속되면 나약해지고, 몇 년이 계속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굴복하고 말아. 모든 은사 중에서도 희망은 가장 고귀하면서도 설명하기 힘든 것이지. 요컨대, [구주]가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냈는지 모르겠다네.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네. 어떻게 아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정말 알고 있네. 그분 덕분에 난 이겨냈다네.”

11. 누가복음 4:18; 이사야 61:1 참조.
12. 누가복음 10:30~35 참조.
13. 제3니파이 18:32.
14. 엘마서 7:11~12. “그는 만물 아래로 … 내[려와] … 만물을 이해하였나니.”(교리와 성약 88:6)
15. “Come, Ye Disconsolate,” *Hymns*, no. 115.
16. 교리와 성약 122:7.
17.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아나니, 그가 너의 고난을 성별하시니 너의 유익이 되게 하시리라.”(니파이후서 2:2)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시련과 그 곤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들림을 받을 것임이니라.”(엘마서 36:3)
18. 고린도후서 12:9.
19. See Neil L. Andersen, “The Joy of Becoming Clean,” *Ensign*, Apr. 1995, 50–53.
20. 요한복음 14:18.
21.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린도전서 15:19)
22. 니파이는 물문경의 첫 번째 구절에서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 왔[다]”라고 설명한다. (니파이전서 1:1)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온종일 그를 찬양하였고,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를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니파이전서 18:16)
23. 제3니파이 25:2.
24. 개인적인 대화, 2018년 1월 26일.
25. 고린도후서 4:8~9.
26.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휴 비 브라운 회장은 아브라함이 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라는 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 관하여 배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in Truman G. Madsen, *Joseph Smith the Prophet* [1989], 93).
27. 마태복음 16:25.
28. 러셀 엠 넬슨, “성약의 자녀”,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32~35쪽.
29. Russell M. Nelson, in Jason Swensen, “Better Days Are Ahead for the People of Puerto Rico,” *Church News*, Sept. 9, 2018, 4.
30. Russell M. Nelson, in Swensen, “Better Days Are Ahead,” 3.
31. Russell M. Nelson, in Swensen, “Better Days Are Ahead,” 4.
32. 러셀 엠 넬슨, “예수 그리스도—위대하신 치유자”,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85~87쪽 참조.
33. 요한계시록 7:14.
34. 요한계시록 7:13, 15, 17 참조.



러셀 엠 넬슨 회장

교회의 정확한 명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권능으로 가득 찬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름다운 안식일에 우리는 주님께 받은 많은 축복을 생각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에 정말 감사하고, 그분의 성약의 길에 남고 또 돌아오기 위해 여러분이 치른 희생에 감사하며, 그분의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매우 중대한 사안을 논의해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교회의 이름을 바로잡는 사안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¹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의 이름으로 직접 제정하셨던 바로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이름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²

예상하시듯이, 이 성명과 교회 명칭에 대한 새로운 스타일 가이드³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많은 회원이 그들의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서 교회의 이름을 즉시 수정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왜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강조해야만 했는지 이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불가능한 일을

왜 시도하냐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 문제에 대해 그리 신경을 쓰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런 노력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명칭 변경이 아닙니다.
-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 어떤 걸치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 갑작스러운 변덕이 아닙니다.
- 별 의미 없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이것은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이 교회가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지만, 그 이름은 그가 지은 것도, 물몬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 이름은 구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직접 정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의 교회는 이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일컬어질 것임이니라.”⁴

그보다 이른 서기 34년에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미대륙에 있던 그분 교회의 회원들에게 이와 비슷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당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를 내 이름으로 칭할지니라” …

내 이름으로 일컫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이겠느냐? 만일 어떠한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모세의 교회일 것이요, 만일 교회가 어떠한 자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어떠한 자의 교회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내 교회니.”⁵

그러므로, 교회의 이름은 협상하고 절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주께서 “나의 교회는 이렇게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교회의 이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언하셨을 때, 그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의 별칭을 용인하거나, 이에 적응해 가거나, 심지어 그런 별칭 사용을 장려한다면, 그분께서는 불쾌해하십니다.

이름에는, 혹은 별칭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교회의 별칭들, 즉 “LDS 교회”, “몰몬 교회”, 또는 “후기 성도 교회”라는 별칭들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구주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사탄에게 큰 승리वाद 같습니다. 우리가 구주의 이름을 제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들, 심지어 그분의 속죄까지도 점차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전세에서 여호와이셨고 구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이 세상과 다른 세상들의 창조주이셨습니다.⁶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 다른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로서 육신을 입고 지상에 낮추어 오신 그분은 심하게 매도당하고, 핍박당하며,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셋째마네 동산에서, 우리 구주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제까지 살았고 또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이 겪을 모든 고통, 모든 죄, 그리고 모든 비통함과 괴로움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극심한 짐의

무게로 인해, 그분은 모든 땀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⁷ 이 모든 고통은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실 때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 격렬한 고통과 이어진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즉 그분의 무한한 속죄를 통해서, 그분께서는 모든 이에게 불멸을 선사하셨고 회개의 조건하에 우리 각자를 죄의 영향력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구주께서 부활하시고 사도들이 죽고 난 뒤, 세상은 암흑 속에서 배도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1820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교회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 전더 내시고 감내하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회복된 교회가 다른 이름들로, 그것도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 버린 이름들로 불리는 것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매주 일요일 우리가 함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거룩한 약속을 새롭게 합니다. 바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겠다는 약속 말입니다.⁸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회개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항상 그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교회에서 그분의 이름을

생략할 때, 우리는 무심코 우리 삶의 중심에서 그분을 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선언하고 증거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몰몬”이라고 부르는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구주를, 그리고 그분의 교회가 마땅히 불려야 할 이름을 지켜 내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집단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 즉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치유하며 강화하고 영화롭게 해 주어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영에 이르게 하는 그 권능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그 권능의 근원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교회를 그분께서 정하신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그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 주님의 교회는 “몰몬 교회”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 회원인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에 누가 서 계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타깝게도, 몰몬이라는 용어를 듣는 많은 이들이 우리가 몰몬을 숭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고대 미 대륙에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로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합니다.⁹ 그러나 우리는 몰몬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교회가 막 회복된 초기 시대에 몰몬 교회 또는 몰몬들과 같은 용어들은¹⁰ 종종 경멸과 모욕의 뜻을 담은 별칭으로서, 이 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된 사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없애 버리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¹¹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이름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 여러 세상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즉각적으로 찾아 주는 검색 엔진을 최적화하기 위함이라는 관점에서, 비평가들은 지금 이 시기에 교회 이름을

바로잡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처사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미 “몰몬들” 또는 “몰몬 교회”로 너무 널리 알려져 있기에 오히려 이를 더 활용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인간이 만든 조직의 명칭에 대한 논의였다면, 그런 의견이 힘을 얻고 채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은 언제나,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충실히 행한다면, 이 중요한 과업을 주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압니다. 니파이가 바다를 건널 배를 만들 과업을 완수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셨듯이 말입니다.¹²

이렇게 잘못된 이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중하고 인내심 있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책임 있는 미디어들은 이와 같은 우리의 요청에 대해 이해심을 가지고 반응할 것입니다.

예전 연차 대회에서 벤자민 데 호요스 장로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 멕시코 교회 홍보 사무실에서 봉사할 때 [제 동료와 제가] 한 라디오 토크쇼에 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프로그램 진행자들 중 한 명이 저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왜 이렇게 긴가요?’ ...

저와 동반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질문을 받았기에 싱긋 웃으며, 우리 교회 이름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름은 ... 구주께서 ...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진행자는 즉시 정중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다시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¹³

이 이야기는 우리가 따라야 할 한 가지 방식을 보여 줍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생겨난 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¹⁴ 우리를 올바른 이름으로 불러 달라는 이 요청에 세상 사람들이 응할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부터 잘못된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이 교회와 그 회원들을 잘못된 이름으로 부른다고 실망하고 낙담한다는 건 표리부동한 일입니다.

개정된 스타일 가이드가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를 처음으로 언급할 때는 이름 전체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칭한다. 약칭이 필요할 때는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용어가 권장된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또한 정확한

표현으로 권장된다.”¹⁵

만일 누군가가 “몰몬이세요?”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냐고 물으시는 거라면,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 “후기 성도세요?”라고 물으면,¹⁶ 여러분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회복된 교회의 회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이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후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껏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권능과 축복을 부으실 것이라 약속드립니다.¹⁷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권능을 얻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축복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의 이름에 대해 묻는 것이라면, 그 답은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권능으로 가득 찬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날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교회의 이름으로 직접 제정하셨던 바로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이름의 중요성을 제 마음에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에 맞추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과 부서들이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중대한 사안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앞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러셀 엠 넬슨, “교회 명칭” [공식 선언문, 2018년 8월 16일], mormonnewsroom.org)
2. 이전 교회 회장들도 이와 비슷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를 몰몬 교회라 부름으로써 주님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 교회를 몰몬 교회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Conference Report, Apr. 1948, 160).
3. “스타일 가이드—교회 명칭”, mormonnewsroom.org 참조.



4. 교리와 성약 115:4.
5. 제3니파이 27:7~8.
6. 모세서 1:33 참조.
7. 교리와 성약 19:18 참조.
8. 모로나이서 4:3; 교리와 성약 20:37, 77 참조.
9. 물문은 물문경의 주된 네 명의 저자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다른 세 명으로는 니파이, 야곱, 모로나이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주님을 목격했으며, 물문경을 영감으로 번역했던 선지자 조셉스미스 역시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10. *Mormonites* 라는 말도 조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see *History of the Church*, 2:62 – 63, 126)
11. 다른 별칭들은 신약 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벨릭스 앞에서 이루어진 사도 바울의 재판 중에,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24:5) “나사렛”이란 용어가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한 평론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칭호는 보통 그리스도인을 경멸하는 의도로 부를 때 쓰였다. 그 칭호가 그렇게 사용된 이유는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Albert Barnes, *Notes, Explanatory and Practical, on the Acts of the Apostles*[1937], 313).
 이와 유사하게, 또 다른 평론가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경멸의 뜻과 함께 ‘나사렛’ 사람으로 불렸기에(마태복음 26:71), 유대인들은 그분의 제자들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했다. 그들은 제자들을 기독교인, 즉 메시아의 제자들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The Pulpit Commentary: Acts of the Apostles*, ed. H. D. M. Spence and Joseph S. Exell [1884], 2:231)
 이와 관련하여,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꼬리표를 붙여 그들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선지자들은 동시대 사람들과 현세적인 역사가들 사이에서 단순히 무시되곤 했습니다. 결국,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저 ‘나사렛 이단’에 불과했습니다. (사도행전 24:5)” (“희미한 데서”, *성도의 벗*, 1985년 1월호, 9~10쪽, 번역 수정.)
12. 니파이전서 18:1~2 참조.
13. 벤자민 데 호요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106쪽.
14.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방식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교회 회원들이 교회의 올바른 이름을 존중하고 이를 정확히 부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15. “스타일 가이드—교회 명칭”, mormonnewsroom.org.
16. 성도라는 말은 종종 성경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한에서 그는 성도라는 단어를 각 장에 적어도 한 번은 썼습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7. 교리와 성약 121:33 참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4. 교리와 성약 115:4.
5. 제3니파이 27:7~8.
6. 모세서 1:33 참조.
7. 교리와 성약 19:18 참조.
8. 모로나이서 4:3; 교리와 성약 20:37, 77 참조.
9. 물문은 물문경의 주된 네 명의 저자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다른 세 명으로는 니파이, 야곱, 모로나이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주님을 목격했으며, 물문경을 영감으로 번역했던 선지자 조셉스미스 역시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10. *Mormonites* 라는 말도 조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see *History of the Church*, 2:62 - 63, 126)
11. 다른 별칭들은 신약 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벨릭스 앞에서 이루어진 사도 바울의 재판 중에,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24:5) "나사렛"이란 용어가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한 평론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칭호는 보통 그리스도인을 경멸하는 의도로 부를 때 쓰였다. 그 칭호가 그렇게 사용된 이유는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Albert Barnes, *Notes, Explanatory and Practical, on the Acts of the Apostles*[1937], 313).
이와 유사하게, 또 다른 평론가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경멸의 뜻과 함께 '나사렛' 사람으로 불렸기에(마태복음 26:71), 유대인들은 그분의 제자들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했다. 그들은 제자들을 기독교인, 즉 메시아의 제자들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The Pulpit Commentary: Acts of the Apostles*, ed. H. D. M. Spence and Joseph S. Exell [1884], 2:231)
이와 관련하여,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꼬리표를 붙여 그들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선지자들은 동시대 사람들과 현세적인 역사가들 사이에서 단순히 무시되곤 했습니다. 결국,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저 '나사렛 이단'에 불과했습니다. (사도행전 24:5) ("회미한 데서", *성도의 빛*, 1985년 1월호, 9~10쪽, 번역 수정.)
12. 니파이전서 18:1~2 참조.
13. 벤자민 데 호요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106쪽.
14.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방식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회원들이 교회의 올바른 이름을 존중하고 이를 정확히 부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15. "스타일 가이드—교회 명칭", mormonnewsroom.org.
16. 성도라는 말은 종종 성경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한에서 그는 성도라는 단어를 각 장에 적어도 한 번은 썼습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7. 교리와 성약 121:33 참조.

노력, 노력, 노력

구주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타인과 여러분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이번 대회로 고무되고 고양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노래와 말씀은 성신을 통해 우리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도 그렇게 영을 통해 여러분께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미국 동부에서 지방부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했습니다. 지방부 회장님은 작은 지부들을 방문하러 가는 차 안에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형제님이 누구를 만나든 그들이 큰 곤경에 처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십시오. 절반

이상은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경우가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곤경에 처해 있는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생활이 우리 각자에게 시험이자 성장의 밑바탕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자녀들에 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¹

태초부터 이 시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필멸의 육신으로 인해 오는 시련들을 겪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에 대적하고 우리 개인의 행복을 해치려는 사탄의 전쟁이 점점 더 격심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요동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장담컨대,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또한 마련하셨습니다.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돕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²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겻세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죄의 결과를 경험하셨으므로, 인생의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³

여러분은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하신 다음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시나니,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만큼,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즉 나는 너희 가운데 있나니, 나는 선한 목자요, 이스라엘의 반석이니라. 이 반석 위에 세우는 자는 결단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⁴

우리의 선지자이신 러셀 엠 넬슨 회장님도 똑같은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아가, 그분은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서 시련을 헤쳐 나갈 인도를 받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두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잠시나마 낙담을 경험할 수도 있는 여러분,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시련을 견뎌 내야 하며 슬픔을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누가복음 1:37 참조)을 떠올릴 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들과 딸입니다. 합당함을 통해 여러분은 의로운 노력에 도움이 되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1:20 참조)”⁵

넬슨 회장님의 말씀은 성찬 기도에 나오는 약속, 즉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이루시는 그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으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⁶

우리를 위해 이 기도가 올려지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빵을 취함으로써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영이 항상 함께하시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기에, 구주께서는 우리가 처하는 모든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고 두려움 없이 딛고 설 수 있는 반석이 되십니다.

저는 이 성약의 말씀과 그에 따른 약속된 축복을 숙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찬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하려 한다**는 증거입니다.(교리와 성약 20:77 참조)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마음만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그 성스러운 이름을

실제로 받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⁷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이름을 받”들려 한다는 말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구주의 이름을 처음으로 받았었지만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일이 침례 때 끝난 것이 아님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일생에 걸쳐 그분의 이름을 받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성찬식에서 성약을 새로이 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성약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 가지 결정적인 질문은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발전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넬슨 회장님의 말씀이 한 가지 유용한 답을 제시합니다. 회장님은 우리가 구주의 이름을 받들 수 있고 그분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대저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에게 외인이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먼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⁸

그분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은 신앙의 기도를 요합니다. 우리가 구주의 사업을 돕기 위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열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라는 약속에 걸맞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⁹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받드는 일은 그분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 이상을 요합니다. 그분의 종이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 마음에 지녀야 할 감정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몰몬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받을 자격을 얻고 또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감정들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에는 신앙, 소망,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포함됩니다.

몰몬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너희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내가 판단함이라. 이는 만일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의 교회의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소망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노라. 너희가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어찌 신앙에 이를 수 있느냐?

또 너희가 바라야 할 바는 무엇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영생으로 일으키심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할지니, 이는 약속대로 그를 믿는 너희의 신앙으로 인한 것이니라.

그런즉 사람이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만 하나니, 이는 신앙 없이는 아무 소망도 있을 수 없음이라.

그리고 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가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신앙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느니라.

만일 그러하면 그의 신앙과 소망은

헛것이라. 이는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이라. 또 만일 사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신의 권능으로 시인하려면,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나니, 이는 만일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가 아무것도 아님이라. 그런즉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느니라.”

몰몬은 사랑에 대해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딜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임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우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하며, 그가 순결하신 것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게 할지어다. 아멘.”¹⁰

구주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 대다수의 신앙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소망과 희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타인과 여러분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에게서 순수한 사랑을 봅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관해 이야기하는 회원들에게서도 그것을 봅니다. 남자와 여자와 청소년과 어린이들까지도 주님과 그들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성역을 베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난 소식이 전해지는 즉시 회원들은 구조에 나설 계획을 세웁니다. 때로는 부탁받지 않았더라도 바다 건너까지 가서 봉사합니다. 피해 지역에서 봉사자들을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늘 청중 가운데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사로잡혀 신앙과 소망을 느끼지 못한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느끼기를 갈망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나눌 기회를 여러분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대신해서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로 인도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서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대신해서 봉사하고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심을 느낄 것입니다. 곤경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울 때, 여러분의 문제는 더 가볍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소망은 강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 진리를 목격했습니다. 일생에 걸쳐 제 아내를 주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주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봉사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감독님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와드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저는 늘 서둘러 도우러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가 보면 언제나 형제님의 자매님께서 이미 다녀가셨습니다.” 지난 56년 동안 우리가 살았던 모든 곳에서 그랬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하루 종일 몇 마디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아내가 주님을 대신하여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내를 방문합니다. 매일 밤과 아침에 저는 아내와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를 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저입니다. 때로 아내가 찬송가 가사에

맞춰 입술을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아내는 어린이 노래를 더 좋아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노래는 “주
예수를 닮으려고”인 것 같습니다.¹¹

며칠 전 후렴 부분인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서
친절하려고 노력하라]”를 부른 후에 아내는
작지만 분명하게 “노력, 노력,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한국어 가사에는 영어의 “Try to
show kindness in all that you do”가 번역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하였음—옮긴이) 저는
아내가 주님을 뵈 때 우리 구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아내의 마음에 두셨고 그녀가
그분처럼 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지금 아내가 어려움을
헤쳐 나가도록 그녀를 돕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구주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그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분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속죄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기꺼이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자 할 때, 여러분은 수많은 이들의
짐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은 자신이 구주를 더 잘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이름으로 불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제 가족과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사랑과 친절에 감사하며, 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아브라함서 3:25.
2. 요한복음 3:16~17 참조.
3. 엘머서 7:11~12 참조.
4. 교리와 성약 50:43~44.
5. 리셀 엠 벨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도의 빛, 1988년 7월호,
40쪽.
6. 교리와 성약 20:77.
7. 델린 에이치 옥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 성도의 빛, 1985년 7월호, 91쪽.
8. 모사이야서 5:13.
9. 교리와 성약 1:38.
10. 모로나이서 7:39~44, 47~48.
11. “주 예수를 닮으려고”, 어린이 노래책, 40쪽 참조.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처럼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야
합니다.

제 아내 멜린다는 평생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청소년이 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분의 본성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멜린다는 슬픔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계명을 지켰습니다. 몇 년 전, 아내는
일련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그분의 사업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고, 그분은 우리의
성공에 개인적으로 관여하시며, 우리가
당신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교훈과 경험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확신한다. 그리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좀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두려움을 떨치고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걱정과 불안보다는 평안과
확신이 느껴진다. 내가 판단을 받고 있다는
생각 대신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나의 신앙은 더 확고해졌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자주, 더 깊이 느낀다.”¹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온전하심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승영을 얻을 만한 신앙을 행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입니다.²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매우 사랑하시고 우리가 당신처럼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돕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성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께 관한 주요 교리들을 가르침으로써 우리 각자가,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참된 성품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 대해 더 큰 신앙을 행사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전세

전세에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영의 자녀로 태어나 그분들과 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³ 그분들은 우리를 아셨으며,

우리를 가르치고 사랑하셨습니다.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 영화로운 불멸의 육체를 얻는다.⁵
2. 신권의 인봉 권능에 의해 결혼하고 가족을 이룬다.⁶
3. 모든 지식과 권능, 그리고 신성한 속성을 얻는다.⁷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⁸ 부활을 통해 죽지 않고 영화롭게 될 육체를 얻고, 이생에서, 또는 기회를 갖지 못한 충실한 이들은 다음 생에서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며,⁹ 완전을 향해 진보하고, 종국에는 하늘 부모님께로 돌아가서 그분들과,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승영과 영원한 행복의 상태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¹⁰

경전에서는 이것을 구원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¹¹ 우리는 이 계획을 매우 감사하게 여겼으므로, 그것이 발표되었을 때 기뻐서 소리를 쳤습니다.¹² 우리 각자는 신성한 속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지상

생활의 경험과 도전을 포함하여, 그 계획의 조건들을 받아들였습니다.¹³

지상 생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그분의 계획 안에서 진보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으로 낳으시고¹⁴ 그분이 지상에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신성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¹⁵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택의지를 주십니다.¹⁶ 우리의 삶은 그분의 손안에 있으며, 우리의 “날은 알려져 있고”, “더 짧게 헤아림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¹⁷ 그리고 그분은,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¹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¹⁹ 이 양식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힘이 모두 포함됩니다.²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은사들을 주시며,²¹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²² 그분은 우리가 청할 때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고,²³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²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²⁵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강점과 약점, 선택에 의거하여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경험을 주십니다.²⁶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필요하다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²⁷ 그분은 “모사”이시며,²⁸ 우리가 청한다면 조언해 주실 것입니다.²⁹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에 성신의 영향력과 성신의 은사를 보내 주십니다.³⁰ 성신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곧 예지와 빛과 권능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³¹ 만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할 때까지 우리가 빛과



진리 속에서 성장하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영생에 인봉하시기 위해 약속의 성령을 보내시고,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³²

내세

다음 세상인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성신을 부어 주시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십니다. 그분은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도가 부족한 사람도 대리로 구원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³³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부활을 가능하게 할 권능을 주셨으며,³⁴ 이로써 우리는 불멸의 몸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구주의 구속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가게 되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³⁵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에³⁶ 의지하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영화로운 육체를 받고³⁷ 그분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³⁸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며³⁹ 우리가 그분처럼 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도록 도와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⁴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 그분이 지니신 성품의 특성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그분의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님 아버지는 “무궁[하고] 영원”하시다.⁴¹
- 그분은 온전히 공의롭고 자비롭고 친절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바라신다.⁴²



-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⁴³
- 그분은 성약을 지키신다.⁴⁴
- 그분은 변하지 않으신다.⁴⁵
-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⁴⁶
-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⁴⁷
- 그분은 태초부터 만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신다.⁴⁸
- 하나님 아버지의 총명함은⁴⁹ 모든 사람의 총명함보다 더 뛰어나다.⁵⁰
- 아버지께서는 모든 권능을 지니셨으며⁵¹ 염두에 두신 것은 모두 행하신다.⁵²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관점을 지니셨기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기쁨과 사업과 영광은 우리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시는 것입니다.⁵³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바라”십니다.⁵⁴ 그리고 그분은 “[우리]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데 꼭 필요한 만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⁵⁵ 결과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보하도록 돕는 데 집중하십니다.⁵⁶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영의 아들과 딸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처럼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야 합니다.⁵⁷ 구주께서 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⁵⁸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함으로써⁵⁹ 우리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은혜로 은혜를 받”아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총만함을 얻고⁶⁰ “그분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온전하심”을 부여받게 됩니다.⁶¹

필멸의 존재인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간극을 고려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 도달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지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경전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수하고, 회개하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될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노력한다면 “은혜로 은혜를 받[고]” 궁극적으로 “그의 총만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서 저는 크나큰 위안을 얻습니다.⁶² 다시 말해, 우리는 혼자의 힘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될 수 없습니다.⁶³ 그것은 은혜의 은사들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큰 은사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작은 은사가 쌓이고 쌓여 우리는 총만함에 이를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승영에 이르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점을 믿고, 매일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권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는 것에 관하여 많은 것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⁶⁴ 그러나 제가 분명히 간증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⁶⁵ 이 지상 생활에서 우리가 치르는 희생이 얼마나 크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맞출 무한한 기쁨과 행복과 사랑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⁶⁶ 우리가 요구받는 희생은 치를 만들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우시다면, 구주께서 하신 다음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직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고, 지금은 너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도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⁶⁷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필자 소유의 메모; see also D. Melinda Ashton, “Fear Not, Only Believe” (Brigham Young University Women’s Conference, Apr. 28, 2016), byutv.org.
2. *Lectures on Faith* (1985), 38.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하늘 어머니”, 복음 주제, topics.lds.org 참조.
4.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그분을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존재인 아버지, 곧 *아빠*라고 부르려 한다고 언급했다.(로마서 8:15 참조)
5. 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6. 교리와 성약 132:19~20 참조.
7. 마태복음 5:48 참조; 또한 베드로후서 1:3~8 참조.
8. 이러한 조건에는 첫째 지체를 지키는 것을 비롯해서(아브라함서 3:26 참조) 지상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신권 권세를 지닌 사람에게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으며, 끝까지 견디는 것 등이 포함된다.(제3니파이 27:16~20 참조)
9. 멜린 에이치 욱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는 ‘하지만 저는 어떻습니까?’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훌륭하고 합당한 후기 성도들이 현재 자신의 진보에 꼭 필요한 조건과 이상적인 기회들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서, 죽음이 일어나서, 이혼을 해서 이상이 좌절되고 약속된 축복이 제때 성취되지 못합니다. … 하지만 이러한 좌절은 단지 일시적인 일일 뿐입니다. 주님은 계명을 지키고, 성약에 충실하며, 옳은 일을 하고자 소망하는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 영원히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위대한 행복의 계획”,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75쪽)
10. 모사이야서 2:41 참조.
11. 엘마서 42:5 참조; 그것은 또한 구속의 계획과(예를 들어 야곱서 6:8 참조) 행복의 계획(엘마서 42:8, 16 참조)으로도 불린다.
12. 욱기 38:4~7 참조.



13. 예를 들면, 히브리서 5:8; 12:11; 이터서 12:27 참조. 우리의 이해력이 제한되어 있기에, 적어도 처음에는 지상 생활에서 직면하는 몇몇 어려움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축복 중 일부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의견상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14. 누가복음 1:31~35; 요한복음 1:14; 니파이전서 11:18~21; 경전 안내서, “예수 그리스도”, scriptures.lds.org 참조.
15. 교리와 성약 93:4~5, 16~17, 19~20 참조.
16. 모세서 7:32 참조.
17. 교리와 성약 122:9.
18. 로마서 8:28 참조.
19. 마태복음 6:11 참조.
20. 엔 엘덴 태너, “기도의 중요성”, *성도의 벗*, 1974년 8월호, 37~41쪽 참조.
21. 누가복음 11:10~13; 야고보서 1:17 참조.
22. 누가복음 11:5~10; 제3니파이 13:6 참조.
23. 마태복음 6:13 참조.
24. 모세서 7:31~40 참조.
25. 야고보서 1:17 참조.
26. 요한복음 15:1~2; 교리와 성약 122:6~7 참조.
27. 히브리서 12:5~11; 교리와 성약 95:1 참조.
28. 모세서 7:35.
29. 엘마서 37:12, 37 참조.
30. 요한복음 14:26; 니파이후서 31:12 참조.
31. 요한복음 17:21~23, 26; 교리와 성약 93:36 참조.
32. 교리와 성약 76:53; 88:67~68 참조.
33. 베드로전서 4:6 참조.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는 자신이 침례를 주었던 사람이 교회에 가입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제가 알게 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그의 조상들은 여러 해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지상에 있는 가족 중 누군가가 자기들을 위해 문을 열어 주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이 사람의 집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in Melvin R. Ballard, Melvin J. Ballard, *Crusader for Righteousness* [1966], 250)
34. 물론서 7:5~6 참조; 또한 요한복음 5:21, 26; 고린도전서 6:14; 니파이후서 9:11~12; 엘마서 40:2~3; 제3니파이 27:14 참조.
35. 요한복음 5:22; 야곱서 6:9; 엘마서 11:44; 힐라맨서 14:15~18 참조.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아담의 타락에서 비롯된 모든 결과가 극복될 수 있다.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도 그 결과에 포함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 두 가지 사망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한 이들은 둘째 사망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힐라맨서 14:15~18 참조)

36. 니파이후서 2:8.
37. 교리와 성약 76:56; 88:28~29 참조.
38. 모사이야서 2:41.
39. 요한계시록 7:17 참조.
40. 모세서 7:30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해의 영광에 속한 다른 존재들의 성역을 통해 달의 왕국에 거하는 이들을 지켜보고 돌보시며(교리와 성약 76:77, 87 참조) 성신과 천사들의 성역을 통해 별의 왕국에 속하는 이들을 지켜보고 돌보신다.(교리와 성약 76:86, 88 참조)
41. 모세서 7:35; 또한 시편 90:2 참조.
42. 시편 103:6~8; 누가복음 6:36; 모세서 7:30 참조.
43. 요한1서 4:16 참조.
44. 교리와 성약 84:40 참조.
45. 야고보서 1:17 참조.
46. 민수기 23:19 참조.
47. 사도행전 10:34~35 참조.
48. 니파이전서 9:6; 교리와 성약 130:7 참조.
49. Dictionary.com은 총명(intelligence)을 “학습, 추론, 이해 및 유사한 형태의 정신 활동을 위한 능력; 진리, 관계, 사실, 의미 등을 파악하는 재능”과 “지식”으로 정의한다.
50. 아브라함서 3:19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영화롭게 되신 완전한 존재로, 모든 사람보다 더 총명하시다.
51. 요한계시록 21:22 참조.
52. 아브라함서 3:17 참조.
53. 모세서 1:39 참조.
54. 리차드 지 스코트, “주님을 신뢰함”,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17쪽.
55. 리차드 지 스코트, “주님을 신뢰함”, 17쪽.
56. 요한복음 5:22; 모세서 1:39 참조.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는 사탄과 우리 자신이다.(요한계시록 12:10; 엘마서 12:14 참조)
57. 요한복음 4:23; 교리와 성약 18:40; 20:29 참조.
58. 제3니파이 11:11; 교리와 성약 93:11~19 참조.
59. 회개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잘못한 일을 회개할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
60. 교리와 성약 93:19~20 참조.
61. *Lectures on Faith*, 38; 또한 모로나이서 7:48; 10:32~33; 교리와 성약 76:56, 94~95; 84:33~38 참조.
62. 교리와 성약 93:20; 강조해 추가.
63. 모로나이서 10:32~33; 교리와 성약 76:69, 94~95 참조.
64. 왜 하나님은 그분처럼 되는 과정을 더 많이 계시할 수 없으신가. 혹은 계시하지 않으시는가? 사실 필자가 그 이유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두 가지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가 처한 필멸의 상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교리와 성약 78:17 참조) 이것은 마치 중세 시대 사람에게 인터넷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맥락과 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뇌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럴 때 은혜의 은사가 주어지곤 한다.
65. 우리는 완전히 이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희생을 요구받는다.
66. 로마서 8:18 참조.
67. 교리와 성약 78:17~18



로버트 시 게이 장로
칠십인 회장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보고, 그분이 봉사하신 것처럼 봉사하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본향과 끝없는 행복으로 데려다주기에 충분함을 신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충실히 받들기를 바랍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최근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이 이 교회를 계시던 명칭으로 부르라고 하셨을 때, 저는 경전에서 구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교회의 이름에 관해 말씀하신 부분을 펼쳐 보았습니다.¹ 구주께서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분이 또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곧 나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습니다.²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나는 구주의 이름을 그분이 명하신 대로 받들고 있는가?”³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받은 몇 가지 영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보기 위해 충실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보십니까?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일부는 자비심 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반면, 우주의 위대한 아버지는 아버지와 같은 보살핌과 관심으로 온 인류를 보십니다. ...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⁵

몇 년 전에 제 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님은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활동적인 회원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매형은 아내와 양육해야 할 네 명의 어린 자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누님이 숨을

거두던 저녁에 저는 그 방에 조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누님이 평안히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녀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너무도 자주 누님의 삶을 시련과 비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규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 손을 누님의 머리 위에 올렸을 때, 영이 저를 강하게 꾸짖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누님의 선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누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삶에 힘겨워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겪어 보지 못한 어려운 일들에 맞서야 했던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저는 누님을 커다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명의 훌륭한 자녀들을 길러 낸 참으로 위대한 어머니로서 보게 되었습니다. 누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돌봐 드리고 벗이 되어 드렸기에, 저는 누님을 어머니의 친구로서 보게 되었습니다.

누님과 함께한 그 마지막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묻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신성한 존재임을 보지 못하느냐?”

브리검 영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에게 … 남성과 여성을 우리의 자태가 아닌 그들 자체로 이해해 주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⁶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저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어’라고 말합니까? …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욕설과 거짓말을 하거나 …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 그런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 [판단하기 보다는] 인내하고 기다려 주십시오.”⁷

구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진 무거운 짐을 못 보고 지나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구주께서는 사마리아인, 간음을 범한 자, 세리, 나병환자, 정신 질환자, 죄인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였으며, 구속받을 수 있는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신이 거할 곳이 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 혹은 어떤 형태로든 시련을 겪는 자들을 외면하시는 구주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⁸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각 영혼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패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생의 가능성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⁹

누님의 침대맡에서 영의 꾸짖음을 받으며 저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볼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 하나는 우리가 어루만지는 이들의 구속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의 구속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업을 행하고 그분이 봉사하신 것처럼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큰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집합시키고,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합니다.”¹⁰ 우리는 주님의 회복된 교회의 성약과 의식을 받고 그에 따라 생활합니다.¹¹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 및 다른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십니다.¹²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삶에서 하늘의 권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¹³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결하게 됩니다.¹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¹⁵ 우리 죄를 회개하고,¹⁶ 하나님께로 돌이키고,¹⁷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함으로써¹⁸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¹⁹

저는 최근에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님의 삶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는 제가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봉사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탈매지 장로님이 사도가 되기 전, 젊은 교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끔찍한 전염병인 디프테리아가 기승을 부리던 1892년에 그분은 한 낮선 비회원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로님이 살던 곳 근처에 살았는데, 디프테리아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전염병이 돌던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탈매지 장로님은 곧바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엔 네 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놓인 두 살배기 아이는 죽어 있었고, 다섯 살짜리와 열 살짜리 아이는 심하게 앓고 있었으며, 열세 살짜리 아이는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슬픔과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탈매지 장로님은 시신을 수습하고 생존자를 돌보았으며, 방을 청소하고, 더러워진 옷을 버리고, 병균이 득실거리는 더러운 걸레를 불태웠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시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열 살 난 아이가 밤사이에 죽었습니다. 장로님은 다섯 살 난 아이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그 아이가 기침을 하자 피가 섞인 점액이 그분의

얼굴과 옷에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장로님은 “나는 그 아이를 내려놓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셨으며,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그 가족이 죽은 세 아이들을 묻는 일을 도우셨으며, 슬퍼하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세탁해 주었습니다. 탈매지 장로님은 집으로 돌아와 입고 있던 옷을 버리고 아연 용액으로 몸을 씻은 뒤, 가족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가법계 디프테리아를 앓으셨습니다.²⁰

우리 주위에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하게 되고,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모든 사람에게 성역을 베풀으므로 구주의 이름을 받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의 삶이 구원받게 됩니다.²¹

마지막으로, 저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기 위해선 그분을 신뢰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석했던 어느 일요일 모임에서,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그 애는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애는 교회를 떠난 지금이 더없이 행복하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구주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의 삶이] 나의 복을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역사나, 악마의 역사 위에 세워졌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잠시 [너희의] 일에 기쁨을 누리나, 차차 마지막이 이르[느니라.]”²²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서는 영속적인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임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선한 지인들과, 아무래도 그들에게는 벽한 일일 수밖에 없는 계명들에 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²³ 저는 주님이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²⁴ 주님은 혈투병에 걸린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²⁵

제가 좋아하는 경전 구절 중 하나는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입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좋아할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굳이 가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해서 사마리아를 멀리 돌아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소외된 사람들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자, 그것도 당시 멸시받는 이들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는 죄 지은 여자를 택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상처, 중독, 의심, 유혹, 죄, 붕괴된 가정, 우울증과 불안감, 살 집이 없는 상황, 만성적인 질병, 빈곤, 학대, 절망, 외로움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 각자가 항상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²⁶ 그분은 당신께서 치유할 수 없는 아픔, 당신께서 끝없는 기쁨을 선사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바라십니다.²⁷

그분의 은혜는 충분합니다.²⁸ 그분은 홀로 만물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의 속죄가 지닌 권능은 삶의 모든 짐을 극복하게 하는 힘입니다.²⁹ 우물가에 있던 여인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을 아시며³⁰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간에 언제나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주님은 그 여인과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³¹

삶의 어느 순간에서든, 여러분을 치유하고 구원할 모든 권능을 유일하게 지니신 구주로부터 등을 돌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웁시다.

계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을 드리건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선지자를 통해 인도하시는 구주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보고, 그분이 봉사하신 것처럼 봉사하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본향과 끝없는 행복으로 데려다주기에 충분함을 신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충실히 받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3니파이 27:3~8 참조.
2. 제3니파이 27:5~6; 또한 교리와 성약 20:77 및 성찬 성약 참조.
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것에 관해 자세히 공부하려면 *Dallin H. Oaks, His Holy Name* (1998)을 참고한다.
4. 모사이아서 5:2~3 참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었던 베냐민 왕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난 마음의 큰 변화 중 하나는 그들의 눈이 열려 “위대한 식견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해의 왕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것같이 보”는 사람들이다. (교리와 성약 76:94)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년), 28쪽.
6. Brigham Young, *Journal of Discourses*, 3:369.
7.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1954), 278.
8. 제3니파이 17:7 참조.
9. 요한복음 3:14~17; 사도행전 10:34; 니파이전서 17:35; 니파이후서 26:33; 교리와 성약 50:41~42; 모세서 1:39 참조.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또한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자신 있게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분께 향하는 이들이 박탈당하고 상실할 모든 것을 예측했으며, 중국에는 그 모든 것을 보상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가지신 것보다 적게 받도록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52쪽)
10. 마태복음 5:14~16; 22:35~40; 모사이아서 3:19; 교리와 성약 50:13~14; 133:5; 또한 러셀 엠 넬슨, “흠어진 이스라엘의 집합”,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79~81쪽 참조.
11. 레위기 18:4; 니파이후서 31:5~12; 교리와 성약 1:12~16; 136:4; 신앙개조 1:3~4 참조.
12. 교리와 성약 84:20~21; 110:9 참조.
13. 여호수아 3:5; 교리와 성약 43:16; 또한 요한복음 17:19 참조. 구주께서는 우리를 축복할 권능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셨다.
14. 힐라맨서 3:35; 교리와 성약 12:6~9; 88:74 참조.
15. 조셉 스미스—역사 1:17, 하나님께서 시현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첫 번째로 명하신 것: 또한 니파이후서 9:29; 제3니파이 28:34 참조.
16. 마가복음 1:15; 사도행전 3:19; 앨마서 5:33; 42:22~23; 교리와 성약 19:4~20 참조. 또한 죄에 관한 다음 두 가지 명상록을 숙고한다. 첫 번째로 휴 니블리는 이렇게 적었다. “죄란 낭비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더 나은 일 대신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Approaching Zion*, ed. Don E. Norton [1989], 66) 존 웨슬리의 모친인 수제너 웨슬리는 아들에게 이렇게 썼다. “이 규칙을 명심하게라. 무엇이든 네 이성을 약화하는 것, 네 양심을 둔감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네 감성을 흐뜨리는 것, 영적인 것들을 누리는 기쁨을 앗아가는 것, ... 무엇이든 네 육신의 권세를 키워 몸이 정신을 지배하도록 부추기는 것들은 그 자체가 아무리 순수하다 하더라도 죄가 된다.” (*Susanna Wesley: The Complete Writings* ed. Charles Wallace Jr. [1997], 109)

17. 누가복음 22:32; 제3니파이 9:11, 20 참조.
18. 요한복음 13:2~15, 34. 구주께서는 속죄하시기 전날 밤에 그분을 배신한 자, 그분을 부인한 자, 그리고 그분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에 잠들어 버린 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9. 마태복음 5:46.
20. See John R. Talmage, *The Talmage Story: Life of James E. Talmage—Educator, Scientist, Apostle* (1972), 112–14.
21. 앨마서 10:22~23; 62:40 참조.
22. 제3니파이 27:11.
23.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7~9절을 참고한다. 바울은 아주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것을 없애 주시기를 세 번 기도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또한 이더서 12:27 참조.
24. 모사이아서 7:33; 29:20; 힐라맨서 12:1; 교리와 성약 124:87 참조.
25. 누가복음 8:43~48; 마가복음 5:25~34 참조. 혈투병을 앓던 여인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달리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없었다. 그 여인은 12년이나 병을 앓았으며 의사의 치료를 받기 위해 전 재산을 썼는데도 병세는 더 악화되고 있었다. 친구와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 여인은 의도적으로 수많은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 구주 쪽으로 엎드렸다. 그 여인은 구주를 온전히 믿고

신뢰했으며, 주님은 그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알아차리셨다. 그 신앙으로 인하여 주님은 즉시, 그리고 온전히 그녀를 치유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딸아”라고 말씀하셨다. 그 여인은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었다. 그 여인은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으로 치유받았다. 어떤 시련은 어려 해, 심지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만, 주님의 치유의 약속은 확실하며 절대적이다.

26. 누가복음 4:21; 요한복음 4:6~26. 예수님께서 성역 초기에 나사렛에서 자신이 다니던 회당에 가서서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읽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선언하신 것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 아니라 누가였다. 이것은 구주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하신 최초의 기록이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밝히신 것은 야곱의 우물에서였다고 기록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주님은 햇빛이 지상에 가장 많이 내리쬐는 날 “여섯 시”, 즉 정오에 그 선언을 하셨다. 또한 야곱의 우물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진입한 후 주님과 성약을 맺는 의식을 했던 장소 부근의 계곡에 있었다. 흥미롭게도 계곡의 한쪽은 메마른 산이고 다른 쪽은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들로 가득한 산이다.
27.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더 짙힐 힘이 남아 있는지 의문이 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역량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도록 우리를 이곳에 두셨음을 알면 위안이 됩니다. 실패하거나 약하게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어려움에 압도된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량 이상으로 시련을 주시지 않음을 상기하십시오.” (“Meeting the Challenges of Today”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Oct. 10, 1978], speeches.byu.edu)
28.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우리는 장차 구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면전에서 서 있다는 사실로 압도되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췌장을 치르셨고, 우리가 타인에게 보인 불친절한 행동을 모두 용서해 주셨으며, 이생에서 우리가 받은 불의와 상처를 치유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여 몸 돌 바를 모를 것입니다. 또한, 불가능한 일을 해낼 힘을 주셨고, 나약함을 강인함으로 바꿔 주셨으며, 그분과 함께 우리의 가족과 영원히 살 길을 열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분의 정체성과 속죄 및 속성인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또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선지자와 지도력,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2017년 1월 8일], broadcasts.lds.org)
29. 이사야 53:3~5; 앨마서 7:11~13; 교리와 성약 122:5~9 참조.
30. 조셉 스미스—역사 1:17; 릴레인 에스 돌튼,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109~111쪽 참조.
31. 요한복음 4:14.



매튜 엘 카펜터 장로
칠십인

네가 낮고자 하느냐

우리가 회개를 선택하고 우리 마음을 구주께로 온전히 돌이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속죄로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하실 것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선교사로 봉사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동반자와 공부를 마치려던 순간, 아들은 머리 안쪽에 희미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왼쪽 팔을 가눌 수 없게 되더니 곧 혀가 마비되었습니다. 얼굴 왼쪽이 축 늘어지기 시작했고, 말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나, 뇌의 세 곳에 심각한 뇌졸중이 왔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몸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뇌졸중 환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치료받느냐는 치유의 정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충실한 동반자는 결단력 있게 대처했습니다. 응급 전화를 건 후, 아들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기적적인 것은, 구급차가 단 5분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의료진은 상황을 조속히 진단하여 뇌졸중의 마비 증세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¹ 그러나 만약 아들이 뇌졸중에 걸린 것이 아니라면, 그 약물은 뇌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고, 약물을 투여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완치되기까지 여러

달에 걸쳐 몇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으나, 뇌졸중 증상은 대부분 사라졌고 그 후에 제 아들은 마침내 임지로 돌아가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체적 괴로움을 알고 계시며, 질병, 노화, 사고, 선천적 장애 등으로 인한 우리 몸의 고통도 이해하십니다. 또한 불안감이나 외로움, 우울증, 정신 질환과 관련된 정서적인 고통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당함이나 학대를 당한 사람들을 모두 알고 계시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약점과 성향과 유혹도 아십니다.

이 지상 생활에서 우리는 악이 아닌 선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²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되도록 돕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능과 지식을 주셨습니다.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질병 중에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실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³

경전에는, 구주께서 지상 성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신성한 권능으로 육체적 고통을 겪는 자들을 치유하신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심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질병을 38년간 견디며 지낸 한 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낮고자 하느냐”

그 병자는 꼭 필요한 순간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⁴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38년) 홀로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구주께서 도우셨을 때 얼마나 빨리 치유되었는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치유는 “곧”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12년간 혈루증을 앓으며 생계비를 모두 쏟아부어 의사를 찾아다녔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혈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⁵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성역을 통해 당신이 육신을 다스릴 권능을 지니셨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육체적 질병을 언제 치유해 주실지를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치유는 그분의 뜻과 지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경전을 보면, 어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또 다른 이들은 지상 생활 내내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정련되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주의 도움을 받아들일 때 그분은 항상 우리를 영적으로 강화해 주시므로, 우리는 짐을 견뎌 낼 더 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부활할 때 모든 육체적 질병이나 아픔, 불안전함이 치유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⁶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경전 곳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연약한 영을 지닌 자들을 돕고 온전하게 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⁷ 그러한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구주의 권능에 대한 소망과 신앙이 자라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당함이나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으며, 삶의 시련 속에서 평화를 주시고 정서적으로 치유해 주셔서 우리가 상실감과 심적 고통을 견디도록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로 어기는 것입니다.⁸ 죄를 범하면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부정함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없습니다.⁹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¹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리라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린 지 로빈스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회개라는 대체 계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분의 계획입니다.**”¹¹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 악 대신 선을 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한다면 우리는 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모든 죄로부터 구속되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치유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주의 구속 권능과 죄를 범한 자의 진지한 회개가 모두 요구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치유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¹²

저는 회개하려 노력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죄 가운데 생활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신이 그들을 떠나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 데 종종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결과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며 여러 달 혹은 여러 해 동안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코 바뀌거나 용서받을 수 없을 거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이 자신이 한 일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떠나가리라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들은 그냥 입을 다물거나 회개를 미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지금 회개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회개의 과정을 거치기보다 다음 생에서 고통을 겪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회개를 미루는 것은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은 종종 두려움을 이용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즉시 행동에 옮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 알게 되면 깊은 상처를 받을 수는 있으나, 많은 경우에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변화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기를 원할 것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서 죄를 버리도록 도울 때 영적인 치유는

가속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하시기에 죄의 무고한 희생자들이 당신께로 돌이킬 때 그들도 치유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¹³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범할 때 손상됩니다. 그러나 회개 절차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필멸의 몸과 다르게, 그 흉터가 사라집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58:42]”¹⁴

우리가 “마음의 뜻을 다하여” 회개할 때,¹⁵ 그 “즉시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¹⁶ 구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선교 임지에서 뇌졸중에 걸린 제 아들을 도왔던 그 동반자와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제 아들은 뇌졸중의 영향을 상쇄시키는 그 약물을 투여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필멸의 여생 동안 그를 따라다닐 수도 있었던 마비 증상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 삶에 끌어오는 일을 더 빨리 할수록, 죄의 영향에서 더 빨리 치유될 수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권유하셨습니다. “혹시나 그 길에서 벗어나 계시다면, ... 부디 돌아오시라는 권유를 드[립니다]. 어떤 걱정거리와 시련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든, 주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약의 길로 돌아오신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까지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¹⁷

영적인 치유를 얻으려면 우리 자신을 구주께서 말씀하신 조건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행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마비되어 영원히 진보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행동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여러분이 잘못 대했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느껴셨다면,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이 한 일을 이야기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만약 성전 합당성에 영향을 줄 만한 죄를 범하셨다면, 바로 오늘 감독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능과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육체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영원히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선택하고 우리 마음을 구주께로 온전히 돌이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속죄로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치유는 즉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낮고자 하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치유될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치유의 약물을 받게다고 우리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받으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그 약물은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화 인자(PA)라고 불린다.

2. 모사이사서 2:41.
3. 마태복음 4:24 참조. 그리스도는 두루 다니시며 모든 병든 자, 즉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
4. 요한복음 5:5~9 참조; 강조체 추가.
5. 누가복음 8:43~47 참조; 강조체 추가.
6. 엘마서 40:23; 힐라맨서 2:17 참조.
7. 누가복음 5:20, 23~25 참조; 또한 조셀 스미스 역, 누가복음 5:23 참조: “죄를 사하는 것이 병자를 일어서게 하고 걷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능을 요하겠느냐?”
8. 요한1서 3:4 참조.
9. 제3니파이 27:19 참조.
10. “The Gospel of Jesus Christ,” Preach My Gospel: A Guide to Missionary Service, rev. ed. (2018), lds.org/manual/missionary. (역자 주—“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2018년 개정판은 현재 영어로만 발행되었다. 앞으로 여러 언어로 번역될 예정이다.)
11. 린 지 로빈스,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리야호나, 2018년 5월호, 22쪽.
12. 모사이사서 16:5 참조.
13. 부부간의 신의와 신리의 약속을 깨트린 사람 곁에 그의 가족들이 함께해서 그가 주님께 더 온전히 향하여 그분의 치유하는 권능이 그 사람의 삶에 임할 수 있게 도와줄 때 더 빨리 치유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영혼이 진실하게 변화하고자 노력한다면, 그가 복음 공부,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하도록 돕는 가족들은 죄인의 변화를 도울 뿐 아니라 그의 삶이 구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 주게 된다. 합당하고 무고한 희생자들은, 죄를 범한 사람이 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권능으로부터 유익을 얻도록 그 사람을 지지하고 힘을 주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참여시킬 것인지, 무엇을 함께 공부할 것인지,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 하늘의 인도를 구함으로써 회개하려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
14. 보이드 케이 패커, “행복의 계획”, 리야호나, 2015년 5월호, 28쪽.
15. 제3니파이 18:32.
16. 엘마서 34:31; 강조체 추가.
17. 러셀 엠 넬슨,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리야호나, 2018년, 4월호, 7쪽.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오늘 택하라

영원한 행복의 크기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사업에 동참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허구의 인물인 메리 포핀스는 영국의 전형적인 보모입니다. 마법을 쓴다는 것은 제외하고 말입니다.¹ 메리는 에드워드 7세가 재위하던 20세기 초, 런던의 벧나루길 17번지에 사는 문제 많은 벅크스 가족을 돕기 위해 동풍을 타고 날아옵니다. 그리고 제인과 마이클이라는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여 단호하면서도 친절하게 이 아이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인과 마이클은 놀랄 만큼 많이 나아지지만, 메리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연극에서, 메리의 친구인 굴뚝 청소부 버트는 메리가 떠나는 것을 만류하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착한 아이들이잖아, 메리.”

메리가 대답합니다. “착한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나도 가르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난 아이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범이거든.”

버트가 묻습니다. “그래서?”

메리가 답합니다. “다음 부분은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지.”²

형제 자매 여러분, 제인과 마이클 벅크스처럼 우리는 가르침 받을 가치가 있는 “착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돕고 축복하기를

바라시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늘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다음 부분”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집인 천세에서 지상으로 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의 “다음 부분”에는 선택이 수반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 목표는 자녀들이 옳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하여 궁극적으로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순종하기만을 바라셨다면, 그분은 즉각적인 보상과 처벌을 통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이 해의 왕국이라는 거실에서 당신의 슬리퍼를 물어뜯지 않을 만큼 잘 훈련되고 순종적인 “애완동물”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십니다.³ 하나님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당신과 함께 당신의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성약의 길인 이 계획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처럼 되어서 그분이 누리시는 삶을 누리고 그분의 면전에서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⁴ 천세는 물론 현세에서도 개인적인 선택은 이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천세에서 이 계획에 관해 배웠으며, 그것을 받아들여 지상에 올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고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는 망각의 휘장이 드리워져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망각의 휘장 없는 하나님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전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신뢰할 만한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리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행하게 하시었나니, 그런즉 사람은 이편이나 저편에 의해 이끌리지 않고서는 스스로 행할 수 없었느니라.”⁵ 기본적으로, 이편을 대표하는 이는 아버지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편을 대표하는 이는 사탄, 곧 선택의지를 무너트리고 권능을 빼앗으려 하는 루시퍼입니다.⁶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옹호할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⁷ 예수께서는 속죄 희생을



치르신 뒤에 “하늘에 올라 … 사람의 자녀들에 대하여 지니신 그의 자비의 권한을 아버지께 주장”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사람의 자녀들을 위하여 변호”하셨습니다.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변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⁹ 애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옹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성공을 응원하시며 박수를 보내십니다.

그리스도의 변호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분이 우리의 잘못을 치르셨으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에서 배제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일깨우려는 목적이 있습니다.¹⁰ 구주께서는 화합으로 이끄는 과정을 따라¹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용서하고 치유하며 변호하십니다.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했음을 증명하고 옹호하십니다.¹²

반면, 루시퍼는 우리를 비난하고 고발합니다. 계시자 요한은 최후에 있을 루시퍼의 패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기 때문이었습니다.¹³

이 참소하던 자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는 전세에서 우리와 맞섰으며, 이생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는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며, 우리가 끝없는 고통을 겪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 우리가 합당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말하며, 실수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쓰러진 사람에게 발길질하는, 최악의 폭군입니다.

루시퍼는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다가 아이가 넘어지면, 아이에게 고통을 치고 벌을 주며 그만두라고 할 것입니다. 루시퍼의 방식은 결국 그리고 언제나 낙담과 절망을 초래합니다. 이 거짓의 아버지는 거짓을 전하기로는 더할 자가 없으며,¹⁴ 그는 “만인들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¹⁵ 우리를 속이고 방해하기 위해 교활하게 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다가 아이가 넘어지면, 일어서도록 도와주시며 다음 걸음을 내디디도록 격려하실 것입니다.¹⁶ 그리스도는 도움과 위안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방식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를 위한 지침이 포함되며, 이 지침은 경전에 계명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은 그저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훈련할 목적만으로 주어진, 기발하거나 임의적인 규칙의 집합이 아닙니다. 계명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기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며, 영원한 기쁨을 얻는 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분을 선택하고, 본향으로 이끄는 그분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구속의 계획을 알려 주신 후, … 계명을 주셨”습니다.¹⁷ 우리도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약의 길에 있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존엄성을 주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모든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라고, 기대하시며,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선택의지라는 은사를 통해 자녀들이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¹⁸ 우리는 선택의지가 있기에 성약의 길에 오르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날지 말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강요받을 수 없듯, 불순종 또한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선택의지를 침해당한 사람들과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길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희생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시며, 동정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벗어나면, 결국 예외 없이 행복은 시들고 축복을 잃게 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경전에서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며, 그 결과 행복이 저하되고 축복을 잃는 것을 벌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벌은 그분이 아닌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길에서 벗어났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벗어난 길에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에 걸음을 돌려 다시 돌아갈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변화를 결심하고 본래의 길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칭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대해 스스로 자격을 박탈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었을 것을 누리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¹⁹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길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벗어나 있었든, 또는 얼마나 먼 곳을 헤매고 있었든 간에,

우리가 변화를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도록 도와주십니다.²⁰ 진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 그 길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마치 한 번도 길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될 것입니다.²¹ 구주께서는 우리의 젖값을 치르시며, 사라져 가는 행복과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용서라고 칭합니다. 모든 회원들은 침례를 받고 난 뒤 길에서 미끄러지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일부러 길 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고, 그분에게서 도움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은 한 번 일어나고 마는 일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²²

우리는 우리가 섬길 분을 선택해야 합니다.²³ 영원한 행복의 크기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사업에 동참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부분”을 스스로 해내고자 힘쓰는 가운데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연습합니다. 예전에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셨던 두 분의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늘 관심을 바라면서 잘못을 지적받아야만 하는 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²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한 성인이 되어 스스로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그분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그분은 우리가 당신 뜻에 반하는 것은 요구조차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²⁵ 그러나 우리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기꺼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과 그분의 종들에게서 가르침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늘 부모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가르침 받을 가치가 있”으며²⁶, “스스로” 한다는 것은 “홀로”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경의 선지자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고, 너희는 자유로워 너희 스스로 행할 수 있음—영원한 죽음의 길이나 영생의 길을 택할 수 있음 기억하라.

그러한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화합되게 하고, 악마와 육체의 뜻에 화합되게 말라. 또 너희가 하나님께 화합하게 된 후에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인 줄을 기억하라.”²⁷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정성껏 준비하여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성전에서 성약을 맺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러한즉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또한 속죄의 능력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일으키사 너희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접되게 ... 하시기를 원하노라.”²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메리 포핀스는 피 엘 트레버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 허구의 인물이다. 트래버스의 원작은 1964년에 윌트 디즈니사에서 판타지 뮤지컬 영화로 제작했으며, 나중에 연극으로 각색되기도 했다.
2. 연극에는 여기서 설명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See *Libretto to Mary Poppins: The Broadway Musical*, 70.
 3. See Spencer W. Kimball, in Brisbane Area Conference 1976, 19.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선택의지를 주겠노라. 나는 남성과 여성이 강건하기를 바라노니, 이는 강건함은 옳은 연고니라. 나는 단지 의로워야 한다는 이유로 의롭되, 유약한 자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4. 예를 들어 리셀 엠 벨슨,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리아호나*, 2018년 4월호, 4~7쪽 참조. 성약의 길은 행복의 계획과(엘마서 42:8, 16 참조) 구속의 계획으로(엘마서 12:25~35 참조) 일컬어지기도 한다.
 5. 니파이후서 2:16.
 6. 모세서 4:3 참조.
 7. 요한 1서 2:1; 또한 조셉 스미스 역, 요한 1서 2:1 참조.
 8. 모로나이서 7:27, 28.
 9. 모사이야서 15:7 참조.
 10. 요한1서 2:2 참조.
 11. 고린도후서 5:16~21; 골로새서 1:19~23; 니파이후서 10:24 참조.
 12. 변호하다(advocate)라는 뜻의 그리스어 단어(*paraklētōs*)는 중재자, 조력자, 위안자, 위로자를 의미한다. (see 1 John 2:1, footnote b; *The New Strong's Expanded Exhaustive Concordance of the Bible* [1984], Greek dictionary section, 55; 니파이후서 10:23~25; 교리와 성약 45:3~5)
 13. 요한계시록 12:10~11.
 14. 이더서 8:25 참조.
 15. 니파이후서 2:27; 또한 니파이후서 2:6~8, 16, 26 참조.
 16. See Fiona and Terryl Givens, *The Christ Who Heals* (2017), 29, 124. 원래 인용문을 보려면 다음을 참조한다. Anthony Zimmerman, *Evolution and the Sin in Eden* (1998), 160, citing Denis Minns, *Irenaeus* (2010), 61.
 17. 엘마서 12:32.
 18. 니파이후서 2:26; 또한 니파이후서 2:16 참조.
 19. 교리와 성약 88:32.
 20. 엘마서 34:31 참조.
 21. 니파이후서 31:20; 모사이야서 26:29~30; 교리와 성약 58:42~43; 보이드 케이 페커, “행복의 계획”,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26~28쪽 참조. 페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회개 절차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 그 흉터가 사라집니다.”
 22. 니파이후서 31:20.
 23. 여호수아 24:15 참조.
 24. 줄리 비백,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여중에게 부어 줄 것이며”,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10~12쪽; 백 자매는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의 다음 말씀을 인용했다. Eliza R. Snow, address to Lehi Ward Relief Society, Oct. 27, 1869, Lehi Ward, Alpine (Utah) Stake, in Relief Society, Minute Book, 1868 - 79,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26 - 27.
 25. 니파이후서 4:35; 엘마서 10:5 참조.
 26.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참조.
 27. 니파이후서 10:23~24.
 28. 니파이후서 10:25.



잭 엔 제라드 장로
철십인

지금도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든 속고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속고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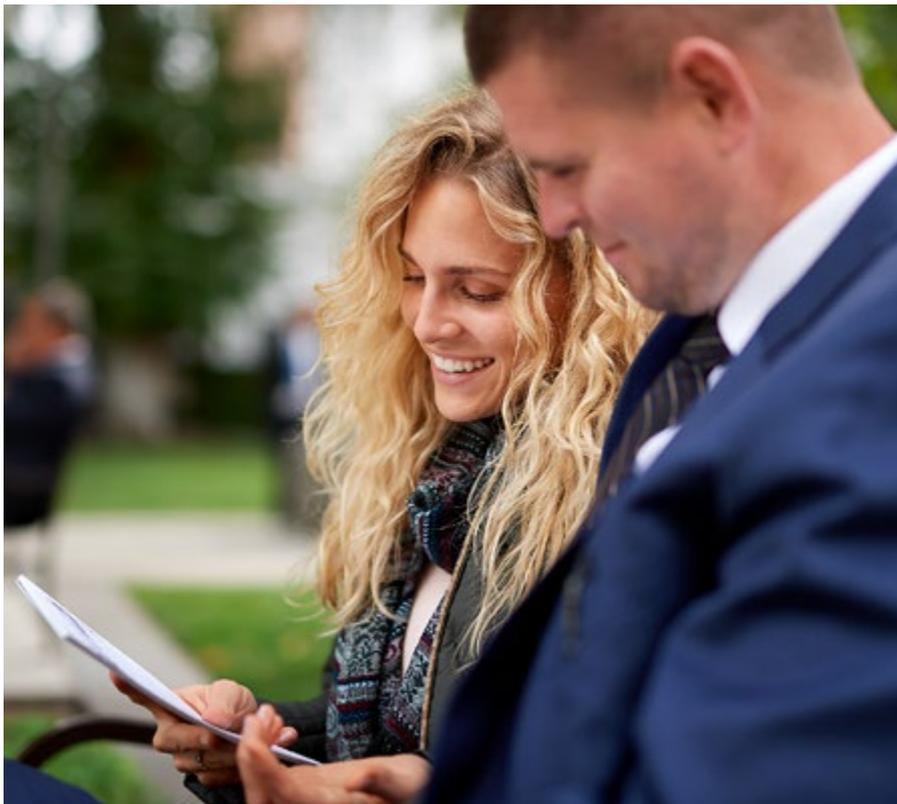
수 년 전, 출장을 떠날 준비를 하던 중에 저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걱정이 된 아내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 여정의 첫 비행기 안에서, 통증은 극심해져서 호흡이 곤란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착륙하자마자 공항을 나와 그 지역 병원으로 가서, 여러 검사를 받은 후에 여행을 계속해도 좋다는 전문의의 확인을 받았습니니다.

저희는 공항으로 돌아가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착륙하기 위해 비행기가 하강하는 중에, 갑자기 조종사가 기내 전화로 제게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승무원이 와서는 방금 비상 전화가 걸려 왔는데 저를 병원으로 후송해 갈 구급차가 공항에 대기중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구급차를 타고 서둘러 그 지역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의사 두 명이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오진을 받았으며, 실제로는 폐동맥 색전증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즉, 폐 혈관이 혈전으로 막혀 즉각적인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런 상태에서 살아남는 환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타지에 있는 데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만한 일을 접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음을 알았던 의사들은 저희 인생에서 무엇이라도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토록 불안한 상황에서 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별 의미 없이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은 세상적인 안위와 근심 대신에 가족과 자녀, 아내,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와 같은 영원한 관점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행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맺은 성약과 주님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삶을 영위했는가, 아니면 무의식중에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들에서 멀어지게 되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 경험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을 숙고해 보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사의 말을 빌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라도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함

우리는 정보가 넘쳐 나고, 끝없이 늘어나는 방해 요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인생의 혼란을 헤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에 집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급변하는 기술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헤드라인에 매일같이 노출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숙고하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과 우리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미지나 동영상, 흥미로운 머리기사 등 정보의 바다에 잠식된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흥미와 즐거움을 주는 이러한 것들 대부분은 우리의 영원한 진보와는 별 관련이 없지만, 지상에서의 경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세상의 방해 요소는 리하이의 꿈에 나오는 것들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쇠막대를 꼭 붙든 채 성약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크고 넓은 건물에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니파이전서 8:27)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멈추어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쇠막대를 잡았던 손까지 놓고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들을 비웃는 자들로 인하여”(니파이전서 8:28)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리라].”(누가복음 21:34) 현대의 계시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그들이 택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 일에 … 얽매어 있고 사람의 명예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121:35; 또한 34절 참조)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성약의 길의 어디쯤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고, 쇠막대를 굳건히 붙들고 전방을 주시하기 위해 우리 삶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최근에 열린 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에서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일주일 동안 소셜 미디어 금식 기간을 가져 보으로써 그 의존성을 떨쳐 버리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저녁에도 그분은 여성 총회에서 자매들에게 비슷한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여러분이 성약의 길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 철저히 여러분의 삶을 평가해 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분은 만일 삶에서 그만두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이 달라지고 변화할 좋은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

생활 속에서 바꾸어야 하는 것들을 파악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방해 요소를 극복하고 우리 앞에 놓인 영원에 대한 비전에 집중할 수 있는가?

2007년 연차 대회에서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은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씀에서 상반되는 수많은 세상의 요구 가운데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 또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몇 가지 좋은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 또는 가장 좋은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키고 우리 가족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²

저는 이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두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를 추구함

구주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앰엘레크는 “이 생은 ...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자 “영원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임을 일깨워 줍니다. (엡마서 34:32~33) 다음 명언이 되새겨 주듯이,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³

우리의 신성한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영원한 진보에 필수적이며,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생의 방해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1~32)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늘의 진리를 철저히 완전하게 익혀 세상의 어떤 피조물의 분이나 행실도 그가 자신이 얻은 지식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⁴

오늘날 세상에서 진리에 대한 논쟁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마치 진리가 개인적인 해석이 가능한 상대적 개념인 양 모두가 자신의 것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소년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삶에서 “혼란과 다름이 너무 컸으므로 ...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어떤 확실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했음을 알았습니다. (조셉 스미스—역사 1:8) 그는 “이러한 언쟁과 의견의 혼돈 속에서”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신성한 인도를 구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역사 1:10)

넬슨 회장님은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를 공격하는 무수한 의견과 인간의 철학 속에서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을 걸러 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시를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⁵ 우리는 진리의 영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17)

이 세상이 왜곡된 현실 쪽으로 견잡을 수 없이 기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야곱의 다음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은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사물을 장차 있을 그대로 말하느니라. 그리하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명백히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야곱서 4:13)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지금이 바로 무엇을 바꿔야 할지 생각해 볼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길을 인도하셨음을 앞으로써 큰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앞서, 곁에 있던 자들이 당신의 신성한 역할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면서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hopeofisrael.lids.org.
2. 맬린 에이치 옥스,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리야호나*, 2007년 11월호, 107쪽.
3. 인용문은 피에르 테야르 드 샤프르망이 자주 한 말이다.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년), 42쪽.
5.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야호나*, 2018년 5월호, 95쪽.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십이사도 정의회

영혼의 목자가 됨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타인에게 손을 내밉니다.

최 근에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청남 시절에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득 자신이 터는 와드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를 가르쳤던 선교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가자, 아무도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와드에는 친구가 없다 보니 예전 친구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어울렸고, 그러느라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면서 무리, 즉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는 와드의 한 회원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며 다시 돌아오도록 따뜻하고 넓은 마음으로 권유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는 무리로 안전히 돌아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그 청남을 찾아 나선 브라질의 목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청남은 지금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제 뒤에 앉아 있는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장로님입니다.

그런 작은 노력들이 영원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교회가 펼치는 성역 활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상의 단순한 노력을 취하시어

기적적인 것으로 변모시키십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이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방법에서 중요한 변화를 발표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지 겨우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¹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새롭고도 더 거룩한 방식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노력을 단순히 ‘성역’이라 지칭할 것입니다.”²

넬슨 회장님은 또한 이런 설명도 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를 구별 짓는 특징은 조직화되고 일치된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일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는 그분께서 그러셨듯이 한 명 한 명에게 성역을 베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과 권세로, 그분의 사랑과 친절로 성역을 행할 것입니다.”³

그 발표가 있고 난 뒤로 여러분의 반응은 굉장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스테이크에서 살아 계신 선지자의 지시대로 이런 변경 사항을 실행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와 자매 성역자들이 가족들에게 지명되고, 청남과 청녀를 포함한 동반자들이 조직되었으며, 성역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가정에서의 복음 교육과 교회에서의 복음 교육을 서로 이어 주고 둘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조정 사항”이라는 계시에 찬 발표가 있었고⁴, 6개월 전에는 성역에 관한 계서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두 발표가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월부터 교회 예배가 한 시간 줄어듭니다. 우리는 성역에 관해 배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그 여유로워진 시간에 가족 및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더 높고 거룩하며 가정이 중심이 되는 안식일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조직 구조를 갖추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성역을 베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께서 의도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을 돕고 있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논의에서,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 중요한 변화에 적응하는 성도들을 칭찬하셨지만, 성역이 “그저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상이라는 점을 회원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습니다. 그것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성역의 참된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성역이 단순히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행해진 성역은 고도이 장로님에게 그랬듯이, 영원히 지속되는 원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 사랑으로 봉사하시면서 성역을 베푸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범으로 보이셨다. … 그분께서는 주변 모든 이들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권유하시며 그들을 … 가르치셨고, 기도하셨고, 위로하셨으며, 축복하셨다. … 교회 회원들이 [더 높고 거룩한 방법으로] 성역을 베풀 때,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셨을 방법으로 봉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즉 … ‘교회를 항상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복돋아 주며’,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⁵

참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사랑하고 각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그들을 “염려”합니다.⁶

산 속의 양 떼

제 오랜 친구는 평생 목장을 운영하면서, 험준한 로키산맥에서 소와 양을 키우는 일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한번은 그 친구가 저에게 양을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과 위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광활한 산맥에 쌓인 눈이 대부분 녹아내린 이른 봄이면, 그는 여름을 보내기 위해 약 2천 마리의 양을 산에 풀어 둔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름 방목장에서 양을 돌보다가, 늦가을이 되면 양들을 사막에 있는 겨울 방목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는 해뜨기 훨씬 전에 일어나 어두워진 후에도 한참 동안 일한다고 말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많은 양 떼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설명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양 떼를 돌보는 일을 도왔습니다. 경험이 많은 목장 일꾼들은 나이 어린 일꾼들의 보조를 받고, 나이 어린 일꾼들도 그 동반자들의 지혜에서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는 또한 늙은 말 두 마리와, 훈련 중인 수말아지 두 마리, 늙은 양치기 개 두 마리, 그리고 양치기 강아지 두세 마리의 도움에 의지했습니다. 여름 동안 제 친구와 그의 양 떼는 바람과 폭풍우, 질병, 부상, 가뭄 등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오로지 양들이 살아남게 하려는 목적으로 여름 내내 물을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가을의 끝자락에 겨울 날씨가 으름장을 놓을 무렵 양들을 산에서 거둬들여 헤아려 보면, 보통 실종된 양이 200마리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양을 보살핌

이른 봄에 산에 풀어 둔 2천 마리의 양이 1800마리 안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없어진 양의 대부분은 질병이나 자연사로 잃은 게 아니라 퓨마나 코요테 같은 포식자들에게 잡아 먹혔었습니다. 이런 포식자들은 안전한 무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목자의 보호에서 이탈한 어린 양들을 주로 찾아내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을 영적인 맥락에서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목자는 누구입니까? 무리는 누구입니까? 목자를 돕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선한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⁷

마찬가지로 선지자 니파이는 예수께서 “자기 양을 먹이시리니 그 안에서 그들이 풀밭을 찾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⁸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이시며⁹ 우리 각 사람을 알고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저는 지속적인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람과 폭풍우, 질병, 부상, 가뭄에 직면할 때,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 친구가 젊은 일꾼과 나이 든 일꾼, 말, 양치기 개의 도움을 받아 양을 보살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당신의 무리 속에 있는 양들을 보살피는 힘든 일을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분의 무리에 속한 양으로서, 우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살핌을 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목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역의 도움을 제공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섬기며 내 이름으로 나아가서 내 양을 함께 모을지니라”라고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¹⁰

목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모든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는 목자입니다. 부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침례의 물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일을 위임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타인에게 손을 내밀니다. 앵마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저 너희 중에 과연 어떤 목자가 많은 양을 가졌으면, 이리들이 들어와 자기 양 떼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 그가 그것을 몰아 내지 아니하느냐?”¹¹ 우리의 이웃이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우려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서로의



결연한 양치기 개가 목자와 무리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이끈다.

짐을 저서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합니다.¹² 주님은 애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에게서 이런 일을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무리를 보살피는 일에서 우리가 맡은 부분에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¹³

목자인 제 친구는 방목장의 양을 돌보는 데 중요한 또 다른 요소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양들이 포식자의 위험에 특히 취약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와 그의 일꾼들은 총 근무 시간의 15퍼센트를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데 할애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무리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나기 전, 더 빨리 양을 찾을수록 그 양이 해를 입을 가능성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 많은 인내와 극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 해 전, 한 지역 신문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서 그것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제1면 제목은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¹⁴ 이 기사에는 제 친구의

사유지에서 멀지 않은 한 목장 소유의 얼마 안 되는 양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여름 방목장에서 어찌다가 뒤에 남겨진 양들이었습니다. 두세 달이 지나, 그 양들은 산속에서 오도 가도 못 한 채 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양들이 뒤에 남겨지자 그 양치기 개도 양들과 함께 남았는데, 양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그 개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 개는 양들에게서 눈을 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개는 그곳에 남아, 출고 눈이 내리는 몇 달 동안 잃어버린 양들의 주위를 맴돌며 코요테, 퓨마, 또는 양들을 해칠 다른 포식자로부터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개는 양들을 이끌고 목자와 무리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사의 제1면에 실린 사진에서 이 양치기 개의 눈에 서린 기계와 결연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신약전서에는 잃어버린 양의 목자, 즉 자매 성역자와 형제 성역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에 관해 더 많은 통찰을 제공하는 구주의 비유와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¹⁵

이 비유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귀중한 권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1.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한다.
2. 우리는 양들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닌다.
3. 양들을 찾으면, 우리는 그 양들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려와야 할 것이다.
4. 양들이 돌아오면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그들을 둘러싸고 맞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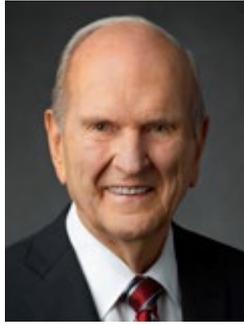
형제 자매 여러분, 가장 큰 도전과 가장 큰 보상은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에게 성역을 베풀 때 올 것입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백성을 보살피며, 의에 관한 것으로 그들을 양육하였”습니다.¹⁶ 우리는 그들의 모범을 따르고, 성역이 “영에 의해 인도되어야 하고 각 회원의 필요 사항에 맞게 탄력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 및 가족이 다음 단계의 의식을 받도록 준비하고, 그들이 맺은 성약을 지키며,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힘”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¹⁷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소중합니다. 성역을 베풀라는 그분의 권고는 그분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일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영원의 사업입니다. 그분의 각 자녀는 그분 보시기에 헤아릴 수 없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이해하려 시도조차도 할 수 없을 만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현신적인 양치기 개처럼, 주님은 바람과 폭풍우, 눈, 혹은 그 이상의 것 속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에 남아 계실 것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지난 대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그리고 제가 덧붙이자면, ‘우리가 성역을 베푸는 무리’]에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는 단순하고도 진실합니다. 우리는 **휘장 양편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구주께 나아와 거룩한 성전의 축복을 받고, 지속되는 기쁨을 느끼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권유합니다.**”¹⁸

우리의 목표를 높여 선지자의 이 비전에 맞출 수 있기를, 그리하여 다른 영혼을 성전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적을 행하기를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당신께로 데려오기만을 요구하십니다. 영혼을 구속할 권능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음 약속을 얻을 수 있고, 또 연계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¹⁹ 이 간증을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 주
1.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18쪽.
 2. 러셀 엠 넬슨, “성역”,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00쪽.
 3.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성역을 행함”,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69~70쪽.
 4. 러셀 엠 넬슨, “개회 말씀”,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8쪽.
 5. “강화된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를 통한 성역”, 2018년 4월 2일자 제일회장단 서한 동봉 자료, ministering.lds.org; 모사이야서 18:9; 교리와 성약 20:51, 53; 또한 요한복음 13:35 참조.
 6.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1916년)*, 561쪽.
 7. 요한복음 10:14~15.
 8. 니파이전서 22:25.
 9. 시편 23:1; 강조체 추가.
 10. 모사이야서 26:20.
 11. 알마서 5:59.
 12. 모사이야서 18:8~9 참조.
 13. 마태복음 25:31~46 참조.
 14. See John Wright, “Safe or Stranded? Determined Dog Won’t Abandon Lost Sheep,” *Logan Herald Journal*, Jan. 10, 2004, hjnews.com.
 15. 누가복음 15:4~6.
 16. 모사이야서 23:18.
 17. “강화된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를 통한 성역”, 4, 5, ministering.lds.org.
 18.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119쪽; 강조체 추가.
 19. 베드로전서 5:4.



러셀 엠 넬슨 회장

모범적인 후기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께 제 사랑과 축복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회는 영감으로 가득 찬 역사적인 대회였습니다. 우리는 열의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더 잘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총관리 역원과 교회 본부 역원들이 이 연단에서 전한 말씀들은 놀라웠으며, 음악은 송고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지금부터 깊이 탐구하시기를 권고합니다.¹ 그 말씀들은 오늘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품고 계신 생각과 뜻을 대변합니다.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 새로운 통합 교과 과정은

각 가족이 그들의 가정을 신앙의 안식처로 변화시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 그것을 세심하게 따를 때 가족들의 힘을 촉발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복음 학습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부지런히 노력하신다면 점차 여러분의 안식일은 참으로 즐거운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쁜 마음으로 구주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고자 할 것이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미치는 대적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극적이고도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대회 동안, 우리는 그분의 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필수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구주의 교회와 그에 속한 회원들을 올바른 이름으로 부르겠다는 단호한 결심은 우리의 신앙을 증대시키고 그분의 교회 회원들이 영적으로 더 큰 힘을 얻도록 이끌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주제를 성전으로 옮겨 봅시다. 우리가 성전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 및 우리 가족의 구원과 승영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성전 의식을 받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후, 우리 각자는 오직 주님의 집에서만 주어지는 지속적인 영적인 힘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조상들은 그들의 대리자로서의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공평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복음의 지식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성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창세 이전부터 방안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신성한 성전 의식들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 오래된 역사는 세계 영감을 주며 이는 그 의식들이 참되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²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그 강도나 다양성 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³ 우리가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갈 수 있는 거리에 성전이 있다면,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주님과 정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런 뒤, 그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정확히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적을 알고 계시므로 여러분이 그분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기 위해 희생할 때, 여러분에게 그 기적을 가져다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현재 교회에는 159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은 우리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성전은 불가피하게 새로 보수하고 단장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솔트레이크 성전을 비롯하여 다른 개척사 시대의 성전들을 보수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공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에 알려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12개 성전의 건축 계획을 발표합니다. 아르헨티나 멘도사, 브라질 살바도르, 캘리포니아 유바시티, 캄보디아 폰펜, 카보베르데 프라이아, 괌 지고, 멕시코 푸에블라, 뉴질랜드 오클랜드, 나이지리아 라고스, 필리핀 다바오,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유타 워싱턴카운티.

성전 건축과 유지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전에 오랫동안 발길을 끊으신 분이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성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뒤 성전에서 예배하며 구주께서 여러분에 대해 지니신 무한한 사랑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이 성스럽고 영원한 사업을 이끄신다는 여러분만의 간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⁴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제 사랑과 축복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는 계시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⁵

그분과 그분의 거룩한 사업에 대한 더 큰 신앙을 갖도록, 그리고 삶에 찾아오는 개인적인 난관을 신앙과 인내로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범적인 후기 성도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제 간증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LDS.org 및 복음 자료실 앱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참고한다. 말씀들은 또한 리야호나에 인쇄될 것이다. 교회 잡지는 우편으로 받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가장이 중심이 되는 복음 교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예를 들어, 출애굽기 28장; 29장; 레위기 8장 참조.
3. 모사이야서 4:29 참조.
4. See Wilford Woodruff, “The Law of Adoption,” discourse delivered at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Apr. 8, 1894. 우드러프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계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의 사업도 끝나지 않았습니니다. ... 이 사업이 완수되기 전까지 끝이란 없을 것입니다.”(Deseret Evening News, Apr. 14, 1894, 9)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42쪽.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를 선별한 목록이다. 이 내용은 개인 학습, 가정의 밤, 그리고 그 밖에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숫자는 각 말씀이 실린 첫 페이지를 나타낸다.

연사	일화
닐 엘 앤더슨	(83) 자신의 고통을 구주께서 아신다는 것을 깨달은 한 충실한 선교사는 폭탄 테러로 입은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좌절감을 이겨 낸다. 딸의 죽음 이후, 러셀 엠 넬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사람을 위하여 부활의 열쇠를 사용할 것임을 믿게 된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푸에르토리코 회원들에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라고 간증한다.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93)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의 아내는 하나님의 본성과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감사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엠 러셀 벨라드	(71) 조셉 애프 스미스는 가족들의 죽음과 전쟁 및 질병으로 사망한 수백만 명의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을 경험한 후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을 받는다.
스티븐 알 뱅거터	(15) 스티븐 알 뱅거터의 손주들은 행복한 삶의 기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들을 땅에 묻는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가르쳐야 할 책임을 상기시킨다. 스티븐 알 뱅거터의 아들은 부모님이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도록 돕겠다고 제의한다. 한 노신사는 성신의 인도를 받아 교회와 어린 시절의 영적 안전으로 돌아온다.
세인 엠 보웬	(80) 세인 엠 보웬은 물론경의 힘을 통해 교회로 개종한 한 남성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는다.
엠 조셉 브로	(12) 엠 조셉 브로는 미국 알래스카에서의 모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깨닫는다. 한 스테이크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용서에서 화평이 임한다는 것을 배운다. 엠 조셉 브로는 선교사로 봉사하려는 딸의 소망을 통해 힘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얻는다.
매튜 엘 카펜터	(101) 매튜 엘 카펜터의 아들은 뇌졸중에서 회복된 후 전임 선교사로서의 임무를 완수한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30) 네 명의 교회 회원들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주님으로부터 지속적인 도움을 받는다.
쿠엔틴 엘 쿡	(8) 브라질에 있는 한 가족은 <i>와서 나를 따라라—개인 및 가족</i> 책자를 통해 신앙과 간증이 강해지고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보니 에이치 코든	(74) 한 청년이 한 나이 든 자매와 우정을 쌓으면서 그들의 삶이 축복을 받는다. 보니 에이치 코든과 그녀의 성역 동반자는 그들이 방문하는 자매와 즉각적인 사랑의 유대를 맺는다. 한 형제 성역자는 자살 시도를 했던 아내를 둔 형제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신뢰를 쌓는다.
미셸 디 크레이그	(52) 카밀라 킴블은 한 와드 회원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말라고 가르친다.
딘 엠 데이비스	(34) 고든 비 힝 클리 회장은 브리티시컬럼비아 밴쿠버 성전을 지어야 할 곳을 시현으로 본다.
헨리 비 아이어링	(58) 헨리 비 아이어링은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여정을 담은 지도를 만들 시간과 힘을 냈는지 궁금하게 여긴다. (90) 헨리 비 아이어링은 사람들을 그들이 “큰 곤경에 처한” 것처럼 대하는 법을 배운다. 구주께서는 헨리 비 아이어링의 아내가 어려움을 헤쳐 나가도록 그녀를 돕고 계신다.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55)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는 자신의 초등학교 교사가 만든 초콜릿 케이크의 비밀 재료가 사랑과 희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로버트 시 게이	(97) 성신의 도움으로 로버트 시 게이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누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제임스 이 탈매지는 디프테리아에 시달리고 있는 가족에게 성역을 베푼다
잭 엔 제라드	(107) 잭 엔 제라드는 건강 상태가 위중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삶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게릿 더블유 공	(40)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와 게릿 더블유 공 장로는 모닥불을 수채화로 그리면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 신권 소유자는 저활동 부부가 교회로 돌아오도록 도움을 준다.
제프리 알 홀런드	(77) 어느 아버지는 자녀들의 간절한 호소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교회로 돌아오으로써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준다.
조이 디 존스	(50) 조이 디 존스와 그녀의 남편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봉사하는 법을 배운 후, 저활동 가족과 함께 지속적인 우정을 쌓는다.
러셀 엠 넬슨	(6) 어떤 어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교회 모임을 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여긴다. 매주 일요일에 집에서 성찬식을 함으로써 남편이 더 고운 말을 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68) 러셀 엠 넬슨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어머니로 언급한다. 어느 아들은 어머니가 성신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을 플립폰으로 바꾼 것에 대해 감사해 한다. (113) 벤자민 데 호요스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교회의 이름이 긴 것은 구주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달린 에이치 옥스	(61) 어느 난민 청년이 자신을 괴롭히는 청소년들에게 보복한 후 감옥으로 간다.
폴 비 파이프	(43) 침례받을 준비를 하고 있던 어린 소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제가 성신을 지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18)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의 딸과 사위는 자녀를 세상에 데려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
게리 이 스티븐슨	(110) 어느 와드 회원이 교회에서 멀어진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에게 성역의 손길을 내민다. 어느 목장주가 양 200마리를 포식자들에게 잃는다. 양치기 개 한 마리가 길 잃은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한다.



성전 소식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연차 대회를 마치는 폐회 말씀에서 교회는 12개의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113쪽 참조) 또한 솔트레이크 성전 및 기타 “개척자 세대”의 성전에 대한 보수 계획도 발표했는데, 세부 사항은 추후에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성전은 아르헨티나 멘도사, 브라질 살바도르, 미국 캘리포니아 유바시티, 캄보디아 폰펜, 카보베르데 프라이아, 괌 지고, 멕시코 푸에블라, 뉴질랜드 오클랜드, 나이지리아 라고스, 필리핀 다바오,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미국 유타 워싱턴카운티에 건립될 예정이다.

곧 헌납될 4개의 성전은 10월 28일 칠레 콘셉시온 성전, 12월 9일 콜롬비아 바랑키야 성전, 2019년 3월 10일~17일 이탈리아 로마 성전, 2019년 4월 14일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성전이다.

그리고 최근에 2개의 성전이 재헌납되었다. 2018년 4월 22일에 텍사스 휴스턴 성전이, 2018년 5월 20일에는 유타 조던리버 성전이 재헌납되었다. ■

*temples.lds.org*에서 더 알아본다.

넬슨 회장이 길을 인도하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처럼 좀 더 친절하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라고 권고했다. 그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지난 연차 대회 이후로 몸소 성역을 베풀며 모범으로 보여 주었다.

넬슨 회장은 2018년 4월 연차 대회가 끝난 직후에 그의 아내 웬디와,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와 그의 아내 패트리샤를 동반하여 영국, 이스라엘, 케냐, 짐바브웨, 인도, 태국, 중국, 미국 하와이 등지를 순방했다.

그다음 여행으로, 넬슨 회장은 캐나다 서부와 중부 및 동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교회의 회원, 선교사, 지도자 및 친구들을 만났다. 그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스페인어로 길게 말씀을 했는데, 이는 교회 회장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말씀을 전한 첫 번째 사례였다.

넬슨 회장은 노년의 모임을 비롯한 여러 모임에서 교회의 정확한 명칭,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 몰몬경을 소중히

여김,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길이 어떻게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의 길이 되는가, 기도, 가정을 자녀들의 성소로 만듦, 선택 의지를 통해 유혹을 이기고 구주를 따름, 다른 사람들을 보살핌, 성전의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그 축복을 받는 것 등에 관해 가르쳤다.

넬슨 회장과 부인은 또한 2018년 6월 3일 청소년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그곳에서 넬슨 회장은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대대”에 참여하여 이스라엘을 모으는 “크고, 장대하며, 장엄한 일의 중대한 일부”가 되라고 말씀했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시간의 일부를 주님께 바치고, 주님과 함께 삶을 철저히 평가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매일 기도하며, 세상의 빛이 되라고 권고했다. ■

러셀 엠 넬슨 회장의 성역에 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prophets.lds.org를 방문한다. 청소년 모임에 대한 전체 방송은 HopeofIsrael.lds.org에서 볼 수 있다.

가정과 교회에서의 복음 교육에 균형을 이루게 하는 변경 사항

러 셀 엠 넬슨 회장은 후기 성도들이 “교리를 배우고 신앙을 강화하며 개인적인 예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하고 구주의 복음을 배우며 실천하는 방식을 서로 연결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 사항을 발표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교과 과정의 발표와 연계해서 일요일 모임 일정이 2019년 1월부터 변경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변경 사항 및 기타 사항들은 교회가

최근 몇 년 동안 추진해 온 몇 가지 사전 계획을 기초로 하며, 그것은 회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고 그분들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러한 계획에는 가정에서 좀 더 의미 있는 복음 공부를 하는데 집중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주님을 경배하며, 구주께서 하시듯이 그리고 영의 지시에 따라 서로 보살피는 것이 포함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변경

사항들을 소개하면서,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변화는 개개인의 개종을 심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가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영적 영향력과 깊고 지속적인 개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 우리의 목적은 신앙과 영성을 크게 강화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 깊이 개심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에서 하는 경험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조정 사항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일요일과 주중에 가정에서 하는 복음 공부와 가정의 밤에 대한 조정 사항을 포함하여, 가정에서 행하는 개인 및 가족의 종교적 의식에 더 잘 참여하는 데 집중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가정은 학습과 실습의 장소로서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근본적인 중심지이다. 일요일 및 주중에 가정에서 하는 개인 및 가족 복음 공부는 매일 영적인 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또한 이를 통해 개인의 필요에 맞게 학습하고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회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만 이루어지는 복음 교육에 의존한다면 균형을 잃게 되어, 깊고 지속적인 개종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또한 경건은 자녀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일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에는 가정에서 하는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새로운 복음 학습 자료에 대한 소개도 포함된다. 개인과 가족은 원한다면 교회 밖에서 하는 복음 학습을 위해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자료는 주일학교 및 초등학교 교사용 자료와 연동되어 일요일 공과를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과 보조를 맞추게 한다.

복음 학습을 장려하는 것에 더하여,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회원에게 안식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가족 평의회, 가정에서의 저녁 시간,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 성역, 개인 예배, 즐거운 가족 시간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새롭게 했다.

회원 및 지도자들에게 발송된 자료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회원들에게 안식일 혹은 개인 및 가족이 정한 다른 시간에 가정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복음 공부를 하도록 권한다는 설명이 나와 있다. 가족 활동의 밤은 월요일 혹은 다른 때에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도자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월요일 저녁에는 교회 모임과 활동을 계획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개인 및 가족을 위한 가정 복음 학습과 활동을 위한 시간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일정을 계획한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록한 의식에 참여하며, 함께 모여 서로 가르치고 강화하며 봉사하는 것은 신앙과 개인적인 개종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개인 및 가족이 의식적으로 가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우리 후기 성도들은 ‘교회’란 집회소에서 하는 무언가이며, 가정에서 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생각의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가정이 중심이 된 교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지부, 와드,

스टे이크 건물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조정 사항

교회 일정에 대한 조정은 가정에서의 복음 학습과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변경 사항에는 매주 일요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 60분간의 성찬식 모임.
- 10분간의 이동 시간.
- 50분간의 분반 시간. 이 일정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2019년 1월부터 시작되는 일요일 모임 일정	
60분	성찬식
10분	이동 시간
50분	성인반, 청소년반, 초등학교

50분간의 분반 시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모임이 매주 진행되며, 청소년반 및 성인반은 다음과 같이 매주 번갈아 진행된다.

- 첫째 및 셋째 일요일: 주일학교.
- 둘째 및 넷째 일요일: 신권 정원회, 상호부조회, 청년.
- 다섯째 일요일: 감독의 지시에 따른 청소년 및 성인 모임.

초등학교 회원이 많아서 어린 아이들과 큰 아이들로 나누어서 모임을 할 경우,

지도자들은 각 그룹에 대해 다음 일정의 순서를 서로 반대로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 시작되는 초등학교 모임 일정	
25분	기도, 성구 또는 신앙 개조, 말씀(5분) 노래 부르기: 반에서 공부하는 성구를 뒷받침하는 음악(20분)
5분	이동 시간
20분	각 반: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학교 나오는 공과

변경된 교과 과정

모임 일정에 대한 이러한 변경 사항은 **와서 나를 따르라** 교과 과정에 새로 추가된 사항과 함께 진행된다.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 교과 과정은 1월부터 시작되며, 이를 통해 성인, 청소년, 어린이들은 주일학교와 초등학교 반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가족이 주중에 가정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지침, 공과 개요 및 자료들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 **와서 나를 따르라**—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2018년 11월호 리야호나에 있음)
- **와서 나를 따르라**—아론 신권 정원회
- **와서 나를 따르라**—청년
- **와서 나를 따르라**—주일학교
-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학교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comefollowme.lds.org를 방문한다.
 기타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사 평의회는 매월이 아닌,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 장르 정월회 및 상호부조회 공과 일정에는 더 이상 첫째 일요일 평의회 모임이나 넷째 일요일 특별 주제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공과는 최근의 연차 대회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 노래 부르기 시간은 함께 나누는 시간을 대체하게 된다. **함께 나누는 시간은 중단될 것이다.**
- 복음 원리반은 중단된다. 모든 회원과 관심을 보이는 비회원들은 각자 주일학교 성인반 또는 청소년반에 참석하라는 권유를 받게 된다.
- 결혼 생활 및 가족을 강화함, 성전 준비반, 선교사 준비반, 가족 역사 반과 같은 선택 과정은 일요일 분반 시간에는 열리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은 현지의 필요와 감독의 재량에 따라 다른 시간에 개인이나 가족 또는 그룹에게 가르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의 목적

교회 지도자들은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가정과 교회에서 하는 경험들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그 각각의 강점들을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록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이 변경 사항에는 단순히 일요일 집회소 일정을 축소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 이러한 조정 사항 및 최근 있었던 변경 사항에 수반되는 목적과 축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개심과 신앙을 강화한다.
-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과 과정을 통해 개인 및 가족을 강화하여 복음 생활에 기쁨을 더한다.
- 성찬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안식일을 지킨다.
- 성전에서 의식, 성약, 축복을 받고 선교 사업을 통해 휘장 양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돕는다.”

이러한 조정 사항에 대한 발표 내용은 이 잡지의 6쪽에 나오는 러셀 엠 넬슨, “개회 말씀”과 8쪽에 나오는 쿠엔틴 엘 쿡,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고 지속적인 개심”을 참고한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sabbath.lds.org를 방문하여 제일회장단의 서한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개인 및 가족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 자료를 찾아본다. ■





새로운 찬송가, 노래책에 참여하십시오

교 회에서는 찬송가 및 어린이 노래책의 새로운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회 회원들의 제안과 작품 제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newmusic.lds.org에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제안하기—현재의 찬송가나 어린이 노래 중 특히 좋아하는 곡, 포함하고 싶은 후기 성도 또는 비후기 성도 찬송가나 어린이 노래, 포함하지 않았으면 하는 현재의 찬송가나 노래, 현재의 음악 책의 문제점, 기타 피드백.

원곡 제출하기—찬송가, 찬송가 가사, 어린이 노래, 어린이 노래 가사. 음악은 예배 모임에 적절해야 합니다. 언어 및 문화 양식이 모두 고려될 것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일은 2019년 7월 1일까지입니다. ■



브룩 피 헤일즈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브 룩 피 헤일즈 장로는 여덟이나 아홉 살이었을 때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했는데, 당시 그 모임의 감리자는 감독인 그의 아버지였다. 그의 아버지는 회중에게 간증을 하도록 권유했으며, 그 모임에 참석한 거의 모든 사람이 간증했다. “이 복음이 참되다는 영의 증거를 느낀 것이 아마도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헤일즈 장로는 회상한다.

그는 그 이후로, 특히 2008년 이후로 제일회장단의 비서로 봉사하면서 여러 번 그런 증거를 느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선지자와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았을 때, 그리고 러셀 엠 넬슨 회장이 지지를 받았을 때 그는 “선지자의 걸וות이 그분들 각자에게 내려지는 것을 목격했으며,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그분들이 특정한 시기에 교회의 회장으로 선출되고 부름받았음을 알았습니다.”

헤일즈 장로는 2018년 5월 17일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고, 2018년 10월 6일에 지지받았다. 그는 계속해서 제일회장단의 비서로 봉사하게 될 것이다.

1956년 4월 7일 미국 유타주 옥든에서 클리어와 글렌 필립 헤일즈 사이에서 태어난 헤일즈 장로는 1980년 웨버 주립 대학에서 금융회계학 학위를 받았다. 졸업한 뒤, 그는 시중 은행 및 교회의 재정 기록과에서 근무했다. 1981년에 데니스 임레이 헤일즈와 결혼하여 네 자녀를 두었다. 헤일즈 장로는 프랑스 파리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감독단 보좌, 대제사 그룹 지도자, 감독, 스테이크 회장, 신권회 오르간 반주자, 주일학교 교사, 성전 인봉자 등의 부름에서 봉사했다.

어린 소년이었던 그날, 헤일즈 장로는 간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간증은 그 이후로 강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으며, 물론경은 참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합당하다면 성신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



와서 나를 따르라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2018년 10월

이 자료들을 복음 자료실 앱과
comefollowme.lds.org에서 찾아본다.

우리는 왜 장로정원회와 상호부조회 모임을 합니까?

이 후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신권을 회복하고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를
조직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매주 일요일에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사업이
성취되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논의하고 계획한다.
이 모임이 효과를 거두려면,
단순히 공과만 전달하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모임은 구원 사업에 관해
협의하고, 그 사업에 관해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서
함께 배우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018년 10~12월 모임 일정

2018년,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의 일요일 모임은 다음에 나오는 월간 일정을 따른다.

첫째 일요일: 와드/지부가 수행해야 할 책임과 기회 및 당면 과제에 관해 함께 협의하고 실행 계획을 세운다.

둘째 및 셋째 일요일: 회장단 구성원 또는 경우에 따라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이 선별한 최근 연차 대회 말씀을 공부한다.

넷째 일요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선별한 특별 주제를 토론한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주제는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이다.

다섯째 일요일: 감독단의 지시에 따른다.



“저희는 여러분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함께 의논하고
 계시를 구하실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 [새로운
 일요일 모임 일정]을
 온 마음을 다해 기쁘게
 받아들이고 성신의
 인도를 구하는 분들께
 깊은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쿠엔틴 엘 쿡 장로

2019년 새로운 모임 일정

2019년 1월부터 장로 정원회 모임과 상호부조회 모임은 매달 둘째 및 넷째 일요일에만 갖게 된다. 이런 모임에서는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말씀에 초점을 둔다. 이런 모임을 위한 교수 제언은 *리아호나* 연차 대회 특집호인 5월호 및 11월호와 복음 자료실 앱에서 찾을 수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되는 다른 변경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첫째 일요일의 평의회 모임은 중단된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는 중요한 주제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둘째 또는 넷째 일요일의 모임 시간을 일부분 사용할 수 있다.
- 아론 신권 정원회와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청년이 함께하는 개회 순서는 갖지 않는다.
-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는 모임을 시작할 때 개회 찬송 또는 기도를 하지 않으며, 마칠 때는 폐회 기도만 한다.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배우기

(2018년 및 2019년)

살아 계신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의 가르침은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가 하는 일에 영감 어린 지침이 될 수 있다. 대회 말씀을 공부하는 주의 경우, 장로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회원들의 필요 사항에 기초하여 대회 말씀을 선정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공부할 말씀을 제안할 수도 있다. 지도자들은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의 구성원들이 전한 말씀을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회장단 구성원들은 현지 성도들의 필요 사항과 영으로부터 받는 영감에 따라 가장 최근의 대회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다.

지도자와 교사는 선별된 말씀을 회원들이 미리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회원들이 어떤 복음 진리를 배웠으며 그 진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모임에 오도록 그들을 격려해야 한다. 아래에 제안된 배우기 활동은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에서 가르치는 원리들에 바탕을 둔 것으로*, 회원들이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려해 본다. 회원들에게 복음 진리와 교회 프로그램을 batzuro 보는 것과 개인적인 주제 및 과제가 적힌 점검표를 보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토론해 보라고 한다. 회원들이 베드나 장로의 말씀에 나오는 사례에서 통찰을 찾아보도록 그들을 격려한다. “함께 모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베소서 1:10 참조) 베드나 장로의 말씀에서 결론에 나오는 약속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델린 에이치 옥스, “진리와 계획”

“회복된 복음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의 믿음과 관례에 대한 반대에 직면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회원들은 옥스 회장의 말씀 11에서 근본적인 진리의 예들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런 진리들이 적용된 예들도 살펴볼 수도 있다.(11 참조) 이런 근본적인 진리 중 몇 가지를 사용해서 교회의 가르침이나 관례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는 방법을 회원들이 역할극으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칠판에 직신을 하나 굵고 한쪽 끝에는 사회적 동기라고 적고, 다른 쪽 끝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헌신이라고 적으면서 이 말씀에 관한 토론을 시작한다. 회원들에게 “지금 이 순간

쿠엔틴 엘 쿡,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고 지속적인 관심”

회원들은 쿡 장로의 말씀에 나오는 변경 사항을 처음 들었을 때 각자 어떤 반응을 했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수도 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변경을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회원들에게 쿡 장로의 말씀에서 가능한 대답을 찾아보라고 한다. 이 변경 사항을 통해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개인과 가족으로서, 그리고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토론을 하는 중에, 여러분은 회원들이 이런 변경 사항을 “기쁘게 받아들일”도록 넬슨 회장의 개회 말씀에서 영감을 주는 통찰을 찾아 나눌 수도 있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근심하지 말라”

래스번드 장로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위험한 시대에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 성구를 강조한다. 회원들에게 이런 성구에서 미래에 관해 두려워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권고를 찾아보라고 한다. 그들은 래스번드 장로의 말씀에서 또 어떤 것을 나눌 수 있는가? 두려움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각과 관점을 제한”할 수 있는가? 회원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생활하는 방법에 관해 배운 것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함께 모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함”

batzuro 점검표를 가져와서 전시하는 것을

우리 대다수는 ...”으로 시작되는 단락을 읽고, 자신이 이 직선에서 어디에 있다고 여기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말씀에 나오는 사례에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영감을 주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또한 앨마서 36:27~28 참조) 회원들에게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서 고난에 직면해서도 복음에 대해 그리스도와 같은 헌신을 보여 준 사람의 사례를 나누어 달라고 한다.

울리세스 소아레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소아레스 장로에 따르면, 아마존강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에 있는 회원들과 유사한가? 이런 비교는 새로운 회원이 교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는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로서 소아레스 장로의 권고에 따라 새로운 개종자를 어떻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모로나이서 6:4~5 참조) 몇몇 회원은 자신이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었을 때 겪었던 어려움과 다른 회원들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새로운 회원들이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를 어떤 식으로 강화했는지에 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

게릿 더블유 공, “우리 신앙의 모닥불”

모닥불 사진을 보여 주고, 누군가에게 모닥불이

있어서 감사하게 여겼던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회원들에게 공 장로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모닥불”을 언급했는지 토론해 보라고 한다. 그런 다음 회원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그들에게 공 장로가 “신앙의 모닥불”이 우리를 고양할 수 있다고 제시한 다섯 가지 방법의 하나를 그룹별로 살펴보고 나누어 달라고 한다. 회원들이 자신이나 지인의 신앙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숙고해 보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준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믿고, 사랑하고, 행하십시오”

칠판에 절망과 행복이라고 적고, 이 말씀에 관한 토론을 시작한다. 회원들에게 이 말씀에서 절망과 행복으로 이끄는 태도와 믿음을 찾아보고 칠판에 열거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우흐트도르프 장로가 가르친 것처럼 믿고, 사랑하고, 행함으로써 어떻게 행복을 경험했는지 나누어 달라고 한다. 그런 후 이 말씀 중에서 집에 비치하거나 친구와 나누고 싶은 멋진 문구를 찾아보라고 한다.

조이 디 존스, “그분을 위해”

존스 자매의 말씀에서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나누고, 회원들에게 자신이 했던 봉사와 성역의 노력을 사람들이 “알아 주거나 감사해하기는커녕 도리어 꺼려” 하는 것 같았던 때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이 이야기를 토론한

후, 칠판에 우리는 왜 봉사해야 하는가?라고 적는다. 회원들에게 존스 자매의 말씀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서 통찰을 찾아보고 이 질문에 답해 보라고 한다.(또한 교리와 성약 59:5 참조) 존스 자매의 권고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보살피고 성역을 행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미셸 디 크레이그, “신성한 불만족”

크레이그 자매는 “자신의 현 위치 및 됬됨이가 사실은 우리가 되고 싶은 위치나 됬됨이와 격차”가 있다는 것에 관해 말한다. 하나님은 이 격차에 관해 우리가 어떻게 느끼기를 바라시는가? 사탄은 이 격차에 관해 우리가 어떻게 느끼기를 바라는가? 각 회원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크레이그 자매의 말씀에서 세 부분 중 하나를 살펴볼 수 있다. 우리의 “신성한 불만족”이 “무기력하게 하는 낙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이타적인 봉사가 주는 기쁨”

프랑코 자매는 “사랑은 희생을 통해 성스럽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빅토리아 자매님에 관한 이야기와 어느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회원 두 사람에게 이 두 이야기에서 사랑과 희생에 관해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오라고 부탁한다. 이 원리를 가르치는, 나눌만한 다른 경험이 있는가? 구주께서 사람들에게 봉사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동영상(예: LDS.org에 있는 “세상을 비추라—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보여 주고, 우리가 어떻게 구주의 모범을 따라 “사랑과 희생이 깃든 봉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토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헨리 비 아이어링, “여성과 가정에서의 복음 학습”

아이어링 회장이 이 말씀에서 언급한 성구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의 인용문은 가정에서 여성이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에 관해 통찰을 제공한다. 회원들은 함께 이 성구와 인용문을 찾아보고 배운 것을 토론할 수 있다. 아이어링 회장은 어떤 권유를 했는가? 그리고 어떤 약속을 했는가? “사랑 넘치는 우리 집”과 같은(찬송가, 166장), 가정에 관한 찬송가를



부르거나 가사를 읽는 것이 어떻게 토론을 향상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델린 에이치 옥스, “부모와 자녀”

가르칠 준비를 하면서, 옥스 회장의 말씀 중에서 어느 부분이 여러분의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 회원들과 가장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옥스 회장의 말씀에 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옥스 회장의 말씀 1 부분에 언급된 현대의 추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어떻게 반대되는가? II 부분에 나오는 충실한 여성들에 관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어떤 실례를 나눌 수 있는가? III 부분에 나오는 옥스 회장의 구체적인 권고를 따르도록 우리가 아는 젊은 여성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가?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의 집합에는 자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상호부조회를 가르치는 경우, 자매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넬슨 회장의 말씀에 나오는 네 가지 권유 중 하나를 읽게 한다. 각 그룹은 그 권유에 관하여 느낀 점과 그것을 실천했던 경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한 것인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토론할 수 있다.

그런 후, 각 그룹은 자신들이 나눈 대화를 발표할 수 있다. 여러분이 신권 소유자들을 가르치는 경우,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딸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넬슨 회장의 말씀에서 찾아보라고 한다. 자매들이 이스라엘의 집합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엠 러셀 벨라드,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헌”

토론을 하기 전에 회원들에게 벨라드 회장의 권유를 받아들여 교리와 성약 138편을 읽어 보라고 권유한다. 이 공과를 하는 동안 회원들에게 138편과 관련된 경험과 통찰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은 회원들이 이 계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계시로 우리는 어떻게 위안을 얻는가? 이 계시에는 “우리가 매일을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진리들이 담겨 있는가?

보니 에이치 코든, “목자가 됨”

회원들이 성역을 더욱 잘 베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코든 자매의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소주제 부분 중 하나를 읽어 보게 한다. 그들에게 자신이 배운 성역의 원리를 나누어 달라고 한다.

이런 원리를 따르려 노력하는 것은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목자가” 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회원들에게 다른 사람의 성역을 통해 구주께서 자신을 알고 또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제프리 알 홀런드, “화해의 성역”

회원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치유 또는 화해가 필요한 관계를 생각해 보라고 권유하면서 홀런드 장로의 말씀에 관한 토론을 시작한다. 그런 다음, 회원들은 홀런드 장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브래드 보웬과 팜 보웬이 그들의 아버지가 치유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왔는지 찾아볼 수 있다. 그런 노력을 통해 어떤 축복이 왔는가? 회원들은 자신의 관계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가?

닐 엘 앤더슨, “상처 입은 자”

앤더슨 장로의 말씀을 소개하기 위해, 여러분은 누가복음 10장 30~35절을 함께 읽거나 또는 동영상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시청할 수 있다.(LDS.org)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과 비슷한가? 앤더슨 장로에 따르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치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회원들에게 구주께서 어떤 식으로 자신 또는 소중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셨는지를 나누어 달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회원들은 또한 앤더슨 장로의 말씀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과 나눌만한, 힘이 되는 메시지를 찾아볼 수도 있다.

러셀 엠 넬슨, “교회의 정확한 명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당신의 이름을 따라 불리어야 한다고 명하셨다. 회원들이 그 지시를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키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넬슨 회장의 말씀에서 “교회의 이름[을] 협상하고 절충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이 말씀 끝부분에서 넬슨 회장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이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때 무엇이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지를 찾아보라고 한다. 이런 노력에 일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헨리 비 아이어링, “노력, 노력, 노력”

아이어링 회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정적인 질문”을 제시한다. “나는 [구주]의 이름을 받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내가 발전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을 칠판에 적고, 회원들에게 이 질문들에 관하여 아이어링 회장의 말씀과 아이어링 자매의 모범에서 얻은 통찰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아이어링 회장은 또한 “주 예수를 닮으려고”라는 노래도 언급했다. *(어린이 노래책, 40~41쪽)* 이 노래의 가사는 토론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데이 지 렌랜드, “오늘 택하라”

회원들은 가족 구성원이나 그들이 성역을 행하는 사람 등,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도록 권유하고 싶은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렌랜드 장로의 말씀을 살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분들은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분들의 모범은 우리가 가족 안에서 기울이는 노력과 성역을 베풀려는 노력을 향상하도록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가?

게리 이 스티븐슨, “영혼의 목자가 됨”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스티븐슨 장로의 말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성역을 베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회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만한 것들을 이 말씀에서 찾아 토론하면 유익할 것이다. 또는, 목자로서의 구주의 모습이 담긴 그림을 가져와서 *(복음 그림책[2009], 64번 참조)* 이 그림에 나타나는 진리를 스티븐슨 장로의 말씀에서 찾아 나누어 달라고 한다. 그런 다음, 회원들은 그 토론의 결과로서 무엇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지를 나눌 수 있다.



넷째 일요일 모임(2018년 10~12월)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

2018년의 넷째 일요일에 장로 정원희와 상호부조회는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에 관해 토론하게 된다. 지도자 또는 교사는 다음 원리들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토론을 이끌 수 있다.

개인 경전 공부

회원들이 규칙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도록 돕기 위해, 각 회원에게 다음 성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읽도록 권유한다. 여호수아 1:8; 디모데후서 3:15~17; 니파이전서 15:23~25; 니파이후서 32:3; 교리와 성약 11:22~23; 33:16~18. 회원들은 읽고 숙고할 시간을 가진 후, 자신이 읽은 성구가 경전 공부에 관해 가르치는 바를 회원들 중 한 사람과 나눌 수 있다.

또한 회원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면서 받은 축복에 대해 간증해 달라고 한다. 회원들은 또한 의미 있는 개인 경전 공부를 하는 방법에

관해 서로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교재에서 “개인 경전 공부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에 나오는 예를 참고한다.)* 여러분은 또한 쿠엔틴 엘 쿡 장로가 “[일요일 모임 일정에 관한 조정 사항] 및 최근 있었던 변경 사항에 수반되는 목적과 축복”에 관하여 가르친 바를 회원들과 나눌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고 지속적인 개심”,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참조)* 회원들은 경전 공부를 향상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토론할 수 있다. LDS.org에

나오는 다음 동영상도 회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Words with Friends”, “경전의 축복”, “Daily Bread: Pattern”, “경전이 내게 주는 의미”

꾸준한 복음 공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꾸준한 가족 경전 공부와 다른 여러 의로운 습관을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작은 붓 자국들에 비유했다. 회원들이 베드나 장로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화가의 붓 자국이 눈에 보이는 그림을 전시할 수도 있다. 그런 다음, 회원들은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에 나오는 베드나 장로의 비유를 읽고(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9~20쪽), 이 그림에 있는 붓 자국들이 경전 공부와 어떻게 비슷한지를 토론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든 가족과 함께든 복음 공부를 꾸준히 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겨내는 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되었는가?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자신의] 가정을 복음 학습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가? (“모범적인 후기 성도가 되십시오”,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참조) 회원들이 오늘 배운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는지 숙고하고 나누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준다.

가정과 교회에서의 복음 토론

회원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하는 복음 토론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은 자녀와 부모에게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를 부르도록 권유하는 것이다.(찬송가, 192장) 이 노래의 가사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는 복음을 배우는 것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가정에서 복음 토론을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하는 방법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싶어 하는 회원들도 있을 것이다. 다음 성구들에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신명기 11:18~20; 베드로전서 3:15; 모사이야서 18:9; 모로나이서 6:4~5, 9; 교리와 성약 88:122.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토론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 및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2019년 가정 경전 공부를 격려하기 위한 아이디어

2019년에 와드의 모든 회원은 가정과 주일학교 및 초등학교에서 신약전서를 공부하게 된다.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지도자와 교사는 회원들이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교재에서 그다음 주에 다룰 성구들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글이나 구두로, 또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간단히 상기시킬 수 있다.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의 지도자와 교사는 이러한 경전 공부를 장려하기 위해 신약전서에서 얻은 통찰을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전할 기회를 찾는다. 예를 들어,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의 지도자와 교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자신이 경전을 공부할 때 나온 이야기나 교리가 장로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 공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인지한다. 지도자와 교사는 이런 통찰을 일요일 모임에서 나눌 수 있다.
- 신약전서에 나오는 이야기나 교리가 장로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에서 자신이 맡은 책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회원들과 나눈다.
- 가정에서 신약전서를 공부하면서 했던 좋은 경험을 회원들과 나누고, 그들에게도 이런 경험들을 나누도록 격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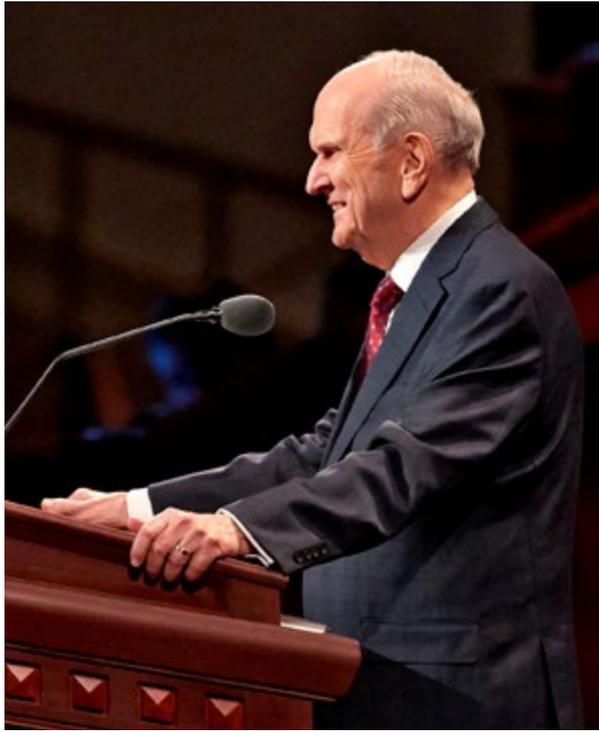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속죄의 은사를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처에서 비롯한 슬픔과 고통에서 언제라도 우리를 구하시고자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 지상에 오신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다.”[누가복음 4:18]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피해 지나가도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그분은 우리의 상처에 치유의 향유를 바르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고 가시며, 돌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낮게 하[리라].”[제3니파이 18:32]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상처 입은 자”, 85쪽.

선한 사마리아인,
애니 헨리 네이더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 새로운 통합 교과 과정은 가족들의 힘을 촉발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가족이 그들의 가정을 신앙의 안식처로 변화시키기 위해 주도면밀하고도 세심하게 노력하고 행동한다면 말입니다.”라고 제 188차 반연차 대회 마지막 모임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이 말씀했다. “여러분이 가정을 복음 학습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부지런히 노력하신다면 점차 여러분의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쁜 마음으로 구주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고자 할 것이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미치는 대적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극적이고도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